

계간

ISSN 3022-0300

북한 지역연구

여름
2026

통권 제13호

이번호 주제 : 회령시(會寧市)

함경북도 회령시 개관

회령시와 관문경제의 형성:

국경, 역사, 이동, 그리고 생존이 만든 구조

회령시: 국경 교역 통제와 산업 잠재력 발현의 역설

회령(會寧), 경계에 갇힌 숨결인가 대륙으로 향한 맥박인가

전거리 교화소에서 만난 하나님

회령의 교회를 찾아서

함경북도 북부지역에 세워진 성결교회

용정(龍井, 룡정) 바라보기

회령을 배경으로 한 문학작품

회령 출신의 유명인 · 회령의 대표 음식

회령의 사람 사는 이야기 · 언론에 비친 회령



한국 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2026 여름 통권제13호

이번호 주제 : 회령시(會寧市)



02 컬럼 1-함경북도 회령시 개관

15 컬럼 2-회령시와 관문경제의 형성: 국경, 역사, 이동, 그리고 생존이 만든 구조_곽인옥 (통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1 컬럼 3-회령시: 국경 교역 통제와 산업 잠재력 발현의 역설_김병욱 (NK개발연구소 소장)

27 컬럼 4-회령(會寧), 경계에 갇힌 숨결인가 대륙으로 향한 맥박인가_전병길 (에스이노베이션캐슬링 대표)

31 탈북민 수기-전거리 교화소에서 만난 하나님

40 컬럼 5-회령의 교회를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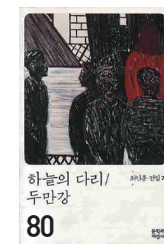
Cover Story

김정숙혁명사적관 부근에 위치한 이 기념비는 지역의 혁명 역사와 항일투쟁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상징적 시설물이다. 주변에는 김정숙 동상이 조성된 공원이 자리하고 있고, 인근에는 인민도서관이 위치해 있다.

◆ 계간 북한지역연구 ◆ 등록일 : 2023년 7월 13일
◆ 등록번호 : 중량, 바00020 ◆ ISSN 3022-0300
◆ 발행년월일 : 2026년 7월 1일

◆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E-mail : info@opendoors.or.kr
◆ Home Page : www.opendoors.or.kr

후원계좌(북한선교) 국민은행(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61 컬럼 6-함경북도 북부지역에 세워진 성결교회_이한복 (정선교회 목사)

71 컬럼 7-용정(龍井, 룡정) 바라보기_유관지 (북녘교회연구원장)

80 회령을 배경으로 한 문학작품_최인훈, 두만강 (1970)

82 회령 출신의 유명인

85 회령의 대표 음식

87 회령의 사람 사는 이야기

92 언론에 비친 회령_최근 1년간 언론을 통해 보도된 회령 소식

함경북도 회령시 개관

1. 함경북도 회령시: 개요와 역사

회령시(會寧市)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함경북도의 북부, 두만강 연안에 위치한 도시이다. 면적은 1,750km²로서 도 전체 면적의 10% 이상을 차지하며, 인구는 15만 3,532명(2008 인구센서스 기준)이다. 서쪽은 무산군, 남쪽은 부령군·청진시, 동쪽으로는 경흥군·경원군·온성군과 접해 있고, 북쪽은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 지린성(吉林省) 연변 조선족 자치주 룡징시(龍井, 용정)와 마주하고 있다. 회령은 함경북도에 있는 3개의 시(청진, 김책, 회령) 중 하나이며, 인구도 함경북도에서 청진(약 66만), 김책(약 20만)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도시이다.

회령은 두만강 연안에 비교적 넓게 발달해 있는 충적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산지로 되어 있다. 시의 주변에는 동쪽은 백사봉(白沙峰, 1,139m)·산성산(山城山, 680m), 서쪽은 민사봉(民事峰, 1,429m)·차유령(車踰嶺, 1,569m), 남쪽은 슬봉(瑟峰, 1,048m)·무산령(茂山嶺, 606m), 북쪽은 세계봉(世界峰, 746m), 중앙에는 오봉산(五峰山, 1,330m) 등의 험한 산지가 솟아 있다.

회령 시내를 감싸고 흘러 두만강으로 합쳐지는 회령천과 팔울천 사이에 자라가 물속으로 들어간다고 하여 이름한 오산덕이 자리 잡고 있는데, 오산덕 중턱에 김일성의 부인 김정숙의 생가가 있다.

회령이라는 이름은 조선 세종 때 붙여진 것이다. 당시, 이 지역은 여진족에

의해 와무허(幹木河)로 불렸는데, 1434년 조선 세종 때 해당 지명의 한자 음역인 오음회(吾音會)의 '회'자와 영북진(寧北鎭)의 '영'자를 따서 '회령진(會寧鎭)'이라 하고 그해 가을에 회령진을 회령도호부로 승격시켰다. 이름의 유래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지역은 조선시대 여진족을 방어하고 통제하기 위해 설치된 6진 중 하나로, 북방 개척의 핵심 기지 역할을 했다. 이후 1895년(고종 32년) 지방 관제 개편에 따라 회령군이 되었다.

일제 강점기에 회령은 국경무역의 중심지이며 전국적으로 유명한 탄광 지대로 발전하였다. 다만 여기에는 안타까운 역사도 있는데, 탄광 노동력이 부족해 지자 일제가 한반도 각지에서 전쟁 징용 혹은 노동 징용을 시작했고, 그 행선지 중 하나가 회령이었기 때문이다. 1931년에 경상도·전라도·충청도 지역에서 이재민이 발생하자 일제는 이들을 함경북도 회령 소재 유선탄광으로 이주시키기도 했다.¹⁾

회령은 우리 독립운동사에서도 의미 있는 곳이다. 1920년 윤준희, 임국정, 한상호 지사가 조선은행 회령점에서 용정 출장소로 수송하는 현금을 탈취하여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독립군에게 제공할 무기를 구매하다가 일본 특무 기관에 붙잡혀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한 '간도15만원사건'이 이 지역을 배경으로 벌어졌다. 해당 거사에 참여한 윤준희(尹俊熙) 지사는 1895년 12월 26일 함경북도 회령군 봉의면에서 태어난 회령 출신이다.²⁾ 또한 안중근 의사가 속한 연해주 의병부대가 국내진공작전을 벌이다가 1908년 7월 21일 회령군 영산에서 전투를 벌이기도 했다. 안타깝게도 이 전쟁에서 패한 연해주 의병은 큰 피해를 입고 흩어졌고, 가까스로 탈출한 안중근 의사는 남은 11명의 의병 동지와 함께 하얼빈 의거를 계획하게 된다.³⁾



〈안중근 의사의 회령 영산전투 이후부터 하얼빈 의거까지의 행적을 소재로 다룬 영화 ‘영웅 (2022)’의 포스터〉

2. 회령시의 지역과 시설

1) 주요 지역

회령(당시 군)은 1931년 회령면이 회령읍으로 승격하였고, 1943년 봉의면과 운두면을 합쳐 보을면이 되었다. 이에 따라 광복 당시 기준으로 회령군은 회령읍, 벽성면(碧城面), 보을면(甫乙面), 용흥면(龍興面), 창두면(昌斗面), 팔

1) 한국문화원협회 지역N문화 홈페이지 <<https://local.nculture.org/335uz>>

2) “8월의 독립운동가 윤준희 · 임국정 · 한상호 · 김강 지사”, 월간 순국 2023년 8월호, pp. 62-67.

3) 박민영(2010), “안중근의 연해주 의병투쟁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35집, pp.189-234.



을면(八乙面), 화풍면(化豊面) 등 1읍 6면으로 구성되었다. 당시 면적은 1,255.80km²였으며, 호수 1만 4,641호, 인구 7만 6,151명이었다.⁴⁾

회령은 1952년 군의 일부를 신설되는 유선군에 이관하고 종성군과 부령군 일부를 편입하면서 1읍 1노동자구 15리를 관할하였다. 그러다가 1974년 유선군이 회령군으로 흡수 통합되면서 유선읍이 노동자구가 되었고, 91년 회령군이 회령시로 승격하

면서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2008년 기준 19개 동⁵⁾과 28개 리⁶⁾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회령의 중심지, 시내로 인식되는 지역은 일반적으로 회령역 앞에서부터 회령호텔(회령 려관)까지 이어지는 도로를 중심으로 그 양옆에 늘어선 건물과 주변 지역인 역전동, 오산덕동, 성천동 등이다. 세 동이 만나는 지점에 김정숙 동상이 자리를 잡고 있고, 그 앞에 회령시 광장이 넓게 펼쳐져 있으며 중요한 행사는 대부분 이 광장에서 치른다. 또한 광장 맞은편에는 회령시장이 위치해 있다. 길을 따라 나가면 회령시 중심부에서 남동쪽으로 3km 떨어져 있는 곳에 회령 호텔이 나오는데, 투먼-남양-청진 일대 외국인 관광객들이 묵을 수 있는 주요 숙박 시설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⁷⁾ 회령 호텔 이후부터는 청진의

4) 한국민족대백과사전 회령군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65475>>

5) 강안동, 계림동, 공심동, 남문동, 동명동, 망양동, 보을봉, 산업동, 새마을동, 성천동, 세천동, 수북동, 신천동, 역전동, 오산덕동, 유선동, 중도동, 중봉동, 칠월팔일동

6) 계상리, 계하리, 굴산리, 금생리, 남산리, 대덕리, 덕흥리, 낙생리, 용천리, 무산리, 방원리, 벽성리, 사을리, 성동리, 성북리, 송학리, 신흥리, 영수리, 오류리, 오봉리, 원산리, 인계리, 창태리, 창효리, 풍산리, 학포리, 행영리, 홍산리

7) 이연주 외 (2021), 「북중 접경지역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한중 인프라 협력방안: 두만강 유역을 중심으로」,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48-01, p. 57

로 나가는 길로서 흔히 인식되었다.

두만강변에는 망양동과 강안동이 위치해 있다. 이 지역은 강변에 위치한 만큼 망양동에는 망양나루터가 있는데, 이 나루터에는 당시 김정숙이 탔던 나룻배가 있으며, 혁명사적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해당 지역은 고난의 행군 이후 한동안 “문세를 받아서” 먹고사는 “문세꾼이 많이 사는” 지역으로 알려졌다. 두만강 강변을 지키는 초소의 군대와 짜고 불법적

으로 중국에 가려는 사람을 넘겨주고 그 대가를 받아서 생활을 유지했다는 뜻이 담겨있는 표현이다.⁸⁾ 이러한 점을 의식한 듯 북한은 두만강 인접 지역을 재정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2016년 두만강 홍수 피해를 크게 입은 이후, 해당 지역의 인가들은 홍수 피해를 복구하는 대신 철거하는 식으로 사라진 정황이 확인된다.⁹⁾

회령시는 이 외에도 1974년 유선군과 종성군이 폐지되면서 유선군 전 지역과 종성군 일부 지역을 편입하였다. 회령과 무산 사이에 위치했던 유선군은 폐지되면서 회령시(당시 군) 유성노동자구가 되었다가 회령이 시로 승격되면서 보을동, 계림동, 유선동 등이 설치되었다. 회령과 온성 사이의 과거 종성군 지역이었던 중봉노동자구 역시 종성군이 폐지되면서 회령시에 편입되어 중봉동이 되었다.



8) 김석향, 「회령 사람들, 기억 속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3. 06. 28), p. 27.

9) "탈북 은신처" 수해마을 복구과정서 사라질 위기" 자유아시아방송(RFA), 2016.10.10., <https://www.rfa.org/korean/in_focus/flood-10102016151624.html> (조회일: 2026.03.09.)

사대 등이 있으며 그 중 오룡철광은 중국 철강기업과 협력하여 합작 운영하고 있다. 오룡철광은 철 정광을 중국에 공급하고 중국은 철광산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화물트럭, 경유, 타이어, 식량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철 정광은 회령시 내로 운반된 다음 회령세관을 거쳐 중국 룡정시의 삼장세관을 통과하여 중국 내 철강기업소에 운송되는 것으로 알려진다.¹⁷⁾

4. 김정숙의 고향, 회령

회령은 북한에서 김정숙의 고향으로서 특별한 도시이다. 회령군이 시로 승격된 것도 김정숙(김일성 부인, 김정일 어머니)의 고향으로 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이다. 김정일의 생모인 김정숙은 1917년 회령의 오산덕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진다. 이를 기념하여 매년 회령에서는 김정숙의 생일인 12월 24일을 맞아 김정숙 동상 앞에서 국가적인 행사를 진행한다.

회령시에는 이뿐 아니라 김정숙과 연관된 여러 시설이 위치해있다. '회령혁명사적지'는 두만강의 지류인 팔을천과 회령천 사이에 조성돼 있는데, 김정숙의 생가를 중심으로 '김정숙동지혁명사적관'을 세우고 그 앞뒤로 잔디밭과 수림을 조성했다. 김정숙이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오산덕 기슭에는 김정숙의 동상을 세우고 그 앞뒤로 잔디밭과 나무들을 심어 풍치 좋은 풍경을 조성, 국가적 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여러 기관에 김정숙의 이름을 붙였다. 회령교원대학이 김정숙교원대학으로 명명되었고, 그 과정에서 청진시에 있는 마동희교원대학을 없애고 김정숙교원대학으로 이전하였다. 회령 시내에 김정숙산모병원도 현대적으로 건설하였다.

회령시(당시 회령군)가 김정숙의 고향으로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이다. 시내 중심에 김정숙 동상이 세워지고 김정숙 생가와 사적관 등이 조성되었다. 이후 1991년 인근의 유선군을 회령군에 통합하여 회령시로 출범하면서 군에서 시로 지위가 격상되었다. 회령 출신 탈북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다른 지역 사람이 회령에 오려고 할 때에는



〈회령 오산덕에 위치한 김정숙 동상〉

17)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웹진 이름 2025년 5월호 <<http://webzine.sonosa.or.kr/202505/5.html>> (검색일: 2026.03.16)

마치 평양에 갈 때처럼 여행증에 출입 승인번호를 받아야 했던 반면 회령 주민은 다른 지역에 갈 때 특별히 출입 승인 번호를 받지 않아도 되는 특혜를 누리기도 했다고 한다.¹⁸⁾

5. 관문도시로서의 회령

회령 지역은 예전부터 두만강 지역 교류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의 교역 요청에 따라 1638년(인조 16년)에 두만강변의 회령에 개시가 설치되었다. 처음에는 매년 회령개시가 열렸으나 뒤에 격년제의 경원개시(慶源開市)가 열리게 되었는데, 회령에서 단독으로 열리는 것을 단개시(單開市), 두 곳에서 동시에 열리는 것을 쌍시(雙市)라 하였으며, 이를 총칭해 북관개시 또는 북도개시(北道開市)라고 불렀다고 한다.¹⁹⁾

이러한 역사적 배경 때문인지 회령은 북한의 다른 지역에 비해 시장이 빠르게 발전하였다. 1980년대부터 회령시에는 부족한 생활필수품을 거래하는 '농민시장'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특히 1982년부터 주로 조선족 상인들이 친척 방문을 빌미로 하루 입사증을 가지고 회령을 오가며 물건을 팔기 시작하였다. '골목장사' 형태로 형성된 이 시장은 대략 300여 명 규모의 상인들이 장사는 상당한 규모가 되었는데, 회령 주민들은 이 시장의 분위기가 홍콩 같다고 해서 '홍콩시장'이라고 불렀다고 한다.²⁰⁾ 북한 당국은 이 시장을 자본주의 온상이라고 하며 통제하고자 했지만, 부족한 생활필수품 수요로 인해 1988년까지 성업했다. 두만강과 마주하고 있는 관문도시로서의 회령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²¹⁾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이후 회령은 1990년대 말까지 북한 동북부 지역 유통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이러한 유통 도매지역 역할은 이후 청진으로 옮겨졌지만, 현재까지도 중국에서 청진을 오가는 차량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회령을 거친다. 회령을 거치는 물동량의 규모 등에 관한 북한 측의 구체적인 통계는 확인된 바 없지만, 회령의 상대방인 중국 산허(三陟, 삼합) 통상구의 경우 연간 화물



〈회령으로 통하는 중국 측 관문인 산허(삼합) 통상구 (사진=바이두)〉

18) 김석향 (2013), 앞의 책, pp. 56-57.

1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65475>> (검색일: 2026.03.16)

20) 곡인옥, 「북한시장을 말한다: 회령시장의 공간적 구조와 기능」, 서울:하늘로 (2017년 1월 7일), p. 157.

21) 강채연, 「북한도시이해」, 바른북스 (2024.12.16.), pp. 198-209.

처리량은 50만 톤, 연간 여객 통행량은 1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²²⁾

회령 시장은 여전히 중국에서부터 북한의 각 지역 시장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요충지이다. 고난의 행군 초기 당시 회령은 시내 전체가 암시장화 되었는데, 특히 회령천 강변에 장사꾼들이 모여들면서 자생적으로 강변시장이 형성되었다. 그러다가 국가 차원에서 시장을 공식화하여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이루어지면서 기존 시장 바로 앞 망양동의 역전 인근에 터를 잡고 설비를 건설하고, 그동안 무질서하게 산재된 강변근처의 시장을 옮겨 이 구역에서 장사하게 하였다. 이때부터 당국이 조성한 종합시장으로서 ‘회령 시장’이 설립되었다. 이후 상업이 더욱 활성화됨에 따라 기존 시장 규모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2007년 김정숙 동상 맞은편 시내 중심인 폐교된 성천중학교 자리로 시장을 이전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²³⁾

이러한 회령의 관문 도시로서의 특성으로 인해 외부 세계의 영향이 다른 북한 지역에 비해 비교적 빠르게 관찰되는 곳으로 꼽힌다. 회령 출신 탈북자들은 회령을 중국에서 들어오는 새로운 유행이 가장 빠른 곳 중 하나로 꼽는다. 옷차림이나 각종 디지털 미디어(DVD, MP3, MP4)가 앞서 유입되다 보니 차림새나 의식 수준도 다른 함경북도 지역과 달랐다고 한다. 빙두(얼음)로 대표되는 마약이나 당국이 금지한 개인의 외환 거래(불법 돈장사) 등 여러 비법 활동도 비교적 흔했으며,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탈북도 찾아 한때 도시에서 젊은 여성을 보는 것이 점차 어려워질 정도였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한다.²⁴⁾ 그런 이유 때문인지 국내 입국 탈북민 중에서도 회령 출신인 분들을 비교적 쉽게 만날 수 있다. 김정일의 생모 김정숙의 고향이며 사회주의 사상을 지키는 선봉으로 칭송받는 도시인 회령이지만, 이와 동시에 비사회주의 물질이 가장 빨리 불어닥친 지역이라는 점이 아이러니하다.

6. 22호 정치범 수용소와 전거리 교화소

1) 22호 정치범 수용소

이렇게 외부와의 교류가 많은 회령이지만 절대로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되는 시설이 회령에 존재했었다. 바로 ‘22호 관리소’(정치범 수용소)이다. 22호 관리소는 1959년에 설립되어 2012년까지 운영되었다. 회령시의 북쪽에 위치

했던 해당 관리소의 원래 행정구역은 종성군 행영면이었으나, 후에 회령시 중봉동으로 편입이 되었다. 이 관리소의 정확한 크기와 규모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대략 구 행영면 면적의 4/5가량을 차지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수용소는 많을 때는 5만 명 이상의 수감자가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해당 수용소에서 수감자들은 중봉 탄광을 비롯한 수용소 인근의 탄광 노동에 동원되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완전통제구역으로서 이 수용소에서 탈출하거나 석방된 인원은 확인된 바가 없지만, 이 관리소에서 7년간 운전병으로 근무했던 안명철 씨의 증언을 통해 대략적인 수용소의 실태가 드러났다.²⁵⁾

22호 정치범 수용소는 2012년 단계적으로 폐쇄되었고, 그 자리에 협동 농장이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수용소의 폐쇄 이유에 대해서는 수용소의 아사자가 다수 발생하여 폐쇄하였다는 설²⁶⁾, 22호 관리소에서 탈주자가 발생하여 동요를 막고자 폐쇄했다는 설²⁷⁾, 김정숙의 고향에 관리소를 둘 수 없어 폐쇄했다는 설²⁸⁾ 등이 있다. 폐쇄된 후 관리소에 수감되어 있던 수감자들의 행방에 대해서는 인근의 16호 명간 관리소로 이감되었다는 설이 있다.²⁹⁾

2) 전거리 교화소

22호 관리소가 현재 운영되지 않는 시설이라고 한다면 전거리 교화소는 현재 진행형인 시설이다. 전거리 교화소는 회령에서 청진으로 가는 방향인 무산리에 위치해 있다. 전거리 교화소는 정치범 수용소는 아니다. 형기가 6개월에서 1년 이상인 일반적인 죄수들을 수용하는 한국의 교도소와 같은 평범한 수용소이다. 하지만 강제 복송된 탈북자들이 대거 수감되기 시작하면서 그 이름이 알려졌다.

전거리 교화소는 원래 남성 일반 범죄자를 주로 수감하던 곳이었다. 그러던 이곳에 본격적으로 여성 수용자들이 수감된 것은 2007년부터, 중국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맞아 중국 내 북한 난민을 대거 복송하면서부터인 것으로

25) “前경비원 안명철씨가 말하는 제22호 정치범수용소”, NK조선 홈페이지 (2002.12.04.), <<https://nk.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6745>>, “권총 5정 팔아 한국行…22호 정치범수용소 경비병주성하 기자의 북에서 온 이웃”, 동아일보 (2020.12.18.),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1218/104505031/1>> 등 참조

26) 북, 22호 수용소 왜 폐쇄했나?, 자유아시아방송 (2012.09.27.), <https://www.rfa.org/korean/in_focus/prisoncamp-09272012101637.html>

27) 북, 22호 관리소 탈주자 색출에 총력, 자유아시아방송 (2015.05.08.), <https://www.rfa.org/korean/in_focus/human_rights_defector/exodus-05082015095720.html>

28) 北 수용소 없다?... “수감 인원 늘리고 ‘유사사 사살’ 방침까지 내놔”, 데일리NK (2020.08.05.), <<https://www.dailynk.com/北-수용소-없다-수감-인원-늘리고-유사사-사살/>>

29) 북 ‘화성 16호 관리소’의 미스터리, 자유아시아방송 (2012.05.17.), <https://www.rfa.org/korean/in_focus/prisonernomissing-05172012103538.html>

22) 연변조선족자치구인민정부 홈페이지 <<http://www.yanbian.gov.cn/zq/ljs/>>

23) 곽인옥, 「북한시장을 말한다 - 회령시장의 공간적 구조와 기능」, 서울:하늘로 (2017), pp. 146-151.

24) 김석향 (2013), 앞의 책, pp. 88-118.



닌, 형기를 채우면 석방될 수 있는 이 교화소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상징하는 공간이 된 것은 많은 죄수가 형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망하는 열악한 수감 환경 때문이다. 교화소의 위생 상태가 매우 열악하고 제대로 된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 가운데 혹독한 노동까지 부과되어 상당수의 수감자들이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형기를 다 마치지 못했다.

아산연구소에서 과거 전거리 수감 경험이 있는 20명을 통해 276명의 수감자에 대한 사망과 유병 비율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대상자 중 절반 이상이 영양부족, 감염성 질환 증상을 보였으며 20% 이상이 호흡기계 질환과 소화기계 질환에 해당하는 증상을 보였다. 그렇지만 질병이 발생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서야 병방(病房)으로 배치되었고, 그마저도 의약품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영양실조에 시달리던 환자가 완치된 관찰 케이스는 거의 없었다. 이러한 영양실조와 각종 질환으로 인해 관찰 대상자 중 6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이는 전체 관찰 대상자의 24.3%에 육박하는 수치이다. 소련 스탈린 시대 강제수용소의 평균 사망률이 전시나 초기를 제외

보인다.³⁰⁾ 2007년 12월 당시 전거리교화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전수감자들은 2008년 한 해 동안에만 여성 수감자 인원이 300명에서 1,200명으로 급증한 것을 목격하였다고 보고했다.³¹⁾ 2011년에는 수감자 수가 계속 증가해 남자 3,000명, 여자 2,000명을 수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³²⁾

정치범 수용소도 아

하고 5% 미만을 유지했던 것을 고려하면 평시 사망 비율이 20%를 넘는 북한의 교화소 인권 침해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³³⁾ 이렇게 열악한 수감 환경에다가 객관적으로 볼 때 중범죄를 지었다고 보기 어려운 탈북 여성들이 강제복송을 당하여 이 교화소에서 희생되면서, 전거리 교화소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태를 보여주는 상징과 같은 곳이 되고 말았다.

현재도 해당 교화소는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게다가 수감자들이 북한 당국의 외화벌이에 적극적으로 동원되고 있는 정황이 보고된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전거리 교화소를 비롯하여 구금시설의 죄수들이 북한 당국의 외화벌이를 위한 강제 노동력으로 희생하고 있다고 폭로했다.³⁴⁾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 허가를 보유한 북한 국영 무역회사들이 중국 기업과 합작 투자를 진행하며 근처 라선 경제특구를 통해 전거리 교화소에 원자재를 공급하고, 교화소에서 완성된 제품은 다시 중국으로 보내져 'Made in China', 중국산으로 표기되어 전 세계로 유통된 정황이 확인된다. 주요 제품은 가발이나 인조 속눈썹 등이며, 수출 생산 할당량을 맞추기 위해 하루 최대 20시간까지 수감자들을 동원하는 등 심각한 노동 강도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중국에서 강제 복송된 여성들이 북중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노예 노동에 동원되고, 이 기업들을 통해 북한 정권은 외화를 공급받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노예 노동은 국제법상으로 엄연히 금지된 인권 침해 행태이다.

7. 나가며… 회령을 주목하는 이유

회령시는 북한 정권이 내세우는 '혁명의 성지'이자, 동시에 외부 세계의 물결이 가장 먼저 들이닥치는 '변화의 최전선'이다. 우리가 오늘날 회령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지리적 요충지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땅에 서려 있는 아픔과 미래의 희망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회령은 관문도시로서 북한 변화의 통로 역할을 해왔다. 회령은 과거 '회령개시'를 통해 물자가 오가던 역사적 전통을 이어받아, 오늘날에도 외부 문화와 정보가 유입되는 핵심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홍콩시장'으로 불렸던 장마당의 활력은 폐쇄적인 체제 속에서도 초국가적인 경제 활동과 의식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증명한다. 회령은 북한 내부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바로미터의 장소이다.

30) 김인성, 「북한 구금시설 총서: 전거리 12호 교화소」, 서울:북한인권정보센터 (2016), pp. 1-3.

31) 요안나 호사낙 외, 「메이드 인 차이나: 글로벌 공급망이 어떻게 북한 교화소의 노예제를 부추기는가 - 전거리 12호 교화소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북한인권시민연합 (2024), pp. 24-25.

32) 고명현, 「북한 교화소 내 인권 실태-전거리 교화소 내 사망과 유병 비율을 중심으로」, 서울:아산연구소 (2017), pp. 14-16.

33) 고명현, 위의 책, pp. 27-29.

34) 요안나 호사낙 외, 「메이드 인 차이나: 글로벌 공급망이 어떻게 북한 교화소의 노예제를 부추기는가 - 전거리 12호 교화소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북한인권시민연합 (2024).

반면 회령은 분단의 비극과 억압의 그림자가 가장 날카롭게 드러나는 현장이기도 하다. 전거리 교화소에 수감된 수많은 탈북 여성들의 눈물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인권 유린의 실태를 고발한다. 강제복송과 노예 노동으로 점철된 이들의 삶은 우리에게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되문게 하며, 국제사회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인도적 과제를 상기시킨다. 이들뿐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 고난과 순교의 기억이 회령에 남겨져 있다. 지금은 폐쇄된 22호 정치범 수용소를 비롯하여 여러 탄광지역에는 적대계층으로 몰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스러져간 기독교인들 및 그들의 가족이나 친척 등의 희생이 묻혀 있다.

마지막으로 회령은 장래에 남과 북의 화합의 마중물 역할을 할 지역이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많은 회령 출신 탈북민들이 정착해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남과 북을 모두 경험한 소중한 자산이며, 향후 한반도가 하나로 연결될 때 남과 북이 서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화합의 메신저가 될 수 있다. 회령은 이들을 통해 남북이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통합을 준비하는 실질적인 장소가 될 수 있다.

이렇듯 회령은 북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우리가 마주해야 할 미래가 응축된 도시이다. 우리가 어떻게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통일의 변화를 맞이할 것인지를 회령이라는 장소를 통해서 마주할 수 있길 바란다. 

회령시와 관문경제의 형성 : 국경, 역사, 이동, 그리고 생존이 만든 구조

곽인옥 (통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1. 회령은 왜 중요한가 - 경계 위의 도시

회령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의 도시를 이해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북한 사회가 어떻게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구조를 읽는 일이다. 회령은 행정 단위가 아니라 경계 위에 놓인 공간이며, 이 경계성은 단순한 지리적 조건을 넘어 경제와 생활, 그리고 체제의 작동 방식까지 규정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해 왔다.

이곳에서는 국가의 계획보다 이동이 먼저 작동하고, 통제보다 연결이 더 오래 지속된다. 계획은 위에서 내려오지만, 생존은 아래에서 만들어진다. 이 간극 속에서 회령은 단순한 지방 도시가 아니라, 체제의 실제 작동 방식을 드러내는 창으로 기능한다.

특히 회령은 “달린 체제 안에서 열려 있는 공간”이라는 역설적 위치를 가진다. 국경은 통제를 상징하지만, 동시에 이동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회령은 바로 그 틈에서 작동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이곳은 북한 경제를 주변에서 설명하는 보조 사례가 아니라, 내부 구조를 역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핵심 지점이다.

2. 역사적 형성 - 국경과 이동의 축적

역사적으로 회령은 내부를 위한 도시가 아니었다. 조선시대 이래 이 지역은

말갈과 여진 계통 세력과 맞닿아 있던 북방 경계였으며, 군사적 긴장과 교류가 동시에 존재하는 접경지였다. 국경은 단순한 선이 아니라, 지속적인 접촉과 긴장이 반복되는 공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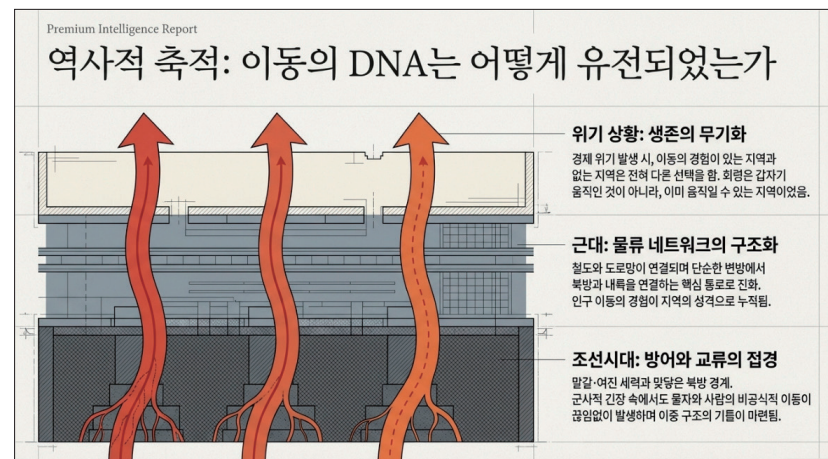
이러한 조건 속에서 회령은 방어의 거점이면서 동시에 교류의 통로로 기능했다. 공식적으로는 통제가 강조되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물자와 사람의 이동이 완전히 차단될 수 없었다.

이 이중 구조는 이후에도 계속 반복되며 지역의 성격을 형성한다.

근대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특성은 더욱 강화된다.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면서 회령은 단순한 변방이 아니라, 북방과 내륙을 연결하는 통로로 자리 잡는다. 물자의 이동은 점차 구조화되고, 사람들의 이동 경험은 누적된다.

이러한 역사적 축적은 단순한 과거의 흔적이 아니다. 그것은 이후 생존경제가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동의 경험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은 위기 상황에서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된다. 회령은 이미 “움직일 수 있는 지역”이었다.

또한 다양한 인구 이동과 환경 조건이 결합되면서 형성된 지역적 특성은 회령을 단순한 행정 도시가 아니라, 경계 위에서 형성된 복합적 공간으로 만든다. 이곳에서는 문화와 생활 방식 또한 이동과 접촉의 흔적을 담고 있다.



▲자료해설 : 이동 경험의 역사적 축적 구조(Historical Accumulation of Mobility Experience) - 회령은 조선시대 경계, 근대 물류, 위기 상황을 거치며 이동 경험이 축적된 공간이며 이동의 반복은 지역의 선택 능력을 결정하는 곳으로 위기 시 생존 전략으로 전환된다. 결국 이동은 사건이 아니라 구조로 내재화된 지역적 DNA이다.

3. 이미 열려 있던 관문 - 고난의 행군 이전

회령의 관문적 성격은 ‘고난의 행군’ 이후 갑자기 형성된 것이 아니다. 1990년대 초반, 배급 체계가 완전히 붕괴되기 이전에도 이미 국경을 통한 교환의 흐름

은 존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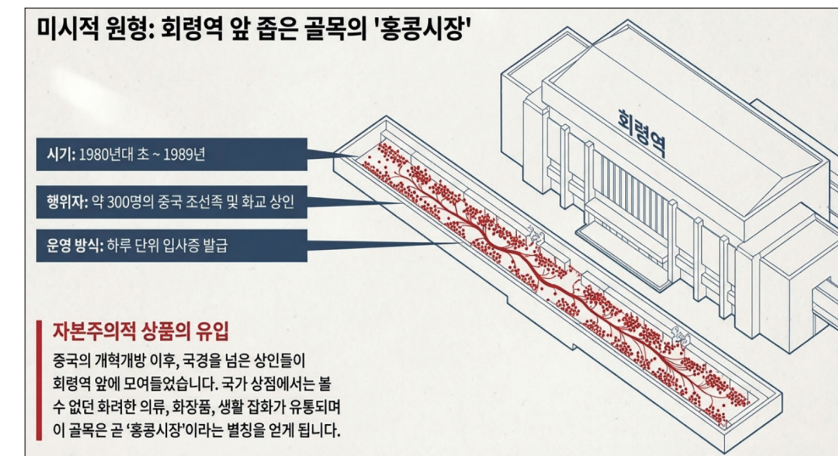
당시 회령역 일대에는 약 300여 명의 조선족 상인들이 중국 측 입사증을 소지하고 드나들며 활동했다. 이들은 단순한 방문자가 아니라, 일정한 물자와 자금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상업 네트워크의 초기 형태였다.

이들의 활동 방식은 단순한 거래를 넘어 구조를 형성했다. 물건을 들여오는 사람, 보관하는 사람, 다시 내보내는 사람이 분리되면서 역할이 나뉘기 시작했다. 거래는 개인 단위를 넘어 관계망으로 확장되었고, 점차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게 된다.

이 시기 존재했던 ‘홍공시장’은 이러한 구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곳에서는 중국에서 들어온 의류, 식료품, 생활용품이 거래되었고, 거래 방식은 기존 계획경제와 전혀 달랐다. 가격은 유동적이었고, 거래는 협상과 관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국가는 이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했다. 일정 부분 묵인되었고, 일정 부분 단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상인들은 중요한 것을 학습하게 된다.

어떻게 피할 것인가,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어떻게 비용을 나눌 것인가, 이것은 단순한 거래 기술이 아니라 생존 기술이었다. 결국 회령은 이 시기부터 이미 이동 + 거래 + 회피 + 합의가 결합된 구조를 경험하고 있었다.



▲자료해설 : 미시적 관문 구조의 형성(Micro-Formation of a Gateway Structure) - 회령역 앞 ‘홍공시장’은 국경 교환이 공간적으로 응축된 최초의 형태이다. 약 300명의 조선족 상인과 하루 단위 입사증 체계는 통제와 이동이 공존하는 구조를 보여준다. 상품의 유입은 단순 거래가 아니라 이후 관문 경제로 확장되는 출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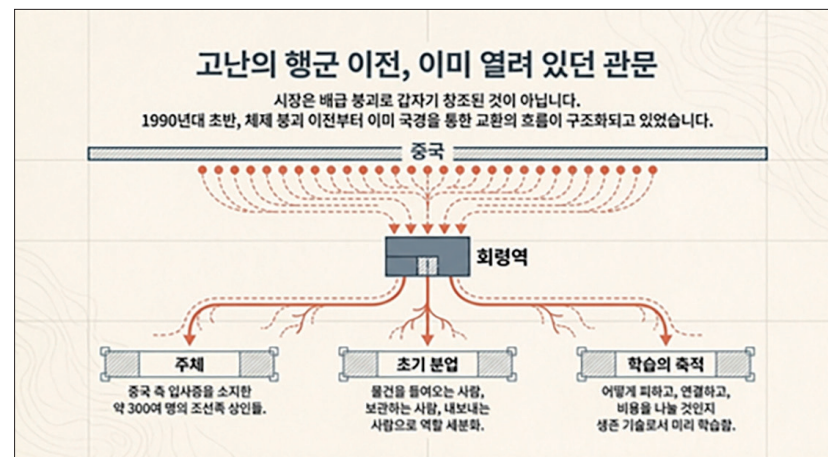
4. 이동이 만든 시장 - 배급 붕괴 이후

1990년대 중후반, 배급체계가 붕괴되면서 이 구조는 전면화된다. 더 이상

국가는 생존을 보장하지 못했고, 사람들은 스스로 움직여야 했다. 이때 회령은 다른 지역과 달랐다. 이미 존재하던 이동 경로와 네트워크가 있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새로운 길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 이미 존재하던 길을 확장하면 되었다.

이동은 빠르게 일상화된다. 개인 단위의 거래는 점차 규모를 키우고, 물자는 더 넓은 지역으로 이동하기 시작한다. 국경은 더 이상 예외적인 공간이 아니라, 생존의 출발점이 된다. 중요한 점은 시장이 먼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먼저 형성된 것은 이동의 경로였고, 그 다음이 교환이며, 마지막으로 시장이 나타났다.

시장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결과일 뿐이다. 실제로 작동하는 것은 그 아래의 흐름이다. 회령 시장은 계획된 경제 공간이 아니라 흐름이 축적되어 나타난 결과다.



▲ 자료해설 : 관문경제의 전개와 구조화(Structuring of Gateway Economy) - 고난의 행군 이전부터 형성된 국경 교환은 이미 분업과 네트워크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물자 이동, 보관, 재분배의 역할 분화는 유통 시스템의 초기 형태를 보여준다. 이러한 구조는 위기 이후 시장이 아닌 관문경제로 확장되는 기반이 되었다.

5. 관문에서 도매로 - 전국 유통의 출발점

이 흐름은 곧 전국 단위로 확장된다. 회령으로 들어온 물자는 머무르지 않는다. 다시 이동 한다. 물류는 일정한 경로를 따라 확산된다. 회령 → 청진 → 함흥 → 원산 → 평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형성된다. 각 지점은 단순한 경유지가 아니라 역할을 가진다.

청진은 물류의 1차 확산 지점이다. 함흥은 산업 수요와 결합되는 지점이다. 원산은 해안과 연결되는 지점이다. 평양은 최종 소비와 재분배의 중심이

다. 이 과정에서 가격은 단계적으로 형성된다.

회령에서는 최초 가격이 결정되고, 이동할 때마다 비용이 더해진다. 운송 비용, 위험 비용, 관계 비용, 이 모든 것이 가격에 반영된다. 또한 물자는 한 번에 이동하지 않는다. 분산되어 이동하고, 다시 모이며, 다시 나뉜다. 이 방식은 단속 위험을 줄이면서도 전체 흐름을 유지하게 한다.

중간 상인은 단순한 운송자가 아니다. 그들은 정보를 전달하고, 관계를 유지하며, 흐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결국 회령은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전국 유통의 상류 구조가 된다. 이곳에서 시작된 흐름이 북한 시장 전체를 움직이게 된다.

6. 보이지 않는 구조 - 생존과 비가시성

그러나 이 모든 구조는 드러나지 않는다. 회령 경제의 핵심은 비가시성에 있다. 드러나는 순간 비용이 증가한다. 노출되는 순간 위험이 확대된다. 따라서 거래는 숨겨지고, 이동은 분산되며, 관계는 조용히 유지된다.

이 구조 속에서 부는 축적이 아니라 지속으로 형성된다. 한 번의 이익이 아니라, 반복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진다. 합의의 비용, 이동의 비용, 침묵의 비용이 비용은 계속 지불된다.

이 과정을 견디는 사람이 구조 안에 남는다. 회령은 또한 문화와 상징이 함께 존재하는 공간이다. 백살구와 독(도자기), 그리고 사람에 대한 기억은 이 지역의 생활과 자연을 보여준다. 동시에 김정일의 생모인 김정숙의 고향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도 함께 지닌다. 그러나 이 두 구조는 다르게 작동한다. 위에서는 기억이 강조되고, 아래에서는 생존이 작동한다. 회령은 이 두 구조가 겹쳐 있는 공간이다.

■ 결론

회령은 북한 경제의 주변이 아니다. 그것은 체제를 실제로 움직이는 하부 구조이며, 국경이라는 조건 속에서 형성된 하나의 생존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계획에 의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이동과 연결, 그리고 지속적인 비용 지불을 통해 형성되었다.

국가는 위에서 명령을 내리지만, 회령은 아래에서 흐름을 만든다. 국가는 통제를 통해 질서를 유지하려 하지만, 회령은 연결을 통해 균형을 유지한다. 이 두 구조는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층위에서 동시에 작동하며 하나의

체제를 지탱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회령의 구조가 단순히 위기 상황에서 등장한 임시적 대응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구조는 이미 고난의 행군 이전부터 존재했던 이동과 교환의 경험 위에서 형성되었고, 위기 속에서 확장되며 하나의 체계로 자리 잡았다. 즉, 회령은 “무너진 이후 만들어진 시장”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흐름이 드러난 공간이다.

이러한 점에서 회령은 북한 경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예외가 아니라 기준이 된다. 계획경제는 표면을 설명하지만, 회령은 실제 작동을 설명한다. 숫자는 국가를 보여주지만, 흐름은 생존을 보여준다. 결국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명령이 아니라, 끊기지 않는 이동과 반복되는 연결이다.

또한 회령은 경제적 구조를 넘어 하나의 시간적 축을 보여준다. 과거에는 국경의 긴장 속에서, 현재에는 생존의 흐름 속에서, 그리고 미래에는 개방의 가능성 속에서 이 공간은 계속해서 다른 형태로 기능할 것이다. 특히 대외 경제 교류가 확대될 경우, 회령은 새로운 관문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관문으로서 재조명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새롭게 만들어질 공간이 아니라, 이미 작동하고 있는 구조가 제도와 연결되는 과정일 것이다.

결국 회령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의 도시가 아니다. 그것은 체제가 유지되는 방식이며, 생존이 조직되는 원리다. 계획이 멈춘 자리에서 흐름이 시작되고, 통제가 닿지 않는 지점에서 연결이 형성된다. 그리고 그 연결은 끊어지지 않는다.

회령은 물건이 머무는 곳이 아니다. 회령은 생존이 통과하는 곳이다. 그리고 그 통과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체제를 하루 더 연장하는 반복의 과정이다. 

회령시: 국경 교역 통제와 산업 잠재력 발현의 역설

김병욱 (NK개발연구소 소장)

1. 들어가며

함경북도 북단에 위치한 회령시는 두만강을 경계로 중국 지린성 룡징시 뺨허진과 마주한 국경 도시이다. 일반적으로 국경 도시는 인접 국가 지역과의 교역을 통해 해당 산업이 형성되며, 국가의 교역정책과 국경 관리 방식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수준이 좌우된다. 이러한 점에서 국경 도시의 발전은 단순한 산업 기반을 넘어 교역 구조와 연계속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

회령시는 북한주민들에게 “어머니 고향”으로 각인되어 있는 곳이다. 평양시의 만경대 고향집, 양강도의 백두산 고향집과 함께 회령시의 고향집은 이른바 ‘3대 혁명 성지’ 가운데 하나로 북한 당국이 내세우는 지역이기도 하다.

회령시의 이 같은 정치적 상징성과 함께, 국경 지역에 위치한 지리적 조건은 국경교역과 산업 활동의 결합을 통해 지역발전의 잠재적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령시는 지역 내 산업 발전상황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를 국경교역 통제의 구조적 문제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광복 전과 후 회령시에 형성된 주요 산업시설을 검토하고, 풍부한 산업 잠재력이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산업 발전이 제약되는 원인을 국경 교역통제의 구조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광복 전 주요 산업 기반의 형성

회령 지역의 산업 기반은 일제강점기 교통 인프라 구축과 함께 형성되었다. 일제는 만주 지역과 한반도 북부 지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하기 위해 철도와 도로 등 교통망을 확장하였으며, 이 지역을 대륙지역에 대한 자원 약탈과 침략을 위한 군수물자 수송이 결합된 전략적 공간으로 재편하였다.

이러한 사례로 먼저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초반에 걸쳐 건설된 길림-도문-회령을 연결하는 길회선 철도를 들 수 있다. 이 철도는 한반도와 중국 동북 지역을 직접 연결한 최초의 철도 노선으로, 당시 양 지역을 연결하는 핵심 축이자 사실상 유일한 연결 통로였다. 이를 통해 일제는 만주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광물 자원을 청진·나진 등 동해안 항구로 수송하였으며 만주 사변 이후에는 병력과 군수 물자의 신속한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군사적 교통망으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이중적 기능은 회령지역을 단순한 국경 통과 지점이 아니라 대륙지역에 대한 약탈과 침략의 물류 거점으로 전환시키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하였다.

일제의 한반도 북부에 대한 이러한 교통·군사 인프라 구축의 연장선에서, 회령지역 덕흥리 일대에 위치하였던 비행사 양성소와 훈련용 비행장을 들 수 있다. 해당 시설은 항공 전술 훈련을 목적으로 설치된 군사 기반이었으나, 인력과 시설의 집적을 통해 이 지역의 산업기반 조성에 기여하였다. 철도를 중심으로 형성된 물류·군사 네트워크에 항공 기반이 추가되면서 회령 지역 산업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었다.

이처럼 일제강점기에 구축된 철도와 비행장 등 교통·군사 인프라는 광복 후 회령시 산업 잠재력 형성의 기반이 되었다.

3. 광복 이후 산업시설의 확장과 잠재력의 축적

광복 이후 북한 정권이 수립되면서 회령시의 산업 구조는 새로운 정치·경제 체제 속에서 재편되었다. 회령시가 김정숙의 출생지라는 정치적 상징성을 지닌 지역으로 등장하면서, 당국의 정책적 관심과 자원 배분이 집중되었다. 이러한 조건은 지역 내 산업시설의 신축확장을 촉진하는 요인이기도 했다.

1970년대 들어 김정일 후계 체제가 형성되는 과정에 회령시에는 식료품 생산, 기계 가공품 생산을 중심으로 한 산업시설이 신축확장되었다. 대표적으로 회령곡산공장, 회령탄광기계공장, 회령크라프트지공장, 회령백살구가공공장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시설들은 군급에 지나지 않는 도시 규모에 비해 높은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산업시설들이 위치한 두만강 인근의 평지와 기존 교통망은 원료 조달과 제품 유통에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1) 회령곡산공장

회령시 새마을동에 위치한 회령곡산공장은 1954년에 조업하였다. 북한 당국은 건설 초기부터 이 공장을 회령시뿐 아니라 함경북도 지역의 식료품 수요를 일정 부분 담당하는 생산 거점으로 운영하고자 하였다. 초기 운영에서는 구소련의 기술적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일부 설비는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 보완·개선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0년대 이전까지 이 공장은 옥수수와 잎담배 등을 원료로 전분, 식용유, 물엿, 사탕, 과자 등 다양한 식료품을 생산하였으며, 술과 담배와 같은 기호품 생산도 함께 하였다. 특히 담배 생산 기능은 지역 주민 소비뿐 아니라 군수 물자 공급과도 연계되었다. 1991년 8월 김일성의 현지도 이후 담배 생산 기능이 확대되면서 공장 운영 체계가 조정되었고, 이후 회령식료연합회사로 개편되어 운영되었다.

이와 같은 생산 기능과 조직 개편은 회령곡산공장이 단순한 식료품 생산 단위를 넘어 지역 식료 산업 구조 내에서 일정한 공급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생산 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하였다.

2) 회령탄광기계공장

회령시 산업동에 위치한 회령탄광기계공장은 회령-청진 도로와 혜산-온성간 도로에 인접한 교통 요충지에 입지하고 있으며, 1960년대 초반에 건설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 부지면적 약 13.6만㎡, 건평 약 2.9만㎡ 규모의 1급 기업소로²⁾, 탄광 채굴과 운송에 필요한 다양한 기계설비와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공장은 형강 및 압연 설비를 기반으로 탄광 설비에 필요한 금속 소재와 부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전력 일부를 자체로 해결하는 등 생산 공정의 자립성을 일정 수준 확보하고 있다. 이를 통해 회령탄광기계공장은 북한 북부 지역 탄광 산업에 필요한 기계설비와 부품을 생산 보장하는 산업기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3) 1월 17일 공장(회령크라프트지공장)

회령시 강안동에 위치한 1월 17일 공장은 북한 북부 지역의 포장지 수요를

1) 한국산업은행, 『신북한의 산업(下)』(서울: 동양문화인쇄, 2005), 138쪽

2) 위의 책, 139쪽.

공급하는 대표적인 제지생산시설이다. 이 공장은 1978년 7월 착공되어 1980년 6월 조업을 시작하였으며, 건설 과정에서 중국산 제지 설비가 도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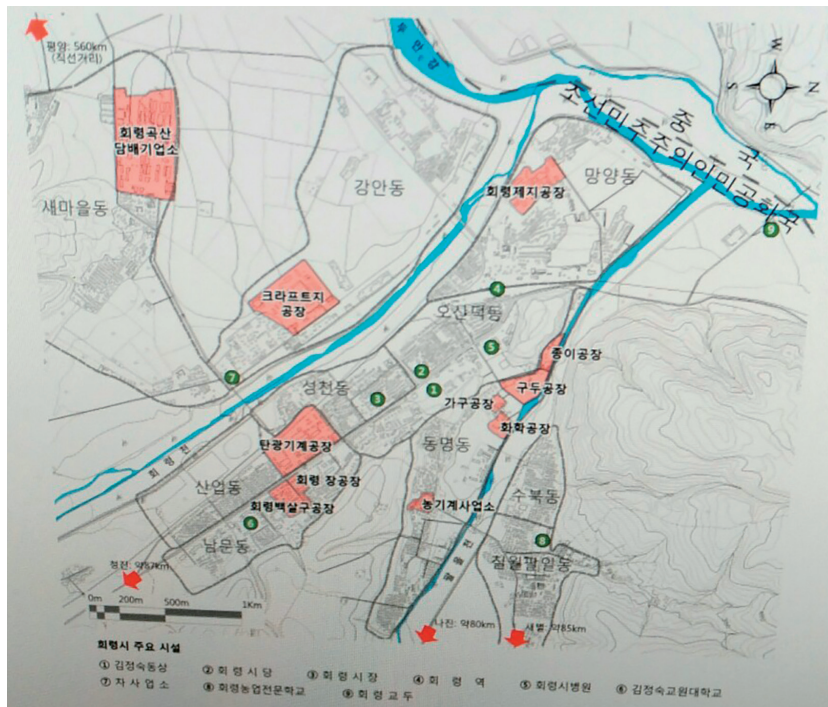
부지면적 약 35.5만㎡, 건축면적 약 4.8만㎡ 규모를 갖춘 이 공장은 연간 약 2만 톤의 크라프트 펄프와 2만 톤의 크라프트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³⁾ 펄프직장과 제지직장을 중심으로 생산 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자체 발전소와 변전소를 통해 전력 공급의 일부를 보장하고 있다.

1980년대 말까지 해당 공장은 제2경제위원회 산하였으나⁴⁾, 이후 망양동에 있는 회령제지공장과 통합되면서 종이연합기업소 체계로 개편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회령백살구가공공장

회령 지역은 북한에서 천연기념물 제439호로 알려진 백살구의 원산지로서, 생산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백살구를 원료로 하는 회령백살구가공공장이 남문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1960년대에 조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장은 밀봉기와 보일러 등 약 270여 대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 공장에서는 백살구 통조림, 백살구 가공식품, 백살구 술 등 다양한 가공 제품이 생산되고 있다. 백살구로 만든 단묵(양갱), 백살구술 등 일부 제품은 지역 특산물로 대외 시장에도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공



지역 특산물로 대외 시장에도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공

장 현대화 및 재건 공사가 진행되면서 생산 설비가 개선되었다. 2023년 들어 원료 투입부터 제품 완성까지 흐름식 생산 체계를 갖춘 현대화된 가공 설비가 구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

4. 국경교역 통제와 산업 잠재력 발현의 제약

회령시는 인구 약 15만 명 규모의 중소 도시지만, 식료품 생산과 탄광기계 생산 등에서 함경북도의 수요를 일정 부분 담당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김일성 집권기 시작된 지방공업 육성정책이 김정일 집권기 계승되어오고, 김정은 집권 이후 ‘20×10 지방발전 정책’으로 강도 높게 추진되고 있음에도, 이 지역의 산업 발전은 다른 국경 도시에 비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그 원인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북한 당국의 강력한 국경 통제이다. 회령시는 두만강 중상류에 위치하며 하천 폭이 비교적 좁아 탈북과 비공식 교역이 빈번하게 발생해 온 지역이다. 이를 막기 위해, 1991년 7월 회령시로 승격되면서⁶⁾ 평양시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과 같은 형식으로 타 지역 주민이 회령시를 방문하려면 여행증에 출입승인번호가 있어야 하는 등 주민 이동이 통제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통제 구조는 국경 지역 간 인적 이동과 거래 활동을 제약하여 교역 네트워크 형성을 어렵게 하는 제도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내륙과 국경을 연결하는 교통·물류 인프라의 상대적 취약성이다. 회령시는 평양과 직접 연결하는 간선 철도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 국경도시인 신의주시와 혜산시가 각각 평양-신의주선과 평양-혜산선을 통해 안정적인 수송망을 형성하고 있는 것과 달리, 회령시는 평양-온성선 및 갈마-나진선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교통 인프라의 차이는 국경 교역을 통한 물자 이동, 나아가 지역산업 발전을 제약하는 공간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셋째, 국경 맞은편 중국 지역과의 경제적 상호보완성 부족이다. 신의주시와 국경을 접경하고 있는 단둥시는 북중 교역의 핵심 물류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혜산시의 맞은편 국경지역인 장백시 또한 국경교역을 일정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다. 반면 회령시와 접한 중국의 쑤허 지역은 농업 및 소규모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 구조여서 두 지역 간에는 산업적 상호보완성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3) 한국산업은행, 『신북한의 산업(下)』(서울: 동양문화인쇄, 2005), 228-229쪽

4) “회령 1월 17일 공장은 어떤 곳” 『NK chosun』, 2005년 1월 17일.

5) “함북 회령시, 백살구가공공장 리모델링 마무리 단계” 『SPN』, 2023년 11월 23일.

6) 신영석, 『조선향토대백과』, 평화문제연구소, 2003, 225쪽.

이상에서 본 것처럼 국경지역이라도 하여도 이를 둘러싼 제도적·공간적·경제적 구조에 의해 지역의 산업발전이 제약될 수 있다.

북한 주요 국경 도시 교역 관계 비교

구분	회령 - 싼허	신의주 - 단둥	혜산 - 장백
국경 관리	국경 통제가 강하게 적용되어 인적 이동과 교역 활동이 제한됨	북중 교역의 핵심 통로로 통관 및 관리 체계 안정적으로 운영됨	국경 통제가 강하지만, 지역 단위의 교역 활동은 일정 수준 유지됨
교통·물류 기반	내륙 철도망에 대한 간접 의존도가 높아 물류 이동의 효율성이 낮음	철도와 육로를 중심으로 대규모 물류 이동이 가능	철도와 육로를 통해 중간 규모 물류 이동이 가능
경제적 상호보완성	공업과 농업·서비스 간 연계로 인해 상호보완성이 낮음	경공업과 대규모 상업·물류 기능이 결합되어 상호보완성이 높음	자원 산업과 관광 기능이 결합되어 상호보완성을 유지
교역 네트워크	소규모 비공식 교역 중심으로 제한적 네트워크가 형성됨	상품 및 원자재가 대규모로 이동하는 공식 교역 네트워크 형성	지역 상인을 중심으로 한 중간 규모 교역 네트워크가 유지됨

5. 나오며

회령시의 기본적인 산업시설 형성에는 광복 전 구축된 철도 및 교통 기반이 적지 몃을 차지하고 있다. 광복 이후에는 이러한 산업기반을 활용하는 가운데, 북한 정권의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면서 회령시는 군급 도시라는 행정적 규모에도 도급 수준의 산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령시의 산업은 북한의 다른 국경도시들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북한 당국이 추진한 국경교역 정책의 결과이다.

오늘날 회령시의 지역 경제 상황은 국경 도시의 산업 발전이 생산 기반의 존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생산 활동이 교역 및 물류 네트워크와 결합되고 제도적 안정성과 경제적 상호보완성이 함께 작동할 때 지역 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회령(會寧), 경계에 갇힌 숨결인가 대륙으로 향한 맥박인가

두만강이 품은 동북아의 지정학적 모순과 회령의 미래

전병길 (에스이노베이션컨설팅 대표)

1. 프롤로그: 지금 이 순간, 두만강 가에 서다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 도문시(圖們市)의 두만강 공원. 그곳에 서면 강 건너 북한 남양(南陽)의 풍경이 손에 잡힐 듯 펼쳐진다. 두만강의 이곳 강폭은 넓지 않다. 그러나 이 짧은 물길은 지난70여 년간 세계에서 가장 견고한 이념의 장벽이었다.

강 너머 남양역에서 회령(會寧)으로 이어지는 철길이 보인다. 녹슨 궤도지만 그것은 단순한 고철이 아니다. 청진·나진의 항구 에너지를 흡수해 대륙으로 실어 나르려 했던 꿈의 흔적이다. 회령은 그 꿈의 한가운데 서 있다.

두만강 상류, 회령과 맞닿은 국경 지대는 탈북의 역사적 거점이었다. 한반도 북동부의 심장인 청진에서 출발해 회령을 거쳐 남양에 이르는 이 동선은, 단순한 지리적 경로가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생존과 탈출, 수탈과 교역의 서사가 겹겹이 쌓인 역사의 축이다. 그렇다면 회령은 무엇인가. 경계인가, 통로인가. 감옥인가, 문턱인가.

2. 닫힘과 열림의DNA: 방패에서 교역의 문으로

회령의 지정학적 운명은 조선의 세종이 결정했다. 15세기 초, 김종서 장군은 여진족의 거듭된 위협을 물리치고 두만강 유역에 6진(六鎭)을 구축했다. 그 핵

심 거점이 바로 회령이었다. '모여서 편안해진다'는 뜻을 가진 이름처럼, 회령은 북방의 기세를 다스리는 방패로 태어났다.

그러나 조선은 회령을 닫힌 성벽으로만 두지 않았다. 세종 시기 열린 '회령 개시(會寧 開市)'는 이 도시가 가진 교류의 DNA를 보여준다. 여진족과의 공식 무역이 성사된 이 시장에서 소금·포목·무기가 오갔다. 이 길은 오늘날 북중(北中) 무역의 원형이며, 회령이 태생적으로 '국경의 변두리'가 아닌 '대륙과 반도를 잇는 통로'로 설계됐음을 증명한다.

방패와 통로라는 두 가지 DNA는 이후 수백 년 동안 충돌하고 교차하며 회령의 역사를 빚어왔다. 그리고 그 긴장은 오늘날에도 해소되지 않은 채 이 도시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다.

3. 철길이 새긴 수탈과 병참의 낙안: 일제의 아욕



〈간평역 인근에서 본 함북선 철로의 모습〉

20세기 초, 일제는 대륙 침략을 위한 병참선 구축의 일환으로 회령을 재발견했다. 1930년대 남양-도문 철교가 완공되면서 회령은 동북아시아 물류의 동맥으로 급부상했다. 함북선 철도를 통해 만주의 자원이 청진항으로, 청진에서 일본 본토로 흘러나갔다. 회령 인근 고무산과 아오지의 탄전은 이 거대한 수탈 기계의 핵심 연료였다.

이 철길은 우리 민족에게 이중의 의미였다.

한편으로는 '대양으로 나가는 문턱'이라는 지정학적 가능성의 증명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강제 동원과 자원 수탈의 경로였다. 해방 후 분단으로 이 철길이 끊겼을 때, 회령은 가능성과 상처를 동시에 안고 침묵 속에 갇혔다. 도문 공원에서 바라보이는 녹슨 궤도는 그 침묵의 물리적 증거다.

4. 어둠의 심연: 22호 관리소와 지하교회의 절규

회령의 지정학적 고립성은 현대사에 들어와 가장 잔혹한 통제의 도구가 되었다. '회령 22호 관리소'. 한때 여의도 면적의 수십 배에 달했던 이 정치범 수용소는, 2012년 위성 사진과 탈북민 증언을 통해 폐쇄된 것으로 확인되기 전까지 인간 존엄이 말살되는 지정학적 블랙홀이었다.

회령 일대 두만강 국경 지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신이 보낸 사람>(2014)은

이 공간의 이면을 증언한다. 지하교회 교인이었다는 이유로 수용소에 끌려가 아내를 잃은 남자가, 2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 마을 성도들의 탈북을 이끄는 이야기다. 이 작품은 회령과 같은 두만강 국경 도시가 단순한 경제적 교차로가 아님을 웅변한다. 철길이 대륙으로 향하는 희망의 선이었다면, 수용소의 철조망은 생명이 지워지는 절망의 벽이었다.

아이러니는 여기서 극대화된다. 철조망 몇 킬로미터 밖에서 위안화와 북한 원이 오가는 장마당이 열리고, 중국산 생필품이 함경북도 곳곳으로 스며들었다. 가장 철저한 감시와 가장 활발한 비공식 경제가 회령이라는 한 공간에 공존했다. 이 모순이 회령의 본질이다.

5. 통계로 읽는 현재: 경제와 통제의 역설

현재 회령-도문 루트는 북중 무역의 5대 관문 중 하나다. 2020년 팬데믹 이전까지 이 경로를 통한 물동량은 북한 전체 대중(對中) 무역의 10~15%를 차지했던 것으로 추산된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생필품이 함경북도 장마당으로 유입되는 가장 중요한 혈관이었다.

그러나 경제적 교류가 활발해질수록 통제는 더 정교해졌다. 201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은 국경 전역에 고압선과 감시 카메라를 대폭 확충했다. 탈북민 수는 2010년대 초반 연간 2,000명대에서 최근 수십 명 단위로 급감했다. 두만강의 물리적 거리는 기술적 통제에 의해 이제 심리적으로는 수천 킬로미터의 절벽이 됐다.

이것이 북한 국경 관리의 핵심 논리다. 물자는 통제된 채널로 들어오되, 사람은 나가지 못한다. 경제적 반개방과 정치적 완전 폐쇄가 동시에 관철되는 이 구조 속에서 회령은 가장 첨예한 모순의 현장이 된다.



〈회령 세관 전경〉

6. 세 가지 얼굴의 충돌: 허브, 요새, 그리고 탈출구

우리가 마주하는 회령은 세 가지 지정학적 힘이 충돌하는 장(場)이다.

첫째, 물류의 허브. 청진-회령-남양-도문으로 이어지는 이 동선은 한반도 북동부의 항구 에너지를 대륙으로 연결하는 전략적 삼각형의 척추다.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온전히 가동된다면, 회령은 그 가장 핵심적인 내륙 거점이 된다.

둘째, 통제의 요새. 22호 관리소의 기억과 국경 봉쇄의 최전선. 평양 정권에 게 회령은 수도로부터 가장 멀고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변방이자,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철저히 감시해야 하는 지점이다.

셋째, 생존의 통로. 두만강 국경을 사이에 둔 밀무역과 탈북의 서사.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넌 이들이 마주한 것은 단순한 강물이 아니라 이 거대한 지정학적 모순의 파도였다.

세 힘은 서로를 억압하고 또 서로를 필요로 한다. 물자가 들어와야 체제 유지 자금이 흐르고, 통제가 있어야 탈출 욕구가 생기며, 탈출 욕구가 있어야 비공식 경제가 돌아간다. 회령은 체제의 방어기제와 민초들의 생존 본능이 가장 뜨겁게 맞부딪히는 용광로다.

7. 에필로그: 철길은 준비됐다, 우리는 준비됐는가

회령의 미래는 이 도시를 다시 '문(門)'으로 정의하느냐, '벽(壁)'으로 남겨두느냐에 달려 있다. 한반도의 긴장이 해소되고 동북아 경제 통합이 가시화된다면, 회령은 세종이 꿈꿨던 교류의 심장으로 돌아올 것이다. 청진의 항만 에너지가 회령의 철길을 타고 도문을 거쳐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연결되는 순간, 회령은 유라시아의 첫 번째 정거장이 된다.

그때가 되면 두만강은 더 이상 비극의 강이 아니라 상생과 번영을 잇는 가장 짧고 아름다운 가교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도문 공원에서 바라본 남양역의 철길은 지금도 녹슬어 있다. 그 낡은 궤적 안에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연결의 가치가 잠들어 있다. 과거 김중서가 영토의 끝을 지켰듯, 이제 우리는 회령을 통해 대륙으로 향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한다. 그 길을 열 의지와 구상이 있는가. 두만강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바로 그것이다. 

전거리 교화소에서 만난 하나님

함경북도 회령시에 위치한 전거리 교화소는 많은 강제복송 피해자들이 수감되었던, 희생과 아픔이 어려있는 눈물의 장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그 고통스러운 장소에서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이 글에서는 그 동안 본 선교회 발행 “월간 북한개발소식”에 소개되었던 전거리 교화소 수감 경험을 발췌하여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 나는 중국으로 도망갔어요. 거기 살고 있는 친척들을 찾았지요. 그러나 그들은 이미 떠난 뒤였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찾을 수 있는 교회 한 곳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음식과 거처를 제공받았고, 함께 성경공부도 받았다. 해우 할머니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했다. … 할머니는 남한으로 도망치기 전에 체포되었다. 같은 안전가옥에 머물던 두 명의 탈북자가 술집에 가서 술에 취한 후에 중국 경찰에게 붙잡혔다. 그들은 중국 경찰에 안전가옥의 주소를 말했고, 경찰이 왔을 때 안전가옥에는 해우 할머니만이 탈북자로 있었다. 그들 세 사람은 모두 북한 당국으로 넘겨졌다.

“나는 운이 좋았어요.” 해우 할머니는 말한다. “감옥에서 열 달을 있는 후에, 몇 년간의 강제노동수용소형(전거리 교화소 수감)을 받았어요. 나의 기독교 신앙이 발각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감옥에서 거의 죽을 뻔했어요.

… 하루는 큰 트럭이 와서 해우 할머니와 다른 수감자들을 태우고 산으로 데려갔다. 그 노동수용소(전거리교화소)에 도착하자 거대한 울타리가 보였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탈출하면 죽인다”

간수들은 해우 할머니를 50명의 다른 여자들과 같이 쓰는 막사로 데리고 갔다. 침대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매일 다음과 같은 단조로운 일과가 반복되었다고 할머니는 설명한다:

- 5.00 am - 기상
- 5.30 am - 막사 내 점호. “우리는 점호가 끝날 때까지 줄을 서서 머리를

숙이고 있었어요. 점호 후에 잠깐 세수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 06.00 am - 아침식사. “우리는 다시 줄을 서서 천천히 움직여 식사가 배급되는 곳으로 갔어요. 시간이 오래 걸렸지요. 식사는 작은 옥수수밥 한 컵이 전부였어요. 아마 다 합쳐서 두세 숟가락 정도였지요”
- 08.00 am - “수용소 밖으로 나가서 농사일을 해야 했어요. 점심시간까지 휴식시간이 없었지요. 죄수들은 쉴 권리가 없어요.”
- 12.00 am - “수용소까지 가서 점심을 먹고 다시 밭으로 돌아와요. 점심도 아침과 저녁과 똑같이 시켜면 옥수수밥 한 컵이에요.”
- 02.00 pm - 노동.
- 06.00 pm - 수용소에서 자아비판 시간. “우리는 그날 잘못된 일에 대해서로 비판하고 자기를 비판해야 했습니다. 그 후에 저녁식사를 해요.”
- 08.00 pm - 사상교육. “하루 중 가장 힘든 시간이에요. 우리는 배고프고 지쳐있으니 눈이 감기죠. 그러나 깨어서 집중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아요.”
- 09.30 pm - 점호.
- 10.00 pm - 취침.

수용소에 있는 동안 최악의 사건이 무엇이었는지 물으니,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말할 수가 없네요. 매일이 고문과 같았어요. 나는 자주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재앙들을 생각했어요. 그 수용소에 있는 것은 열 가지 재앙을 동시에 겪는 것과 같이 느껴졌어요. 사람들은 죽어가고 시체는 불태워졌어요. 간수들은 그 시체의 재를 길에 뿌렸어요. 우리는 매일 그 길을 다녔죠. 매번 나는 ‘언젠가는 다른 죄수들이 나도 밟고 다니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강력한 말을 했다.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믿음을 지켰어요. 이걸 기록해 주세요. 나는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살아남도록 도우셨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우셨어요. 때때로 나는 그 적은 내 밥을 다른 사람에게 덜어 주었어요. 사람들이 아프면, 그들에게 가서 빨래를 대신 해주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다른 죄수들을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솔직히,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겁이 났어요. 죽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한테 다른 죄수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하라고 요구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다 제가 잡히면 죽을 텐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강권하셨어요. 내게 어떤 죄수에게 다가가야 할지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저 사람이다. 그에게 말하라’는 느낌을 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에게 가서 사도행전 16:3 말씀을

전하지요. 예수를 믿어야 하고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요. 그 말씀은 하루하루를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가는 죄수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내가 말한 것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덕분이에요.”

그래서 비밀 그리스도인 모임이 생겨났다. “나는 그들에게 내가 아는 것을 가르치려고 애썼어요. 많은 내용은 아니었지요. 읽어줄 성경도 없었으니까요. 나는 그저 내가 아는 것과 내가 기억하는 성경 구절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주일과 성탄절에는 비밀장소에 모이곤 했어요. 화장실 같은 장소지요. 거기서 짧은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찬송가를 가르치고 우리는 함께 작은 소리로 불렀어요. 우리 다섯 명 모두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보았기 때문이지요. 비밀 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걸리지 않았어요.”

딱 한 번, 풀려나기 직전에, 해우 할머니는 거의 잡힐 뻔했다. “내가 혼자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혼자라서 조용히 찬송을 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찬송소리가 점점 커진 거예요. 근처에 있던 간수가 내 찬송소리를 듣고는 나를 불러들였어요. 그는 매우 화가 나 있었어요. ‘무슨 노래를 한 거야?’ 그는 계속 물었어요. 나는 평범한 북한 노래라고 말했어요. 그는 뭔가 다른 걸 들었다고 말했어요. 나는 ‘잘못 들으셨겠지요’라고 대답했어요. ‘나는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요.’라고 말했더니 그는 나를 놔주면서 하루 동안 음식배급을 못 받는 벌만 주었어요. 그래도 그가 여전히 의심스러워하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어요. 그는 내 눈에 뭘 때마다 의도적으로 주시했어요. 나는 겁이 나서 하나님에게 그 간수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했어요. 열흘 후에, 나는 그 간수가 막사에서 뛰쳐나가 토하는 것을 봤어요. 나중에 그가 두 달간 병원에 다니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나를 감시할 수 없게 되었지요. 그리고 며칠 후에 나는 풀려났습니다.” (해우 할머니, 북한개발소식 2016년 3월호)

● 드르르르 드르르르...

육중한 크기의 무시무시한 전거리 교화소의 커다란 철문 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 그 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는 북한 공민 자격을 박탈당하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교화소에서 들어가자마자 나의 머리를 뺄뻑 깎였고, 누더기를 기어 붙인 짝짝이 옷을 입어야 했다. 그리고 수감 생활 3년 내내 이름이 아닌 죄수 번호로 불리게 되었다. 이곳에서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존엄성과 존중을 기대할 수 없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교화소 생활은 두려움과 긴장의 연속이었다. 화장실에 갈 때나 일을 할 때나

총구가 우리를 겨누고 있었다. 하루는 교화소 길옆에 산이 세 개나 있는 것을 보고 여기는 눈도 안 오는데 무슨 산이 저렇게 있는지 궁금해 물었다. 그랬더니 그것이 뼈 산이라고 했다. 사람들이 죽어서 뼈가 쌓여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믿어지지 않아서 가까이 가보니 정말 사람의 굵은 뼈들이 쌓여 있었다. 어떤 사람들의 뼈인지 물으니 이곳 전거리 교화소에서 죽으면 이렇게 된다고, 너도 죽으면 여기에 오게 된다는 소리를 들었다. 너무 무섭고 낙심이 되었다. 내가 죽으면 땅에도 묻히지 못하고 여기 이 산이 되겠구나.... 태어나서 이리 살다 죽는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숨이 나왔다.

교화소 생활은 참으로 열악했다. 돌이 섞여 있는 강냉이밥 한 주먹과 썩은 양배춧국 같은 것이 우리의 한 끼 식사였다. 음식은 소금 간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는데, 소금을 먹으면 다리에 힘이 생겨서 도망을 가기 때문이라고 했다. 너무 배고프고 먹을 것이 없다 보니 수감자들은 일하러 갔다가 산에서 솔잎을 뜯어오기 시작했다. 그 솔잎을 손에 비비고 돌에 찌어서 가루로 만들어서 밥에 넣어서 먹었다. 조금이라도 먹는 양을 늘리려는 교육지책이었지만 소화가 잘 안되다 보니 변비에 시달렸다. 교화소 수감자들 너도나도 변비가 와서 제대로 화장실에 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고, 고통스러워하는 서로를 위해 서로의 대변을 나무 꼬챙이로 파주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또 치질로 고생까나 하기도 했다.

먹는 것만 문제가 아니었다. 제대로 된 의료 조치를 기대할 수 없다 보니 몸이 아파도 약을 쓰지 못하고 맨몸으로 버텨야 했다. 찌는 듯한 무더운 여름 날씨 탓에 열사병이 창궐해도 그것에 맞설 방법이나 약이 없었다. 다들 열병으로 고생하고 허약(영양실조)¹⁾이 와서 고생을 하는데 나는 걸리지 않아 약종이란 소리를 듣기도 했다. 그렇지만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출소 만기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나는 그만 건강이 악화되어 허약에 걸려버리고 말았다. 순식간에 몸무게가 27kg까지 줄어들었다. 몸에 힘이 없어서 걷지도 못하고 기어다녀야 했다. 허약자 옷을 털고 소독한다고 벗으라고 해서 옷을 터는데 옷에서 쌀알만 한 이가 툭툭 떨어져 나왔다. 옷에서뿐 아니라 몸에서도 살이 곰보처럼 울퉁불퉁해지고 쌀알만 한 이들이 튀어나오는 것이 보였다. 죽을 때가 되면 사람 몸에서 벌레가 나온다고 하던데 내 몸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었다. 내가 죽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다.

그때 같이 수감생활을 하던 한 언니가 내게 말을 걸었다. “한나야 너 살고 싶

니?” “언니, 살고 싶어.... 내일모레가 출소인데 살고 싶어.”라고 했더니 언니가 따라오라고 했다. 따라가 보니 그곳은 죽은 사람들을 두는 사체실이었다. 사체실 앞에는 나처럼 허약에 걸린 사람 7명이 앉아 있었다. 저기 앉아서 무얼 하나 봤더니 사체실에서 나오는 구더기를 잡아서 먹는 것이 아니겠는가. 언니는 내게 살고 싶으면 구더기를 먹으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도저히 먹지 못했다. 그런데 구더기를 먹은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허약이 퇴치되었다. 제대로 된 음식을 섭취할 수 없는 교화소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고단백 음식물이 바로 구더기였던 것이다. 내가 도저히 그 구더기를 먹지 못하고 여전히 허약으로 힘들어하자, 다음 날 보안원이 나를 산으로 끌고 가서 뱀을 잡아 껍질을 벗기고 토막내어서 구어 먹이기도 했다. 아무리 인간 취급 못 받는 죄수라도 교화소 안에서 죽으면, 이를 처리하는 일이 번거로운 모양이었다.

뱀 고기도 먹었지만, 몸은 여전히 좋아지지 않았고, 나는 감방에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렸다. 감방 천장을 쳐다보고 있으니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참으로 고생스럽고 한스러운 인생이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 한 어머니 아버지가 원망스러웠다. ‘나를 왜 이 세상에 낳았는지.... 이렇게 고통스러운 곳에 놔둘 바에는 차라리 낳지를 말지. 내가 잘못 한 것도 아닌데 그저 배가 고파서 중국에 갔다 왔을 뿐인데 왜 세상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나는 모든 일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저 원망스럽기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환기를 시키기 위해 문을 살짝 열었는데 날이 매우 좋았다. 맑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나는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저렇게 맑은 하늘에 신이 있다던데, 정말 신이라는 존재가 있을까?” 그리고 신이 정말 있다면 나를 좀 살려달라고 기도했다. (지한나 전도사, 북한개발소식 2024년 2월호)

● 교화소에서는 매일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침 점검을 하고 세면을 했다. 아침 식사를 먹고 밖에 일하러 나갔다.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더운 여름에도 나가서 일했다. 아마 남한이었으면 그런 타는 듯한 날에는 쉬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찝소리 못하는 죄인이었다.

죄수들이 이동할 때는 정규 부대처럼 정확하게 대열을 맞추어야 했다. 팔도 다 같이 각도를 맞추어서 흔들었다. 그때는 내가 그나마 젊은 축에 속해서 웬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50대부터 70대 여자들은 일을 할 때 너무 고돼 보였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항상 불쌍하고 슬픈 마음이 들었다. 나이가 조금이라도 젊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 그나마 수월했다는 마음이 들었다. 별것이 참 다행이고 감사했다.

1) 북한 교화소에서는 허약도를 측정하는데, 바지를 벗겨 놓고 엉치사이의 넓이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엉치가 약간 벌어지면 허약 1도, 엉치넓이가 주먹을 세운 것이 들어 갈 정도이면 허약 2도, 넓은 주먹이 들어 갈 정도이면 허약 3도이다. 허약 3도의 경우 생존 확률이 희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배가 고픈 건 사람뿐만이 아니라 함께 동거했던 빈대, 이, 바퀴벌레도 마찬가지였나보다. 이곳의 바퀴벌레는 어찌나 억센지 사람의 살점까지 뜯어먹었다. 뜯긴 곳이 가려워서 긁으면 피가 났다. 또한 이가 하도 많아서 옷을 들치면 이가 보였다. 출근 전에 대기 정렬을 하고 있을 때 “언니야, 여기 장난 아니다” 하면서 서로의 이를 잡아주었다.

교화소에서 가장 힘든 일을 꼽으라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작업은 똥을 가득 실은 구루마를 끌고 얼음장 같은 냇물을 건너는 일이었다. 차가운 강물을 두 번 건너야 우리가 작업하는 감자밭이 나오는데, 그 감자밭까지 인분 가득한 구루마를 옮겨야 했다. 겨울에는 똥이 얼어있으므로 각자 커다란 천 가방으로 운반했지만 봄에는 똥이 녹으므로 구루마로 한꺼번에 옮긴다. 바지를 허벅지까지 걷어 올리고 열 명 남짓이서 1톤가량 되는 무게의 구루마를 끄는데, 돌바닥에 발이 계속 걸리고 구루마가 너무 무겁다보니 발도 다치고 서로 고통치며 짜증을 내면서 억지로 옮겼다. 중간의 냇물도 통과해야 해서 몸이 훌쩍 젖었다. 오래된 죄수들은 저기 언덕 위에 앉아서 신입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며 길길대고 웃으면서 구경만 했다.

구루마를 옮기고 나면 부식이 주어졌다. 줄을 서서 부식을 받으면 동그랗게 앉아서 체면도 없이 허겁지겁 먹어 치웠다. 배고픔 앞에 사회적 가면도 인격도 내려놓았다. 어느 날은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얼른 부식을 받으려고 줄을 섰는데 기존에 있었던 부대원들이 내 팔을 ‘탁’ 치면서 “아, 재수 없어. 뒤로 가.”라며 텃세를 부렸다. 순간 화가 나서 따지려고 했으나 감옥에서 나이보다는 누가 먼저 들어왔냐가 중요했다. 신입들은 기존 죄수들 앞에 서면 안 되었고, 고참 죄수들 눈 밖에 나면 생활이 피곤했다. 그래서 억울했지만, 맨 뒤에 줄을 서서 부식을 받아먹었다. 비록 낱알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막연하고 한심한 풀죽이었으나 그 먹는 순간이 그렇게 행복했다. 한 숟갈 한 숟갈 입으로 가져갈 때마다 죽이 비워지는 것이 그렇게 아까웠다.

... 어느 겨울날이었다. 눈이 무릎만큼 차올라 제대로 걷기도 힘든 날이었다. 교화소 근처 수림에는 아름드리나무가 많았고, 죄수들은 지시에 따라 얼음판과 눈길을 헤쳐 수림까지 걸어갔다. 아름드리나무들은 어찌나 컸던지 몸통을 두 사람이 안으면 손끝이 겨우 닿을 정도였다. 남자 죄수들이 그 큰 나무를 톱질하여 자르면 여자 죄수들은 다 자른 것을 산 밑까지 운반하는 것이 일이었다. 건조하고 수분기가 없는 겨울에 나무를 톱질하여 불을 때는 데에 쓰는 모양이었다. 여자 죄수들은 돌씩 짝을 지어 내리막길에서는 그 껍질을 도끼로 벗겨서 매끄럽게 내려가도록 두고, 오르막길은 끈으로 이어서 끌고 올라갔다. 무거운 나무를 끌고 오르막을 오르는 일도 쉽지 않았지만, 내리막길에는 특히 조

심해야 하는데 나무가 내려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므로 아주 전속력으로 뛰어가지 않으면 다치기 십상이었기 때문이다.

하루는 평소처럼 내리막길에서 나무를 굴러놓고 그 앞을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 신었던 겨울 신이 하필이면 밑창이 다 헐어서 매끄러워져 있었고, 얼마 못 가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지고 말았다. 그때 내 뒤에서 굴러오던 통나무가 중간에 봉 뜨더니 주저앉아있던 내 위로 다시 쿵 하고 떨어졌고, 나는 허리를 크게 다치게 되었다. 같이 한 팀이었던 어린 여자 죄수가 깜짝 놀라 내 허리를 정신없이 주물렀는데 오히려 그게 역효과를 냈는지 순간 깜빡 통증에 의식을 잃기도 했다. 추운 설산에서 가만히 있다가는 꿈쩍없이 죽겠다 싶어 이를 악물고 온 힘을 다해 걸어 내려왔다. 그 이후 보름은 꿈쩍없이 누워 있었다. 떨어지는 아름드리나무를 온몸으로 받은 격이니 몸이 회복되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감방에는 겨울철이라 그런지 나 말고도 몇 명이 다쳐서 누워있거나 앉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내 앞에 다른 죄수가 자리를 잡았다. 이번에 새로 신입으로 들어온 루디아(가명)라는 죄수였다. 이 죄수가 담요를 뒤집어쓰고 그 안에서 부르르 부르르 떠는 것이 보였다. 나는 갑자기 큰 충격과 신비로운 감정에 빠졌다. 중국에서 교회 생활을 했던 나는 이 사람이 담요를 뒤집어쓰고 방언으로 기도 중이라는 것을 금세 알아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험악한 감방 한가운데에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와, 이런 감옥에서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네.’하고 깜짝 놀랐다. 그것이 나와 루디아 선생님과의 첫 대면이었다.

해가 바뀌고 설날이 되었다. 감방에서 설날이면 죄수들끼리 서로 포옹하면서 인사하는 문화가 있었다. 평상시에는 등을 돌리고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서로 눈을 마주치고 꼭 인사를 하였다. 언제 살아 나가는지 혹은 언제 죽는지 기약이 없는 그곳에서 서로 동병상련의 처지를 다독였다. “우리 꼭 살아 나가자. 이겨내자!”라고 하며 그날만큼은 미워도 밉지 않았다.

그 와중에 나는 루디아 선생님에게 처음으로 다가갔다. 그분은 새삼스러운 웃음으로 나에게 인사를 하였다. 나는 그분 귀에 바짝 대고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속삭였다. 선생님은 토끼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네가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지?’ 하는 눈빛이었다. 나는 그 분께 어느 날 담요 밑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들었다고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느낄 수 있는 영적 호흡인 것 같다고 말했다. “주기도문 아는가?” “안다.” “사도신경 아는가?” “안다.” 이렇게 짧은 대화를 마치고 우리는 서로의 두 손을 꼭 붙들고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었다.

루디아와 친해지면서 좀 더 자세한 인생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루디아는 내가 탈북하기 훨씬 전에 자녀들을 데리고 탈북을 하여 중국에 정착하고 신앙생활을 했다. 중국으로 건너오는 탈북자들을 엄마처럼 안아주면서 교회 활동을 열심히 했다. 보석을 이어서 십자가를 만들어 팔기도 했고, 천을 사서 밤새 성극용 의상을 손수 만들기도 했다. 성극 안무나 대사도 직접 짜서 지역 교회를 돌아다니며 순회공연도 했다. 순회공연을 하려고 지역 이동을 할 때, 길에 곳곳에 위치한 검문소와 공안의 감시를 피해 기적적으로 안전하게 이동했다는 간증이 귀했다. 나중에는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라는 권유도 받을 만큼 안팎으로 신뢰받는 성도였다. 이처럼 중국 땅에서 탈북자와 고향 땅을 품으며 열심히 주님을 예배했다. 그러던 어느 날, 루디아는 성경 공부 모임 도중에 공안에 잡히게 되어 복송되었다.

선생님과 나는 서로의 손을 잡고 이 열악한 곳에서 잘 견뎌내고 이겨내자고 말하며 격려했다. 이후로도 교제하며 서로에게 힘과 응원이 되어주었다. 이렇게 지옥 끝에 있는 것만 같은 감옥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신앙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동역자를 주심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했다.

하지만 루디아의 친절과 인품이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은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시기하거나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루디아가 중국 감옥에서부터 딸처럼 챙겨주던 젊은 처자는 어느 순간부터 루디아에게 아는 체를 하지 않았다. 이유도 없이 아예 등을 돌리고 말도 섞지 않았다.

하루는 아침에 사람들이 수군대는 소리에 잠이 깼다. “내가 들었으니까 봐라. 지금 루디아 무슨 말 하나 보라.” 하면서 반대편의 루디아를 가리키며 말했다. 루디아가 저쪽 벽에 기대서 어떤 자매에게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도 속닥속닥 열심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다. 귀를 기울이니 예수님이라는 단어도 들리고 시내 산이라는 단어도 들렸다. 감방 사람들은 생전 예수님이니 시내 산이니, 또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보지 않았기에 무슨 말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몇몇 죄수는 루디아가 요즘 수상한 말을 하고 있다며 이상하게 생각했다. 나는 루디아가 위험해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섰다.

나중에 조용히 내가 루디아에게 가서 주의를 주었다. “그만하라우. 목숨이 두 개인 줄 아느냐? 왜 그걸 밖으로 표현을 하느냐.” 조용히 속으로 기도만 하면 될 일이지 굳이 밖으로 표현하고 전도해서 괜한 위험을 초래하냐며 속상한 마음에 화도 내었다. 교화소 내에는 삼인일체 시스템이 있어서 죄수 세 명을 그룹으로 지어 서로를 감시하도록 했다. 당국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네 삼인일체가 누구야.”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었다. 항상 그렇게 감시받는 곳이 바로 교화소인데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루디아의 행동은 정말 위험한 것이었다. 그

이후에도 사람들이 루디아를 놓고 쑥덕거릴 때마다 괜스레 내 가슴이 철렁하였다. 그렇지만 루디아는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

언제 한 번은 루디아와 함께 출소하면 무엇을 할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나는 루디아에게 이제 몇 개월이면 출소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출소 되면 나가서 같이 중국에 가자는 말을 했다. 조국이라고 품에 안겼는데 나를 이렇게 철창 속에 처넣은 이곳을 나는 꼭 떠날 것이라고 한탄 섞인 꾸념도 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보통은 “그래. 우리 같이 중국 가자.”라고 할 테지만 루디아는 달랐다. 단번에 “너는 가라. 나는 아버지 부르심 받고 이 땅에 왔으니까 여기에 남겠다.”라고 말했다. 아이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다 봐주실 것이라고, 자신은 돈이 있어도 여기 계속 남아 있겠다며 말이다. 그 당시 내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반응이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루디아 선생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열정과 믿음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북한이 복음의 불모지이고 성도가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끔찍한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 그 땅에 머물겠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을 난 알고 있다. 진정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 질문할 때 나는 지금도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던 루디아 선생의 생생한 모습을 떠올린다. (임사라 자매, 북한개발소식 2020년 1, 2월호) 

회령의 교회를 찾아서

1. 들어가며

함경북도 회령은 두만강을 사이에 둔 국경 도시로, 만주로 이어지는 관문이자 전략적 요충지였다. 특히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의 대륙 침략 정책에 따라 함북선 철도가 개설되면서 교통·물류의 중심지이자 만주 진출을 위한 전초기지로 부상했다. 이로 인해 군인과 상인 등 다양한 인구가 유입되며 지역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처럼 인구가 집중되고 교통이 발달한 환경 속에서 선교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1900년대 초부터 해방 전까지 회령과 그 주변 지역에 7개의 장로교회, 15개의 침례교회, 2개의 성결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전해진다.¹⁾ 이들 교회는 예배와 전도뿐 아니라 교육과 사회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쳤다. 이번 호에서는 회령 구역에 세워진 교회들과 기독교 관련 단체들의 활동, 그리고 회령 출신 탈북민들이 전하는 교회 관련 증언을 살펴보고 회령 지역이 주는 선교적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2. 복음의 전래

함경도 지역 선교는 1890년대 초, 미국 북장로회와 감리회가 강원도 원산

에 선교본부를 세우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1898년 선교지 분할 정책에 따라 함경도 지역의 선교 사역은 캐나다장로회로 이관되었다. 1899년 개항한 성진(현 김책)은 함경북도와 간도, 연해주를 연결하는 선교의 요충지로 부상하였다. 이에 1901년 캐나다 장로회가 파송한 그리어슨(Robert G. Grierson, 구례선) 선교사가 성진에 선교부를 설립하였다. 1907년 대부흥 이후 선교 인력이 더욱 필요해지자, 캐나다 장로회는 1910년부터 1912년 사이에 선교사들을 파송하여 함북 회령과 경성, 그리고 중국 용정 등에 선교지부를 설치하며 사역을 확장해 나갔다.²⁾

회령은 많은 일본인이 거주하는 도시이자 만주와의 교역이 활발한 국경 상업 중심지였다. 비교적 규모가 큰 도시였기 때문에 선교 거점으로 주목을 받았으며, 선교의 빠른 확장을 도모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³⁾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庚戌國恥)로 국권이 일본에 넘어가면서 많은 이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신앙과 일상의 자유마저 위축되자, 이에 저항한 독립운동가들과 생계를 찾아 나선 주민들 가운데 상당수가 회령을 거쳐 만주 지역으로 이주하였다.⁴⁾ 그 결과 회령과 북간도 일대에 교민 사회가 확대되자 1912년 캐나다 장로회는 당시 국경 관문이었던 회령을 북부 선교의 거점으로 삼고 선교부를 설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⁵⁾

이후 1909년 11월, 성진에서 어학훈련 중이던 맥리어드(J. M. McLeod)가 회령으로 파송되었고 1910년 봄, 그리어슨과 함께 회령군 오산동 일대에 선교사 주택과 병원 부지를 확보하였다. 맥리어드가 가정 사정으로 사임한 후 1910년 12월에 내한해 성진에서 어학 수업을 받고 있던 맨스필드(T. D. Mansfield, 만수필) 의료 선교사와 바커(A.H. Barker, 박결)가 약 1년간 회령을 오가며 회령선교부 개설 준비를 이어갔다. 1912년 기준 회령선교부는 오산동 일대 1만 5천여 평의 토지를 확보하였고, 이 가운데 일부 부지에는 선교사 주택과 시약소로 사용할 벽돌 양관을 건립하였다. 1912년 5월, 바커와 맨스필드 부부가 회령에 정착하였고, 같은 해 10월에는 맥도널드(D. A. McDonald, 맥도날) 부부가 합류하였다. 바커와 맥도널드는 복음 전도에 전념하다가 이후 바커는 1913년 북간도 용정선교부 설립을 위해 떠났다. 1915년에 의사인 맨스필드는 김석현과 함께 정식으로 의료 사역을 시작했지만, 물가폭등과 선교



바커(A.H. Barker, 박결, 1879.11.23.- 1927.12.12.) 선교사 (사진=한국일보)

2) 캐나다 장로회의 함경북도 선교 역사는 본 계간지 9호 『청진시』 pp. 54-58에서 자세히 서술하였음.

3) 윌리엄 스코트, 『한국에 온 캐나다인들』(한국기독교장로회출판사, 2009), p.161.

4) 역사편찬위원회, 『용정교회사』(기독교대한성결교회, 2002), p. 73.

5) 대한예수교장로회 함해노회, 『함해노회 100년사 자료집』(대한예수교장로회 함해노회, 2014), p. 105.

1)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북한교회사 집필위원회, 『북한교회사』(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 pp. 517-604; 이정수, 『한국침례교회사』(1990), p. 135.



맥릴란(E. McLellan, 마일란, 1883.4.10.-1975.6.7.) 선교사(사진=내한선교사사전)



함북노회 수양회 참석자들 (1933년 8월 26일)(사진=기독신문)

후원금의 감소로 6개월 만에 진료소는 폐쇄되었다.⁶⁾ 이후 맨스필드는 1915년 원산의 구세병원으로 사역지를 옮겼다. 그 뒤를 이어 1913년에 여성 선교사 맥릴란(E. McLellan, 마일란)과 맥에천(E. McEachern, 맥애런), 1914년에 프레이저(E. J. O. Fraser, 배레사), 1916년 캐스(G. L. Cass, 기애시) 등이 회령 선교부에 파송되었으며, 이들은 회령을 중심으로 경성, 무산, 청진, 부령, 경흥, 경원, 종성, 온성 등 함경북도 북부 지역을 순회하며 전도와 교육 선교 활동을 전개하였다.⁷⁾

1917년 11월 20일 북간도 용정교회에서 함북노회⁸⁾가 조직되어 함북 경성 이북과 북간도 지역을 관할하게 되었다. 북간도 교회들은 신앙운동과 더불어 민족운동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였다. 김약연⁹⁾, 구춘선, 이동휘¹⁰⁾, 이동춘 등은 교회와 민족운동을 연결하는 대표적 인물이었다. 1919년 3·1운동과 1920년 간도토벌 과정에서 많은 교회와 신자들이 피해를 입었으나, 함북노회는 이를 극복하고 회복과 성장을 이루었다. 이후 간도노회(동만노회)가 분립되고 북방 선교가 확장되었으며, 1943년 교단 개편으로 함북교구로 전환되었다.

6)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북한교회사 집필위원회, 『북한교회사』(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 p. 315.

7) 윌리엄 스코트, 『한국에 온 캐나다인들』(한국기독교장로회출판사, 2009), p.161-163;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북한교회사 집필위원회, 『북한교회사』(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 p. 108-109;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내한선교사사전 편찬위원회, 『내한선교사사전』(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22), pp. 54-56, 344-345, 354, 359, 371, 454-455, 1237-1238.

8) 1898년 캐나다 장로교 선교부가 함경도 선교를 시작한 이후 교세는 빠르게 확장되었고, 1902년경에는 약 25개 교회로 성장하면서 함경대리회가 조직되었다. 1907년 조선예수교장로회 독노회가 설립되자 전국은 7개 대리회로 구분되었으며, 함경대리회가 노회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어 1912년 1월 29일 원산 산동교회에서 함경노회가 조직되었고, 푸트(William R. Foote, 부두일) 선교사의 주재 아래 선교사와 한국인 목사, 장로들이 참여하여 정식 노회 체제를 갖추었다. 교세가 300여 교회로 확대되면서 행정적 필요에 따라 1917년 함경 지역을 함북과 함남으로 분립하기로 결의하였다. 1917년 11월 20일 북간도 용정교회에서 함북노회가 조직되어 함북 경성 이북과 북간도 지역을 관할하게 되었다.

9) 김약연은 1928년 평양장로회신학교에 입학해 수학한 뒤 명동교회 목사로 사역하며 전도와 교육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했다. 특히 명동소학교를 운영하며 민족 교육에 힘썼고, 1932년 용정으로 옮겨 은진중학교에서 가르쳤다. 이후 은진중학교와 명신여학교의 이사장으로 활동했으며, 평생 교육과 민족운동에 헌신하였다.

10) 대한제국 군 장교 출신의 정치인으로, 일제강점기와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기에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로 활동했다. 한말에는 의병운동과 애국계몽운동을 이끌었고, 함경도·평안도·북간도·연해주 등지에서 활동하며 전도에도 힘썼다.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총리를 지내기도 했다.

3. 회령의 교회들

3.1 회령의 장로교회

해방 전까지 회령에는 7개의 장로교회가 있었다.¹¹⁾ 그중 가장 먼저 설립된 교회는 회령교회이다. 초기에는 지역명을 따라 회령군읍교회로 불렸다가, 1931년 10월 27일 공식 명칭을 회령교회로 변경했다.

1903년 여름, 캐나다 장로회 성진선교부 소속 그리어슨, 럽(A. F. Robb, 업아력), 알렉스 선교사는 함경북도와 북간도 지역을 순회하던 중 회령을 찾아 약 3주간 전도 활동을 펼쳤다. 그들은 회령에 도착한 뒤 주일을 맞아 예배를 드렸다. 이후 여러 마을을 다니며 저녁이면 주막의 방을 빌려 주민들을 모아 찬송을 부르고 복음을 전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낯선 광경이었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어색함 속에서도 은은한 기쁨이 번졌다. 어느 날 회령에서는 마을 중심부에서 야외 집회를 열었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자 누군가가 조용히 화답하는 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한 여성이 함께 노래하고 있었다. 알고보니 남쪽 지방에서 온 천주교¹²⁾ 신자였다. 그 여성은 하루 종일 여러 집회에 동행했고, 다음 날에는 두만강 인근 관문까지 배웅하며 작별 인사를 나눴다.¹³⁾ 천주교 신자와의 만남은 회령 지역에서의 선교 의지를 더욱 북돋우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성진선교부 선교사들은 간헐적으로 회령을 방문하였고, 한국인 조사와 전도인들은 자주 왕래하며 복음을 전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회령에 교회가 세워지는 밑거름이 되었다. 때가 되어 성진선교부는 안순용(安順容)¹⁴⁾을 회령으로 파송하였다. 그는 황학빈, 김홍준, 김희원, 윤천녀 등을 전도하였고, 그중 윤천녀의 집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회령교회의 시작이었다.¹⁵⁾ 하지만 기대와 달리 교회 성장이 더디자, 성진선교부는 1910년 김문삼을 특별 파송하였다. 그는 그리어슨 선교사를 도와 1906년 북간도 양무정자(楊武亭子) 지역에



회령장로교회 예배당 전경(사진=북한기독교역사사전 II)

11)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북한교회사 집필위원회, 『북한교회사』(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 pp. 517-604.

12) 천주교 브레트 백(Bret, 白類斯) 선교사는 독일 출신으로 초기에는 원산에서 사역했으며, 1894년부터 관북 지방에서 사역한 초기 복음 전도자로 알려져 있다.

13) 도리스 그리어슨, 『조선을 향한 머나먼 여정』(한신대학교출판부, 2014), pp. 37-38.

14) 일명 안순영(安順永), 북한기독교사전편찬위원회, 『북한기독교역사(하)』(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25), p. 2652

15) 차재명,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상)』(한국기독교사연구소, 2017), p. 383.

교회를 설립한 경험이 있는 자였다.¹⁶⁾ 안순용이 북간도 양무정자교회를 중심으로 사역하기 위해 이주하면서 교회는 한때 목회자 없이 초기 신자들의 자발적인 예배와 모임으로 유지되었다. 성진선교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1910년 함경대리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김영제를 회령 지역 순회 목사로 임명하고, 여전도인 이마리아를 파송해 부인회 사역을 지원하게 했다. 이어 1911년에는 선교사 바커, 맥도날드, 맨스필드, 어학교사 강두화를 비롯하여 김관식, 김석현, 유영호, 최경재 등이 성진에서 회령으로 이주하여 본격적인 전도 활동을 전개하였고, 그 결과 회령교회는 점차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회령교회는 인근 지역 선교에도 영향을 미쳤다. 박병수 장로는 종성 지역 전도인으로 종성읍교회로 파송받았고, 1918년에 최경재는 평양 장로회 신학교에 입학한 후 종성군 행영교회 조사로 목회를 시작하였다. 1919년 1월 7일부터 나흘간 길선주 목사를 초청해 부흥회를 개최했는데, 새벽기도회에는 60~70명, 저녁 집회에는 400~500명이 참석했고 결신자는 약 120명에 달했다. 이 부흥회는 교회의 영적 각성과 외적 성장을 동시에 이끌어낸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그해 3월, 최경재가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면서 교회는 큰 시련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교인이 투옥되었고, 예배당이 파손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회는 빠르게 회복하였다. 1921년에는 교인 수와 주일학교 학생 수가 각각 2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교세가 빠르게 성장하였다. 회령교회는 단순한 양적 성장에 그치지 않고 내실을 다지기 위해 교회 제도 정비에 힘썼다. 최경재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1924년 목사 안수를 받은 후 계속 회령교회에서 시무했다. 교회는 근대 교육 확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캐나다 장로회 선교부가 운영하던 회령읍 사립보통학교를 비롯해 신흥학교와 보흥여학교, 여성 야학 등 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특히 여름마다 개최된 하기(夏期)아동성경학교는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1924년에 70~80명 수준이던 수강 아동 수는 1927년에는 280여 명으로 급증하였다. 성경 교육과 함께 한글, 산술, 음악, 체조, 도화 등 다양한 근대 과목을 병행해 가르침으로써, 당시 선도적인 아동 교육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유선동교회는 회령군 운두면 유선동 계림역전 일대에 1930년에 설립된 교회로 계림교회라고도 불렸다. 회령교회에서 파송한 박성태 전도사가 강성위, 배덕성, 김종욱, 함병운, 김홍섭, 차기화 등을 전도하여 교회가 시작되었고, 같은 해 11

월 23일 예배당을 신축하고 헌당 예배를 드렸다. 헌당식에는 회령교회 소속 캐나다 장로회 여성 선교사 화이트로우(J.G.D. Whitelaw, 하일라)가 인솔한 찬양대가 참여했으며, 이 자리에서 20명이 신앙을 고백했다. 1935년 5월 유선탄광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수의 이재민이 생기자, 유선동교회는 회령교회와 협력해 구호 헌금을 마련하고 피해를 입은 28가구에 위로금을 전달했다. 1942년에는 평양신학교에서 교수로 활동한 바 있으며 평양에서 신앙 잡지 「설교」(1936~1941)를 발간하던 김규당¹⁷⁾이 유선동교회에 전도사로 부임해 약 1년간 사역했다. 이후 그는 함북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인근 무산읍교회로 사역지를 옮겼다.

고령교회는 회령군 화풍면 인계동(옛 고령진 역전 일대)에 설립되었다. 회령장로교회 기독교청년회는 1924년 전도대를 조직해 회령 북쪽으로 약 25리 떨어진 고령진에서 전도 활동을 펼친 것이 계기가 되어 회령 지역의 두 번째 교회인 고령교회가 설립되었다. 1932년 5월, 진록송과 그의 가족을 비롯해 몇 명이 신자들이 예배 공간을 정비하며 공동체를 형성했다. 같은 해 12월 5일에는 공식적으로 포교소 설치를 신고하였다. 이후 교회는 꾸준히 성장하여 성도들의 헌금으로 1936년 4월 16일 신축 예배당을 완공하고 헌



고령교회 신축예배당 헌당식 (1946.4.16.) (사진=북한기독교역사사전 1)



회령 지역의 교회 위치, (Google Earth 바탕으로 필자 작성), 참고: 한국기독교역사연구회 북한교회사 집필위원회, 『북한교회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 북한기독교사전편찬위원회, 『북한기독교역사사전』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25)



화이트로우(J.G.D. Whitelaw, 하일라) 선교사 (사진=내한선교사사전)

16) 『간도노회사』(1921) 서문, p. 1을 서광일, “일제하 북간도 기독교인들의 민족교회 형성에 관한 연구 (1906~1921)” p. 49에서 재인용.

17) 1947년 월남하여, 1953년 미국 유학을 마친 뒤 귀국하였다. 이후 교수로 사역했으며, 대한예수교장로회 야간신학교(현 서울장신대)의 초대 총장을 역임하였다.

당 예배를 드렸다.

1930년 봄, 회령읍 두림촌에 두림교회가 세워졌다. 초기에는 회령교회의 기도처로서 신자 홍경태의 가옥에서 예배 모임이 시작되었으며, 이후 회령교회 남전도회의 적극적인 전도 활동으로 신자가 증가하였다. 그 결과 약 6개월 만에 여섯 칸 규모의 예배 공간을 마련하였다. 1931년 무렵, 벽성면에 탐동교회를 비롯해 팔을면에 금생동교회, 보을면에 봉의동교회가 잇따라 설립되었다.

3.2 회령의 성결교회(동양선교회)

성결교회는 1920년대에 들어 함경도 지역으로 활동 범위를 확대하였다. 1922년 4월, 곽재근 목사가 함경남도 북청에 교회를 설립한 것을 계기로 어포리와 예원리, 평산, 함흥, 회령 등지에 교회와 순회소¹⁸⁾가 차례로 설립되었다. 당시 회령은 함경북도 북부의 중심 지역에 위치한 군 행정의 거점으로,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 만주 간도 지역과 맞닿아 있어 인적 이동이 활발한 대표

적인 국경 도시였다. 함남 원산에서 출발해 길주·청진을 거쳐 회령과 삼상봉으로 이어지는 함경선 철도가 아직 전 구간 개통되기 전이었음에도, 약 3만 6천 명에 이르는 인구가 국경 교통과 상업 활동을 따라 회령으로 유입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지리적·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 조선성결교회 이사회는 1925년 6월, ‘성결 신앙’의 확산을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회령을 포함한 6개의 지역을 선정했다.¹⁹⁾

해방 이전까지 함경북도에는 모두 15개의 성결교회가 세워졌으며, 이 가운데 회령군에 두 개의 교회가 설립되었다.²⁰⁾

회령성결교회는 1925년 함경북도 회령군 회령읍에 설립된 교회로, 회령읍 교회라고도 불렸다. 이미 장로교회가 자리 잡고 있던 지역이었으나, 동양선교회는 회령을 북부 지역 선교의 거점으로 판단하고 교회 개척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1925년 6월 성서학원을 졸업한 김종인이 파송되어, 회령읍의 셋집을 예배처로 삼아 거리 전도를 중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였다. 개척 초기부터 교회는 빠르게 성장하여 석 달 만에 장년 신자 20여 명이 정기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고, 1925년 가을에는 곽재근 목사와 박노희 전도부인을 초청한 전도집회

와 새벽기도회를 통해 공동체의 결속을 다졌다. 1926년 김종인 전도사의 연임이 결정된 이후 교세는 더욱 확장되었으며, 신유 체험과 회심 사례가 이어지면서 가족 단위의 신앙 유입이 두드러졌다. 1927년에는 김응조 목사의 부흥회를 계기로 교회가 다시 성장의 전기를 맞았고, 교인 증가로 회령면 1동에 새 예배당을 마련하였다. 이후 학습·세례·성찬과 직분 임명이 이루어지며 교회 조직이 안정되었다. 같은 해 9월에는 운두면 운연동으로 선교 범위를 넓혀 지교회를 설립하였고, 이는 이후 운연동교회로 발전하였다. 1928년 이후 회령교회는 전도부인 사역과 부인회 활동, 특별집회와 기도회를 통해 사역을 확대하였으며, 1930년대에는 순회 전도와 부흥회를 통해 무산읍 등 인근 지역까지 선교 범위를 넓혔다. 새벽기도회와 노방전도는 교회의 대표적 사역으로 자리 잡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로서의 영향력도 강화되었다.²¹⁾

운연교회(운연동교회)는 1927년 9월 함경북도 회령군 운두면 운연동 상수로에 설립되었다. 회령교회 주임 교역자 김종인과 집사 황활용, 강인숙이 운연동에서 구령회를 열어 다섯 가정 47명이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같은 달 24일 지회가 조직되었고, 황연권이 헌납한 토지와 가옥에서 예배를 시작하였다. 1930년 김기하 전도사가 파송되어 포교 신고를 마쳤으며, 박해하던 무당의 회심과 국경 나루터 전도를 통해 교회는 지역에 뿌리를 내렸다. 예배당 노후로 1932년 교인 헌금과 본부 지원을 받아 예배당 신축에 착수해, 22평 규모의 예배당과 주택을 완공하고 1933년 봉헌예배를 드렸다. 이후 전도부인 사역과 부흥회를 통해 교세가 확장되었으며, 1935~1937년 부흥회와 사경회를 통해 다수의 결심자가 배출되었다. 1938년에는 학습, 세례, 성찬 예식과 부인회 조직이 이루어졌고, 교회 운영 체계도 안정되었다. 1939~1940년에도 부흥회와 사경회가 이어졌으며, 두만강을 건너 집회에 참여한 교인들의 신앙적 헌신이 전해진다.²²⁾

3.3 회령의 침례교회(대한기독교, 동아기독교)²³⁾

해방 전까지 회령군에 가장 많은 교회를 설립한 교단은 동아기독교이다. 원



운연교회 성도들(사진=북한기독교역사사전 II)



회령성결교회 성도들(사진=북한기독교역사사전 II)

18) 정식 예배당을 갖추기 전이나 전도사가 순회하며 예배를 인도하던 과도기적 형태의 예배 장소.

19) 이응보, 『한국성결교회의 역사 4』(성결문화사, 1992), p. 62.

20)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북한교회사 집필위원회, 『북한교회사』(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 pp. 121~122.

21) 이한복, 『북한성결교회사』(대한기독교서회, 2025), pp. 26~37.

22) 위 같은 책 pp. 93~96.

23) “동아기독교의 함경도 선교”(안희열)에 관한 내용은 본 계간지 9호 『청진시』 pp. 68~75에서 자세히 서술하였음.

산 총부는 1906년 북간도를 해외 선교지로 정한 이후, 1907년부터 간도와 시베리아 선교의 관문 역할을 하던 함경도 지역을 전도 활동의 거점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나진, 경흥, 종성, 회령 등지에서 선교를 시작으로 간도와 북만주, 시베리아 연안 지역으로 사역을 점차 확장해 나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함경도 지역의 교회 개척은 북한 지역 동아기독교교회 전체의 약 75%를 차지할 만큼 큰 비중을 보였다. 함경북도 내 교회들은 크게 경흥 구역과 회령 구역으로 나뉘었으며, 두 구역에 각각 약 15개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 밖에도 인근 지역에 추가로 10여 개의 교회가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아기독교교회의 북방 지역 교회 개척은 원산 총부에서 파송된 목회자보다는 통장, 총장, 반장 등 평신도 지도자들이 주도한 것이 특징이었다. 대부분의 교회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형태로 출발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조직 교회와는 형태가 달랐다. 이러한 방식 덕분에 교회 개척은 비교적 빠르고 수월하게 이루어졌으나, 공식적인 교회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당시 동아기독교교회의 정확한 주소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²⁴⁾ 또한 1941년 말, 일제에 의해 원산 총부에 보관되어 있던 신약전서와 복음찬미 6,500권을 비롯한 교단의 각종 문서가 압수·소각되었다. 이 사건으로 교단의 주요 자료가 소실되었고, 오늘날 침례교 역사 연구는 사료 부족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교회명	설립년도	설립자	교회명	설립년도	설립자
회령교회	1909	이창환	복지동교회	1921	박희규
산성동교회	1914	조참봉	동관진교회	1925	조영희
용복동교회	1914	김명보	유지동교회	1939	유치옥
임천교회	1915	김반장	서촌교회	1940	이종열
이설포교회	1916	유반장	부개리교회	1942	유치옥
행영교회	1916	손상열 ²⁵⁾	삼봉교회	1946	사창환
중봉동교회	1919	박희규	청진교회	1946	김은준

[표 1] 해방 이전 회령 및 인근 지역의 침례교회들²⁶⁾

24) 안희열, “말콤 C. 펜익의 북방선교-3”(2020.01.16. 침례신문)

25) 손상열 목사는 평안북도 자성군을 거점으로 중국 동북지역 임강현 등지에서 전도 활동을 펼쳤다. 1921년 오봉산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던 중 일본 경찰에 독립군 밀정으로 오인되어 체포되었고, 중강진 오수덕 숲에서 총살되었다. 그의 시신은 2년 뒤에 발견되었으며, 그는 한국 침례교 최초의 순교자로 알려져 있다.

26)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북한교회사 집필위원회, 『북한교회사』(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 pp. 517-604.

4. 회령의 기독교계 기관들

회령교회(장로교)는 선교부 지원을 받아 교회 부속 보흥학교를 설립했다. 1915년도 맨스필드가 원산으로 옮기면서 비게 된 오산동 시약소 건물로 이전하면서 남학교를 신흥학교, 여학교를 보흥여학교라 칭했다.

‘신흥학교’는 1912년 전후 함경북도 회령 지역에 설립된 장로교 계통의 교육기관으로, 회령교회를 기반으로 캐나다 장로회와 협력해 운영되었다. 학교는 보통과와 고등과로 구성되었으며, 이후 교육 과정의 확장을 통해 1932년에는 농업 관련 교육 과정을 새로 개설하였다. 이 학교에는 독립운동가이자 영화인으로 잘 알려진 나운규(1902~1937)가 1918년 고등과에 재학했으며, 이후 간도 명동중학교로 옮겨 학업을 이어갔다. 1922년 3월 22일에는 회령교회에서 보흥여학교와 합동으로 제8회 졸업 및 증서 수여식이 열렸고, 당시 재학생 약 220명과 지역 유지들이 참석해 학교의 위상을 보여 주었다.²⁷⁾ 1927년부터 1931년까지는 맥멀린(R. M. McMullin, 맥모린) 선교사가 교장으로 재직했다. 그는 1931년 10월 교장 근무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마친 뒤 함흥선교부로 자리를 옮겼고, 뒤이어 프레이저(E. O. Fraser, 배레사)가 교장직을 맡았다. 같은 해 12월 청진 신암동교회에서 열린 제9회 함북노회에서 박태환을 신흥학교 위원으로 파송하고, 학교 내 농업 교육 과정 설치를 위해 연 2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1932년 5월 농업(강습)과가 정식으로 개설되었고, 학생 수는 증가하여 새로운 교사를 초빙했다. 1934~36년에는 버비지(W. A. Burbidge, 변배지)가 교장으로 시무했으며, 당시 교사진은 3~5명 규모였다. 1927~36년까지 박태환 목사는 신흥학교 학생들의 신앙 교육과 영적 지도를 담당하며 학교 사역을 지속했다.

‘보흥여학교’는 회령읍 1동에 자리했던 장로교 계열의 여자 교육기관으로, 1914년 전후 캐나다 장로회가 회령장로교회 부설 학교로 설립해 운영하였다. 여성 교육이 제한적이던 시기에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근대식 교육을 실시한 것이 이 학교의 가장 큰 특징이다. 캐나다 장로회 선교부는 학교 운영을 위해 당시 약 1만 5천 원(현 약 7~8억원)에 달하는 많은 재정을 투입해 교사(校舍)를 새로 건립했으며, 1921년 10월 8일 맥도널드(D. A. MacDonald, 매도날) 교장의 주관 아래 신축 교사에서 낙성식을 거행했다. 이듬해인 1922년 3월 22일에는 제8회 졸업식을 열어 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학교는 보통과와 고등과로 편제되었으며, 1931년 3월 19일 회령교회에서 고등과 제11

27) “기독신보”(1922.04.09., 제7권 16호/제332호 4면)

회 졸업식을 진행했다. 당시 졸업생 40명 가운데 10여 명이 상급 학교로 진학해 여성 교육의 성과를 보여 주었다. 같은 해 9월 16일에는 교장 맥에천(M. E. McEachern, 맥애런)의 재임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회령교회에서 열렸다. 협소했던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인근의 가옥 두 채를 매입해 철거하고 부지를 확장했다. 1932년부터는 캐나다연합교회 소속 본윅(F. E. Bonwick, 반부련)이 교장으로 학교를 이끌었으며, 안식년을 맞아 귀국하게 되자 1934년 10월 12일 회령교회 주관으로 송별회가 마련되었다. 이후 1940년 초에는 보흥여학교를 실과 여학교로 승격시키기 위한 논의와 운동도 전개되었다.



회령여자성경학원(사진=북한기독교역사사전 II)

다. 한편 해방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른 2001년 8월, 보흥여학교 출신 생존 졸업생들과 그 후손들이 동문회를 조직해 캐나다연합교회에 2천만 원의 선교헌금을 전달함으로써 학교의 역사와 선교적 유산을 기념했다.²⁸⁾ 당시 교감으로 시무하였던 회령장로교회 김종○ 장로의 외손녀로 알려진 신○○ 전도사는 2005년 탈북해서 현재 경기 모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여 사역하고 있다.²⁹⁾

‘회령여자기독교청년회’는 1919년 11월 회령에서 조직된 여성 기독교 청년 단체이다. 3·1운동 이후 고조된 민족의식 속에서 보흥여학교 교사와 학생, 회령장로교회 여성 신도들이 중심이 되어 복음 전파와 지역사회 계몽, 봉사 활동을 목적으로 결성되었다. 창립과 함께 문맹 퇴치를 목표로 부녀야학을 운영하였으며, 회령교회 부속 야학은 자원 교사 정희섭과 전도부인 함경숙의 헌신으로 성장해 1920년대 후반에는 80여 명의 여성이 수학하는 교육기관으로 발전하였다. 회령교회 남자 청년들도 1923년 회령기독교청년회를 조직했으나 여성기독교청년회만큼 활성화되지는 않았다. 여자기독교청년회는 교육 활동과 더불어 강연회와 후원 행사를 통해 지역 사회의 문화·계몽 운동을 이끌었고, 그 성과는 지역 내 여성 문해율 향상으로 이어졌다. 1930년대 초에는 남녀 기독교청년회가 함께 추도 행사와 공동 활동을 진행하며 교회 청년 운동의 연대를 보여주었다. 1934년에는 회령교회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조직 체계를 정비하고 임원을 선출함으로써 회령 지역 여성 기독교 운동의 중심 단체로 자리매김하였다.

‘회령여자성경학교’는 회령에 설립된 조선예수교장로회 함북노회 산하의 여

성 성경 교육기관으로, 1926년 4년제 과정으로 출범하였다. 이 학교는 지역 교회 여성 지도자와 전도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1928년에는 스크루턴(E. J. Scruton, 서계돈) 선교사가 원장으로 취임하면서 학생수가 이전보다 10% 증가하였고, 이후 회령교회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학사 운영이 이루어졌다. 1930년대 초반에는 함북노회 각 지역에서 학생들 50여 명이 모여 수업이 진행되었으며, 학교는 점차 함북 지역 여성 신앙 교육의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 1934년에는 도마리아(M. Thomas) 선교사가 원장으로 부임해 개원식과 졸업식을 주관하며 교육 체계를 정비하였다. 이후 학교는 6회, 7회 졸업식에서

각 5명씩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1920~30년대 함경북도 지역에서 여성 성경 교육과 교회 인재 양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기관이었다. 도마리아는 함북여전도회 소속 여성 교역자들을 대상으로 사범사경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 이 집회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모여 큰 관심과 호응 속에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맥컬리(E. A. McCully) 선교사는 “A Busy Month in Hoiryung”에서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성경학원을 맡고 있던 토마스 양은 처음에는 도시와 교회에서 약 오륙십 명 정도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개강 첫날 저녁 용정에서 온 방문자들까지 더해지면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모였고, 그는 그 규모에 크게 놀랐다. 첫날 오전에만 등록 인원이 이미 90여 명에 이르렀으며, 이후 며칠 동안에도 참석자는 계속 증가하였다. 새로 등록한 학생들이 한 교실에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 반을 나누어 운영하기도 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교사 수를 맞추기 위해 반을 다시 합치기도 하였다. 강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에 놓여 있던 병원 장비는 한쪽으로 치워 둘 만큼 현장은 매우 분주한 분위기였다.”³⁰⁾

‘회령기독교청년면려회’는 회령장로교회에 부속된 청년 신앙 단체로, 3·1운동 이후 고조된 민족의식 속에서 1920년대 교회 청년들에 의해 조직되었다. 이 단체는 복음 전도와 더불어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활동을 주요 목표로 삼고 남녀 청년을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였다. 1930년대 초반에는 정기총회를 통해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임원을 선출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이어갔다. 기독교청년면려회(基督靑年勉勵會, Young People's Society of Christian Endeavour)는 신앙 훈련뿐 아니라 교제 행사, 외지 유학생 초청 모임, 빈민 구제 활동 등을 통해 지역 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였다. 특히 1932년에는 자체 모금 활동으



토마스(M. Thomas, 도마리아) 선교사(사진=내한선교사사전)

28) “보흥여학교’ 설립에 감사”, 한국기독교공보(2001.09.01.)

29) “탈북인 전도사가 수원에 회령교회를 재설립했다.”, 목장드림뉴스(2022.12.05.)

30) 서선영, “여전도회 지도자 도마리아(Mary Thomas) 선교사의 활동 연구: 1920~30년대 함북 지역 복음 전파와 여전도회를 중심으로”(한국교회사학회지 제65집, 2023). p. 132.

로 빈곤 가정을 지원하는 등 사회봉사에 적극 나섰다. 1930년대 중반에는 언론사와 민간 기업의 후원을 받아 재봉 기술 교육을 실시하며 실질적인 생활 개선을 도모하기도 했다. 그러나 1938년 이후 일제의 종교 통제가 강화되면서 회령기독교청년면려회의 활동은 점차 위축되었고, 결국 활발했던 청년 운동도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회령유치원’은 회령장로교회 산하 유아 교육 기관으로, 1921년 8월에 설립되었다. 이 유치원은 초기부터 교육 활동과 더불어 지역 사회의 후원을 바탕으로 운영되었다. 1920년대 중반부터 음악회와 가극 행사 등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재정을 마련하고 교육 활동을 확장하였다.³¹⁾ 1926년 3월에 10명의 졸업생 배출과 함께 원아 수가 증가하면서 전문 유아교육 인력을 초빙하였고, 외부 기관과 개인의 후원을 받아 정기적인 행사도 지속하였다. 1930년경에는 수십 명의 원생이 재원하는 비교적 규모 있는 유치원으로 성장하였다. 1930년대 초에는 후원 조직과 관계자들의 협력을 통해 교육 내용을 내실화하였으며, 학부 모 모임을 중심으로 위생과 건강 교육을 병행하는 등 아동 복지에도 힘썼다. 이 시기 원아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80여 명의 원생이 있었으나 제한된 인력으로 운영되었다는 점도 확인된다. 1930년대 중반에는 대중 행사를 열어 유치원 운영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며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이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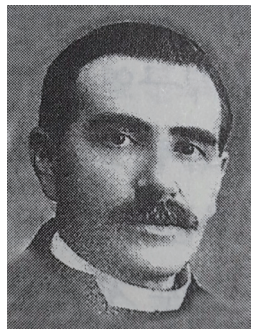
‘회령영아회’는 회령에 설립된 아동보건사업기구이다. 이 사업은 1932년 캐나다연합교회(前 캐나다 장로회) 회령선교부 소속 여선교사이자 간호사였던 화이트로우(J.G.D. Whitelaw, 하일라)에 의해 설립되었다. 그는 “한국 사람들의 보다 나은 건강과 보다 나은 생활수준을 생각하며, 동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였다”고 고백하며 회령과 주변 지역에서 수백 명의 생명을 돌보았다.³²⁾ 의료 시설이 부족했던 지역 현실 속에서 그는 아동과 산모 진료를 주요 목표로 삼았다. 선교부 내에서 시작된 보건 활동은 곧 의료기관 설립으로 이어졌다.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출신 의사 김종진과 간호사 신임순을 초빙해 중생의원(重生醫院)³³⁾을 설립하고 아동 진료와 지역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화이트로우는 중생의원에서 간호사로 활동하며 아동보건 사역을 이어가다가, 회령교회가 기존에 운영하던 주일학교 영아부를 인수해 이를 회령영아회로 발전시켰다. 회령영아회는 선교부·교회·지역사회 인사들이 참여한 조직으로, 출범 1년 만에 수백 명의 영아를 대상으로 병원 내 진료와 지역 순회 보

건 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했다. 그러나 1934년 화이트로우 선교사의 사임으로 선교부 지원 의료사업이 중단되면서, 김종진이 개인 병원(삼성의원)을 개원해 일부 의료 활동을 이어갔고 영아회는 교회 조직으로 환원되었다. 이후 김종진과 간호사 김근실이 아동보건 사역을 계승했으며, 1935년에는 교회 주관 영아 건강 행사를 통해 지역 아동들의 건강 증진 활동이 지속되었다.

한편, 회령에서는 함북노회의 사역들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주일학교 연합 조직인 ‘함북주일학교협의회’는 1926년 회령을 중심으로 경성, 경흥, 종성, 온성, 청진, 부령, 무산 등 함경북도 각 지역 교회 주일학교 대표들이 모여 결성되었다. 이 연합회의 중심 사역은 지역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의 양성과 훈련이었다. 연합회는 1930년 2월 16일부터 약 일주일간 회령장로교회에서 대규모 교사 강습회를 개최하였으며, 25개 교회에서 모인 주일학교 교사 153명이 참석하였다. 이 강습회에는 조선예수교장로회 종교교육부 총무와 평양 장로회신학교 교수 럽, YMCA 농업선교사 클락(F.O. Clark, 구을락)을 비롯해 여러 명의 강사가 참여하였다. 강의 내용은 주일학교 교수법과 조직 운영, 성경 교육뿐 아니라 농촌 생활과 관련된 실용 과목까지 폭넓게 다루어졌다. 이후 연합회는 지속적으로 교사 교육 사역을 이어갔으며, 1933년 11월 회령장로교회에서 열린 주일학교 강습회에는 10여 개 교회에서 50여 명의 교사가 참석했고, 저녁 전도집회에는 약 400명이 참여하는 등 지역 복음화에도 힘썼다.³⁴⁾

청년 연합 조직인 ‘함북기독교청년면려회연합회’는 3·1운동 이후 고조된 기독교 청년들의 민족의식과 사회적 책임 의식 속에서 형성되었다. 1920년대 중반 이후 회령·경성·종성·경흥·부령·청진 등 함북노회 관할 지역의 교회 청년들은 각 교회 단위로 기독교청년면려회를 조직해 전도와 지역사회 봉사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개별 활동을 노회 차원에서 연대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1929년 11월 10일 회령장로교회에서 연합회 발기회가 열렸고 조희렴이 의장, 송원규가 회장, 이영근이 서기로 선출되었다. 이후 노회의 인준을 받아 1930년 2월 21일, 함북노회 소속 7개 교회 청년면려회 대표들이 모여 공식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창립총회에서 회령장로교회 박태환 목사와 회령선교부 선교사 맥멀린(R.M. McMulin, 맥모린)이 고문으로 추대되었다. 1932년 8월 23일에는 회령장로교회에서 12개 교회 청년 지도자들이 참석한 정기총회가 열려 임원을 선출하고 교회별 청년면려회 조직 확대, 연합회 재정 정비, 유급 총무 채용, 농촌 계몽과 교양 사업 추진 등이 주요 과제로 결의되었다. 이후 함북기독교청년면려회연합회는 각 지역 지회의 활동을 지원하며, 노회 차원의 연합 사



럽(A. F. Robb, 업아력) 선교사
(사진=내한선교사사전)

31) “회령유치원 연주율동음악 등 성황리종막”(조선중앙일보, 1934.11.03.)

32) 윌리엄 스코트, 『한국에 온 캐나다인들』(한국기독교장로회출판사, 2009), p. 249.

33) 1915년 이후 중단되었던 의료선교는 1927년 파송된 선교사 화이트로우의 활동으로 재개되었고, 선교부 사택을 개조해 ‘중생의원’을 개설하여 지역 주민을 진료하였다.

34) 북한기독교사전편찬위원회, 『북한기독교역사사전(하)』(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25), p. 2515

업과 집회를 통해 청년 사역의 조직화와 확산에 기여하였다.³⁵⁾

함북노회는 ‘함북성경학원’ 설립을 추진하였다. 1938년 교회 자립운동의 일환으로, 캐나다 선교부는 회령 신흥학교의 부동산 전부를 노회에 이양하였고, 이에 노회는 독자적인 전문 성경 교육 기관을 설립하고자 계획하였다. 그러나 1940년대에 들어 일본의 종교 탄압이 심화되면서 교회가 압박을 받게 되었고, 결국 이 구상은 실현되지 못한 채 중단되었다.³⁶⁾

5. 해방 이후 지금까지

해방 직후 북한 지역에는 함북노회를 포함해 모두 14개의 노회가 존재했다. 이들 노회는 일제 말기인 1942년에 활동이 잠정 중단된 이후, 해방을 계기로 교회와 노회의 재건을 모색하며 1945년 10월 전후로 다시 모이기 시작했다. 함북노회는 같은 해 10월 제32회 노회를 열어 해방 이후의 상황 속에서 노회를 재정비하였고, 이후 약 5년간 활동을 이어갔다. 그러나 이 시기의 구체적인 회의 기록은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 이후 1950년 4월 18일, 청진포항제일교회에서 열린 제43회 노회에서는 임원 선출을 포함한 주요 회무가 처리되었다. 하지만 두 달 뒤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노회의 활동은 다시 중단되었고, 일부 목회자들은 남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다.³⁷⁾

1943년 12월 29일, 일제의 강압으로 성결교 58개 교회가 강제로 해체되고 폐쇄되었다. 그러나 해방 이후 다수의 교회가 이전의 모습을 회복하였으며, 여러 교회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는 소식이 해방 이후 이성봉 목사와 이용선 목사를 통해 전해졌다. 1950년 12월, 북진 중이던 국군과 UN군이 진행한 흥남철수작전 때 함경남도 함흥 북부정교회 성도 247명과 산수정교회 다수의 성도가 군용 상륙함을 타고 거제도도로 이동하였다. 이후 서울에 정착한 북부정교회 교인들은 폐허가 된 충무로교회(현 충무교회)를 재건하는데 헌신하였고, 산수정교회 교인들은 종로교회(현 삼성제일교회)를 설립하여 신앙 공동체를 이어가고 있다.³⁸⁾

1945년 해방 이후 회령지역 성결교회는 폐쇄되었던 예배당이 다시 열리고, 일제강점기 만주로 이주했던 교인들과 망명객들이 귀환하면서 교회가 잠시 활력을 되찾았다. 그러나 곧 소련군 군정과 공산주의 정권이 수립되면서 교회는

다시 통제와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 북조선기독교도연맹 가입을 거부하거나 정권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은 체포와 투옥을 겪었으며, 성결교회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 함경도 성결교 선교를 개척했던 이정원³⁹⁾ 목사는 해방 후 회령에서 목회를 재개했으나 공산 정권에 협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회령형무소에 수감되어 1948년에 순교했다. 1935년도에 회령성결교회에서 사역한 김인석 목사 역시 해방 후 회령성결교회를 재건했으나 체포되어 옥중에서 전쟁을 맞아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다. 김영범 목사는 한국전쟁 시기 전황이 인민군에서 불리해지자 별다른 혐의 없이 체포되어, 고향인 함경북도 이원 해변에서 학살당했다.⁴⁰⁾

한국전쟁 당시 국군과 유엔군이 회령까지 진출하지 못하면서, 기독교인들이 대거 월남하였다. 회령 출신 가운데 해방 이후 남한에서 활동한 기독교 인사들 가운데 조선신학교(현 한신대학교)를 졸업한 임기준 목사는 전남 장흥과 목포 등지에서 목회하며 민주화와 통일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강지환 목사는 월남 후 서울에 화전교회를 세워 사역을 이어갔다. 또한 교육학자 오기형 장로는 서울 영락교회에서 신앙 활동을 하며 교계와 학계에서 활동하였다.

5.1 회령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증언

함경북도 북동부 국경 지역은 역사적으로 동아기독교와 장로교 신자가 비교적 많이 분포했던 곳이다. 그러나 북한의 공산화 과정과 한국전쟁을 거치며 다수의 신자가 남한으로 이주했고, 일부는 현지에 남아 신앙을 유지하였다. 이후 회령에서 기독교 인구가 늘어난 배경에는 북한 당국의 종교 탄압이 강화되면서 기독교인들이 변방과 국경 지대로 강제 이동되었기 때문이다. 1990년대 후반에 들어 이 지역에서 신앙을 지켜 오던 그루터기 신자들 가운데 일부가 남한에 입국해 정착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회령을 비롯한 함경북도 국경 지역의 기독교 실태와 관련된 소식들도 점차 남한 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39) 이정원은 함경남도 북청 출신의 성결교 목사로, 젊은 시절 안동현에서 독립군 활동에 참여했다가 귀향 후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다. 1919년 경성성서학원에 입학해 1922년 졸업한 뒤 북청교회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으며, 여러 교회를 겸임하며 목회 경험을 쌓았다. 1927년에는 함북 청진교회를 개척해 전도 활동을 펼쳤고, 이후 목사 안수를 받은 뒤 함북과 북간도 일대를 순회하며 교회를 돌보는 감리 사역을 맡았다. 성진, 연길, 도문 등지에서 목회하며 북부 지역 성결교회 확장에 기여했고, 교단 내에서도 지방 임원과 이사 등으로 활동했다. 해방 이후에는 회령에서 목회하던 중 공산 정권에 의해 체포되어 회령형무소에 수감되었으며, 1948년 옥중에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이정순·이정할 목사의 형으로도 알려져 있다.

40) 유관지, 『북중접경, 기도하며 걷다』(2015), p. 221.

35) 위 같은 책 p. 2514.

36)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북한교회사 집필위원회, 『북한교회사』(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 p. 114.

37) 대한예수교장로회 함북노회, 『함북노회 100년사』(대한예수교장로회 함북노회, 2015), p. 121.

38) 북한기독교사전편찬위원회, 『북한기독교역사사전(하)』(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25), p. 1155.



폐쇄된 것으로 알려진 회령 22호 관리소(사진=디지털글로브, 2011년 5월)

1) ‘회령 지하교회 사건’에 대한 탈북 출신 J 목사의 증언

2007년, 가족 단위로 신앙 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K씨와 J씨(J목사의 누나) 부부, 그리고 두 자녀는 북한 보위부에 의해 연행되었다. 이들은 이후 정치범수용소로 이송되었으며, 사건 발생 후 1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생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관련 증언에 따르면 K씨의 조부가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했고, 생계를 위해 사진사로 일하면서 외부에 드러나지 않게 신앙을 지켜왔다. 그러나 가족과 함께 비공식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어 ‘국가에 적대적인 사상 선전’ 혐의를 뒤집어쓴 채 체포되었다. 이 과정에서 미성년이던 자녀들까지 성인 정치범과 동일한 수감 처우를 받았다. 한 증언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아이들은 밤새 울며 잠을 이루지 못했고, 격리된 공간에서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겪었다”며 “부모의 신앙을 이유로 자녀들까지 함께 희생된 사례”라고 전했다.⁴¹⁾

2) 보위부 집안에서 태어난 M 자매의 증언

함경북도 회령 출신인 M자매가 북한에서 처음 기독교를 접한 것은 열다섯 살 무렵이었다. 당시 그는 학교에서 진화론과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한 교육만을 받아왔기에, 성경에 담긴 창조 이야기와 노아의 홍수와 같은 내용은 전혀 낯선 것이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지었다는 이야기는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성경을 읽고 설명을 들으며, 특히 촛불을 켜고 조용히 말씀을 나누는 상황 속에서 성경의 이야기는 점차 그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불안하고 억압적인 환경 속에서 들은 성경 이야기는 오히려 더욱 또렷하게 받아들여졌다고 그는 회상한다. M자매가 하나님을 알게 된 계기는 우연에 가까웠다. 어느 날 성경 필사를 부탁받았는데, 일정 분량을 쓰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처음에는 열 쪽만 쓰면 된다는 말에 시작했지만,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 서른 쪽 가까이 성경을 베껴 쓰며 열심히 임했다. 당시 국경 인근 지역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성경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이 경험은 단순한 노동을 넘어, 그가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익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일들은 그가 탈북하기 몇 해 전의 이야기이지만, 정명희 씨는 현재 북한 사회에서 기독교에 대

해 알고 있는 사람들이 과거보다 훨씬 늘어났다고 증언한다. 지하교회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이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면서 십자가와 교회 장면이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이를 통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와 개념이 자연스럽게 알려졌다는 점도 그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M자매에게 신앙은 가족의 기억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그는 지금도 북한에 있던 시절 아버지가 직접 깎아준 나무 십자가를 목에 걸고 있다. 아버지는 부엌의 아궁이 곁에서 조심스럽게 나무를 다듬어 십자가를 만들어 주며, 발각될 경우 온 가족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장난감이나 다른 물건을 만들어준 적은 있어도, 십자가를 깎아준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나무에 색을 입히고 정성껏 마무리한 십자가는 오랜 시간 만져 닳아 지금은 색이 거의 벗겨졌지만, 그 안에는 아버지의 신앙과 침묵 속 믿음이 담겨 있었다. 그의 집안에는 과거 성당에 다녔던 조상이 있었으나, 공개적으로 신앙을 드러낼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M자매는 그 십자가를 비닐로 여러 겹 감싸 몸에 지닌 채 두만강을 건넜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버지의 숨결과 기억이 담긴 그 십자가를 늘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다.⁴²⁾

3) “지하교회는 있습니다.” Y 자매의 증언

“저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2005년 1월 남한으로 넘어왔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처음 성경을 접한 것은 1997년 여름이었습니다. 당시 제 남편은 북한 보위부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의 도움으로 추방 위기를 넘기고 살아남은 남편의 친구에게서 성경 한 권을 건네받게 되었습니다. 그 성경은 여러 겹의 비닐에 싸여 오랫동안 땅속에 묻혀 있었던 것이어서 앞부분, 그러니까 창세기 쪽은 이미 썩어 있었고 저는 뒤쪽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이었지만, 읽다 보니 ‘서로 사랑하고, 용서로 악을 이기면 결국 축복이 온다’는 말씀이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계속해서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특히 같은 해 10월, 사촌 오빠 집에 갔을 때 식사 전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도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 문장이 제가 성경에서 읽었던 바로 그 구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계기로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절 북한은 ‘고난의 행군’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사람들이 쓰러져 가던 때였죠. 북중 국경 지역에는 중국에 있던 교인들이 두만강을 건너

41) (재)북민실 자유통일연구소 창립 기념 세미나 발표 내용(2025.07.17.)

42) RFA, “탈북민들이 전하는 북한지하교회”(2014.11.11.)

와 굶주린 사람들에게 식량을 나누어 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가 북한 안으로 다시 스며들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알던 1990년대 말 회령 지역에만 해도 여러 지하교회가 있었습니다. 00리, 00동 등지에 있었고, 한 교회에 모이는 사람은 많아야 스무 명, 적게는 여섯 명 정도였습니다. 저 역시 1997년에 000 지역에서 지하교회를 세워 운영했습니다. 예배는 추석이나 한식, 생일 같은 명절을 핑계로 모이거나, 평소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조심스럽게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는 십자가도 없었고, 오직 성경만 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하교회였기 때문에 항상 긴장 속에 있어야 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면 문과 창문을 모두 잠그고, 가족들이 번갈아 가며 창문 밑에서 망을 봤습니다. 언제 누가 들이닥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2000년 1월, 변절자들의 밀고로 인해 우리 교회가 보위사령부에 발각됐습니다. 저는 ‘종교 간첩단 사건, 반동사상 유포죄’라는 죄목으로 체포됐습니다. 보통 사람이었다면 즉결 처형감이었을 겁니다. 다행히도 남편 덕분에 그해 6월 1심 재판에서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반쯤 지나 ‘조선인민군 보위사령부 ○○군부대 사건 명령서’라는 문서가 내려왔고, 변호사도 없이 비공개로 2차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 재판에서 저는 결국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조선노동당 역사에 없는 특대형 간첩사건, 가장 악랄한 종교 간첩단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형이 확정된 뒤 저는 2000년 7월 함경남도 제9교화소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열악했습니다. 감옥은 반쯤 땅에 묻힌 토굴 형태였고, 하나의 감방에 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수감됐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누우면 뼈와 뼈가 부딪혀 잠을 이루기 힘들었습니다. 변소도 감방 안에 있어 비가 오면 오물이 잠자리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수감된 지 2년 3개월 만에 남편의 도움으로 병보석으로 풀려났지만, 그때는 이미 가족이 흩어지고 집안도 완전히 무너진 뒤였습니다. 결국 저는 2003년, 열세 살 아들과 함께 탈북했습니다. 일부 탈북자들은 북한에 지하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⁴³⁾

4) “전거리 교화소에도 기독교인이 있었다.” A 자매의 증언⁴⁴⁾

저는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이후 회령으로 시집을 갔지만, 계속되는 기아와 생계의 어려움 속에서 가족을 살리기 위해 2004년 처음으로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 건너간 뒤 저는 인신매매를 당하는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어렵게 탈출한 후 중국 00시 머물게 되었고, 그곳에서 조선족 아주머니의 소개로 조선족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제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2009년 저는 일하던 중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강제복송을 당했습니다. 북한에서 4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전거리 교화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곳은 말 그대로 야만적인 도살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은 찾아볼 수 없었고, 매일 이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힘겨운 시간 속에서 중국에서 성탄절에 불렀던 찬송과 기도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몸이 너무 지쳐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제 앞에 누더기 담요를 뒤집어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 누더기가 부르르 떨렸습니다. 자세히 보니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혹시 신분이 드러날까 두려워 쉽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설날이 되어 서로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그분께 다가가 안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 분은 제 손을 꼭 잡으며 기도하자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분은 감옥 안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감옥은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곳이었기에 전도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전도를 시도하시다가 발각되었습니다. 결국 기독교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다시는 살아서 나오지 못하는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분과 함께한 감옥 생활은 제 인생에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분의 신앙은 말이 아닌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분의 믿음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전거리 제12호 교화소(사진 =Goolge Earth 2026.3.13. 검색)

나가며

회령에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캐나다 장로교를 비롯한 침례교와 성결교의 선교 활동이 전개되면서 관북 지역 복음화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했다. 지역 교회들은 전도대를 조직하고 인근 지역 교회 설립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선교 활동을 통해 함경도 북부 지역 교세 확장에 기여하였다. 해방 이후 공산 정권

43) “현대판 종교박해 북한 지하교회 실재했다”(데일리안, 2013.01.22.)

44) “북선위, 제18회 북한선교대회 개최”(한국성결신문, 2022.11.09)

함경북도 북부지역에 세워진 성결교회

이한복 (정선교회 목사)

이 수립되는 과정에서는 다수의 기독교 지도자와 신자들이 체포와 투옥을 겪는 등 신앙적 시련을 경험하였다. 회령 역시 이러한 역사적 아픔을 공유한 지역 가운데 하나로, 복음 확산의 현장이면서 동시에 신앙의 인내와 증언이 이어진 공간이다.

회령은 두만강을 경계로 중국과 접해 있는 국경 도시로, 한반도와 만주를 연결하는 통로의 역할을 해 왔다. 이러한 지리적 상황은 복음이 한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북간도 등지로 확산되는 데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 회령을 거쳐 만주로 이동한 사람들 가운데에는 기독교 신앙을 지닌 이들도 있었으며, 이들은 이주지에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교회를 설립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1900년 초 일제강점기와 그 이후의 격동기 속에서 많은 주민이 생계를 유지하거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만주로 이동했는데, 이 과정에서 교회는 단순한 예배 공간을 넘어 이주민 공동체의 구심점이자 정체성을 지탱하는 기반으로 기능했다. 이런 점에서 회령은 ‘흩어지는 교회’의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지니며, 디아스포라 선교에 있어서 하나의 연결 지점으로 평가될 수 있다.

오늘날에도 회령은 북한과 중국을 잇는 접경 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회령이 여전히 ‘경계’이자 ‘통로’라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회령은 과거 선교 활동의 거점이었을 뿐 아니라, 현재에도 북한 선교를 고찰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함경북도는 한반도의 가장 북단에 있는 지역으로 중국과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 동양선교회(성결교회)는 선교 정책 가운데 하나인 ‘오지(奧地) 선교원칙’에 따라 ‘교회가 없는 지역’에 찾아가 교회를 설립했다. 함경북도 지역은 전형적인 ‘오지 전도 활동의 열매’로 교회가 설립된 예이다. 성결교회는 해방 이전 함경북도에 17개 교회를 설립하였다. 이 가운데 함경북도 북부지역 즉 두만강을 따라 주변 지역에 설립된 교회는 9개소인데 본 고는 이들 교회들을 소개하려고 한다. 함경북도 북부지역의 성결교회설립에는 회령성결교회, 웅기성결교회, 특히 서수라성결교회의 열심 있는 전도 활동이 큰 역할을 하였다.



함경북도 북부지역의 성결교회들(필자 작성)

회령성결교회(會寧聖潔教會)

회령(會寧)은 국경도시로 북간도로 가는 건널목 같은 곳이었다. 성결교회가 회령에서 전도활동을 시작(1925)하기 이전, 회령에는 1907년부터 설립된 6개소의 장로교회와 1909년 이후 설립된 9개소의 침례교회와 1920년에 설립된 회령감리교회가 있었다.

성결교회는 1925년 6월에 경성성서학원을 막 졸업한 김종인(金宗仁) 전도사를 회령에 파송하여 회령성결교회(함경북도 회령군 회령읍 4동 116)를 설립하였다. 김종인 전도사는 셋집을 얻어 예배당으로 꾸미고 인근 마을들을 돌아다니며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일에 힘썼다. 그 결과 3개월 만에 주일예배에 출석하는 장년이 20여 명이나 되었다. 9월 19일~20일에는 객재근 목사와 박로희 전도부인을 청하여 ‘대거 전도회’를 열었는데 결심자 중 예배에 출석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1926년 회령성결교회 신자 일동

1926년 3월 김종인 전도사는 회령읍에서 16km 밖에 있는 이름난 명승지인 ‘학포(鶴浦)’라는 곳에 가서 군중들에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희생적 사랑을 힘써 전하였다. 이날 가장 큰 열매는 ‘무신론자의 회개’였다. 또한 손을 들어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18명이나 되었고 주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의 수가 300여 명이나 되었다.

또한 회령읍에 거주하는 ‘김충언’이라는 청년은 본래 암전한 청년이었는데 흉악한 사귀병에 걸려 오랫동안 많은 금전을 허비하며 병을 고치고자 하였지만 조금도 효험이 없었고 병증은 오히려 더 심해 감으로 온 가족이 눈물로 세월을 보내던 가운데 김병진과 윤경애 두 사람이 ‘예수를 믿고 사귀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소문을 듣고, 9월 1일에 회령교회에 나아옴으로 교역자와 신자들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결과 영육이 모두 완전한 치료를 받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렸고 온 가족이 모두 믿기로 결심하였다. 이 소문이 회령지역의 미신자들에게 전해지며 하나님의 신기하신 능력을 찬양하며 입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1927년 9월 22일에 김종인 전도사와 황활용, 강인숙 성도는 복받쳐 오르는 전도 열심을 견디지 못하여 ‘운연동’에 가서 관청의 허락을 받아 ‘이승화’라는 사람의 집을 빌려 3일간 구령회를 열고 전도한 결과 인가귀도(引家歸道)한 집이 다섯 집이나 되었고 믿기로 결심한 사람의 수가 47명이나 되었다. 특히 흉악한 사귀병자 한 사람을 주님께서 완전히 고쳐주시는 이적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주님의 권능을 칭송하였다. 이 전도의 열매로 인해 9월 24일에 ‘회령군 운두면 운연동(雲頭面 雲淵洞)’이라는 곳에 지회(운연성결교회)를 설립하였다.

1929년 10월 1일에는 ‘상업학교 운동회’에 가서 500여 명에게 복음을 전한 결과 결심자 30명을 얻었다. 또한 ‘부인전도회’에서도 주일마다 열심히 전도하여 결심자 50명을 얻었다.

1930년의 시작과 함께 성신의 충만함을 받은 신자들이 연내에 1,000명의 영혼을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주일 저녁마다 큰 등을 들고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가가호호(家家戶戶)를 방문하여 열심으로 전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였다.

1931년 1월 28일~2월 1일에 이정원 목사의 순회 기간을 이용해 부흥회를 열고 신자들이 많은 은혜를 받는 중 믿기로 결심한 자가 13명이나 되었고 마지막 날에는 세례식(7명)과 성찬식과 집사 장립(당시에는 집사 임명을 장립이라고도 표현함)까지 거행하였다. 또한 4월 1일부터 ‘무기청신기도회(기한 없이 계속 진행되는 새벽기도회)’를 열고 기도하는 중 사귀병자 3명이 나음을 얻었다.

1936년 1월 25일~29일에 ‘제4회 북부지방회’가 회령성결교회당에서 개최되었다. 7월 15일부터 5일 동안 ‘하기(夏期)전도대’가 회령성결교회에 와서 전도 활동을 통해 새 결심자 67명을 얻었다. 1937년 4월 16일(주일)에는 ‘오순절 기념예배’를 드렸는데 신자들은 4일 전부터 특별기도회로 모여 큰 은혜 받았고 당일에 열린 ‘성별회’에서도 풍성한 은혜 가운데 예배당 ‘풍금’을 구입하기 위해 43원(당시 쌀 약 3가마 가격)을 헌금하고 주님께 감사를 드렸다.

1938년 6월 2일~7일에 이성봉 목사의 인도로 ‘순회부흥성회’가 열렸다. 날씨는 무덥고 예배당은 협착하였지만 차고 넘치는 군중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장로교인들도 많이 참석하였다. 집회 참석자의 수는 새벽기도 80여 명, 낮 공부 100여 명, 밤 집회 400여 명이었고 결심자는 50여 명이나 되었으며 자복하여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11월 13일 오후 2시에는 김영범 목사의 주례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축예배당 봉헌식’을 거행하였다.

1939년 10월 17일~22일에는 김영균 목사의 인도로 매일 3차씩 집회하는 중 신자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 또한 신유의 기적까지 나타났고 인근 여러 교회의 신자들까지 참여하여 은혜를 받았다. 회령성결교회는 1943년 12월 29일 성결교회가 일제에 의해 강제로 해산당할 때까지 함경북도 회령(會寧)지역에 힘 있게 복음을 전하였다.

서수라성결교회(西水羅聖潔教會)

웅기(雄基)에서 북동쪽으로 24km 떨어진 ‘서수라(西水羅)’라는 곳은 유명한 어항(漁港)이요 조선과 러시아와 중국의 국경지역으로 당시 신 발전지역이었다. 웅기성결교회는 장래 큰 희망이 있는 ‘서수라’에 교회가 없다는 소식을 듣고 전도회원과 교역자가 ‘특별전도대’를 조직하고 1931년 5월 19일에 서수라에 도착하여 ‘경성여관’에 숙소를 정하고 3일 동안 집 집마다 전도지를 배부하

며 개인들에게 열심히 전도한 결과 결심자 수십 명을 얻었다. 또한 여관 주인인 이두석 씨도 믿기를 결심하고 예배당 대지 120평을 기부하였다.

때마침 '전국 순회이사' 객재근 목사가 순회차 6월 1일에 웅기에 도착해 '서수라 전도 상황'을 보고받고 서수라에 가서 결심자 가정도 방문하며 자세히 시찰하고 예배당 대지를 기부한 이두석 씨도 만나 치하하며 대지를 답사하였다. 대지를 기부한 이두석 씨는 예배당을 건축할 때까지 임시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초가 4칸을 무료로 빌려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 전국 순회이사 객재근 목사는 웅기로 돌아와 즉시 '이사회'에 이 사실을 전하자 이사회에서는 서수라성결교회(함경북도 경흥군 노서면 서수라항 13)를 웅기성결교회의 지교회로 인정하고, 하기(夏期) 방학시기에 경성성서학원 수양생이던 조승각(趙承珏) 씨를 서수라교회에 파송하여 사역하게 하였다.

조승각 씨는 7월 2일에 웅기에 도착해 서수라교회로 향하였다. 이때 웅기성결교회는 서수라성결교회를 설립하는 일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해 주었다. 그런데 막상 서수라에 도착하고 보니 이두석 씨가 빌려준 가옥은 장마에 비가 새고 퇴락(頹落)되어 수리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됨으로 예배처소로 인해 큰 어려움을 당하였으나 그 가운데서도 7월 5일에 유년 5명과 장년 2명이 모여 창립 예배를 드렸다.

청진지방회 이정원 감리목사는 7월 20일에 서수라교회를 순회하여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신자 중 남녀 7명을 세워 임시 직원으로 임명하고 교회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직원회에 맡김으로 직원들은 이때부터 책임감 있게 일하기 시작하고 힘과 재정을 아끼지 않고 가옥을 수리하였다. 한 형제는 전등을 기부하여 예배당을 밝게 하였고 신자들은 예배에 열심히 출석하여 집회마다 100여 명씩 모였다. 또한 한 형제가 예배시간을 알리는 경종 구입을 위해 10원을 헌금한 것이 동기가 되어 직원들이 함께 헌금하고 웅기교회에서도 10원을 헌금함으로 9월 6일(주일)부터 서수라에 경종 소리가 울리게 되었다.

서수라교회가 이같이 흥왕해 가는 가운데 이사회에서는 서수라교회를 웅기교회 지교회에서 독립된 교회로 지정하고 교역자로 조승각 씨를 1932년에 열리는 '제4회 연회' 때까지 임시로 사역하게 하였다.

또한 다섯 살 때부터 앓은뱅이 되어 8년 동안 일어서지 못하던 아이가 주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에 출석한 지 불과 1개월 만에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 신유의 이적이 나타나 고침을 받는 동시에 자유로이 예배당에 출석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모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1931년 12월 7일~10일에 이명직 목사를 청하여 부흥회를 열었는데 성신의 크신 역사로 말미암아 중생자 50여 명, 성결자가 30여 명에 달하였으며 미

신자들도 조수(潮水)같이 몰려왔으나 장소가 협소함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또한 주일예배를 2회로 나누어 드렸음에도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하고 예배당 밖에 서 있다가 돌아가는 신자들도 많아 신자들은 예배당을 위해 기도하였다. 서수라교회의 예배당 건축은 신자들의 헌금 151원 8전과 본부의 보조금 700원으로 1932년 7월 20일에 34평의 예배당을 기공하여 9월 5일에 준공하였다.

1932년 11월 10일 오전 10시에 최석모 목사의 인도로 헌당식을 성대하게 행하며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당일부터 4일간 부흥회를 열어 신자들 모두가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 특별히 복랑정중(福郎正重)이라는 일본인 형제와 강상룡(姜相龍)이라는 자매는 과거의 죄를 철저히 회개였다.

1933년 7월 2일에 남녀 400여 명이 모여 '2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어 3일간 노방전도를 한 결과 결심자 92명을 얻었다. 부인회에서는 열심히 헌미(獻米)하여 예배당에 10원 하는 쾌종을 사서 달았다.

1934년 1월에 12km 밖에 있는 '구산농장'에 가서 전도한 결과 50여 명의 구도자를 얻어 지교회를 설립하였다. 또한 5월에는 '굴포동'이라는 곳에 지교회를 설립하였다.

1935년 1월 17일~20일에 이건 목사의 인도로 집회하였는데 신자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임하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1936년 3월 8일에 이원근 목사의 주례로 이면희 장로의 장립식을 거행하였다. 8월 6일~9일에 이원근 목사와 장이초 목사의 인도로 '대 전도회'를 한 결과 신자들이 풍성한 은혜를 받았고 새 결심자도 50여 명이나 되었다.

1938년 3월 25일~31일에 김선학 목사의 인도로 부흥회를 열었는데 교회 창립 이후 초유의 대성황을 이루어 매야(每夜) 450명~650명이 모여들어 중생한 자와 성결자가 다수였고 새 결심자가 127명이나 되었다. 11월 19일~24일에 김응조 목사의 인도로 부흥회를 열었는데 새 결심자가 15명이나 되었고 인근 장로교회 신자들도 와서 은혜를 받았다.

1939년, 함경북도 국경 지역에 있는 '조산동'이라는 농촌 마을에 서수라교회의 유봉운 전도사와 교우들의 전도로 '기도소'를 설립하고 40여 명씩 모여 예배를 드림으로 서수라교회는 조산동 예배당 건축을 위해 기도하였다. 1940년 서수라교회 부인회는 '조산동 지교회'에 20여 원 하는 쾌종시계를 기증하여 신자들이 시간에 맞추어 모이게 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



1932년 서수라성결교회

서수라성결교회는 1943년 12월 29일 성결교회가 일제에 의해 강제로 해산당할 때까지 서수라 지역에 복음을 전하였다.

온성성결교회(穩城聖潔教會)

온성(穩城)은 한반도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다. 서울에서 직선거리로 약 650km정도나 된다. 그래서 ‘이어도’보다도 멀고 중국의 심양·칭다오·일본의 히로시마보다도 멀리 있다. 온성성결교회(함경북도 온성군 온성면 서흥동 남부 26)는 1932년 추기(12월)졸업을 앞둔 전기찬(趙承珪) 형제를 파송하여 4월 24일에 창립예배를 드렸다.

1934년 이원근 목사의 순회 기간을 이용해 4월 10일~14일에 ‘부흥회 겸 전도회’를 열었는데 매 집회에 7~80명이 모여 큰 은혜를 받는 중 새 결심자가 20명, 학습 받은 자가 12명이나 되었다. 7월 7일~11일에 전서국 전도사의 인도로 부흥회를 열었는데 신자들이 풍성한 은혜를 받고 새로 결심한 자는 38명이나 되었고 경종 구입을 위해 40여 원을 헌금하였다.

1936년, ‘40일간의 기도회’에 연이어 10월 20일부터 1주간 ‘특별기도회’로 모인 후 예배당 건축을 위해 100원을 헌금하였는데 이는 신자들의 생활 형편에 비해 큰 헌금이였다. 또한 ‘남양동(南陽洞)’과 ‘용전(龍田)’의 교우들이 40원의 헌금을 하였고 동양선교회(본부)에서 130원의 보조를 받아 합 270원으로 대지 150평과 와가(瓦家) 10칸을 매수(買收)하여 수리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어 신자들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렸다.

1937년 1월 8일~11일에 강송수 목사의 인도로 부흥회를 열고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중생자 20명과 성결의 은혜를 받은 자가 20명이나 되었다. 3월 13일~7일에 박문익 전도사의 인도로 ‘장·유년부흥회’를 개최한 결과 신자들이 큰 은혜를 받았고 새 결심자가 20명이나 되었고 특별히 유년들이 철저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은혜를 받아 가정과 학교와 관공서에까지 복음의 빛이 드러나게 되었다.

1938년 10월 4일~7일에 한성과 목사의 인도로 부흥회를 열었는데 모든 신자가 큰 은혜를 받는 중 새 결심자를 많이 얻었으며 또한 예배당 건축을 위해 260여 원을 헌금함으로 교회는 날로 부흥되었고 유망한 새 신자들이 많아졌다.

온성성결교회는 1943년 12월 29일 성결교회가 일제에 의해 강제로 해산당할 때까지 온성(穩城)지역에 복음을 전하였다.

종성성결교회(鍾城聖潔教會)

종성성결교회(함경북도 종성군 종성면 금산동 232)는 1932년 7월에 경성 성서학원 수양생인 양윤겸(梁潤謙)을 파송하여 교회설립을 준비하였다. 불교도들과 다른 사상을 주장하는 사람들로 인해 오랫동안 악전고투(惡戰苦鬪)를 하던 중 주님께서 함께하심으로 강박한 곳에서도 구원받은 영혼이 있어 1932년 10월 30일(주일)에 장년 9명과 유년 70여 명이 모여 창립예배를 드렸다.

1933년 교회의 창립자인 양윤겸 전도사가 나진교회로 전임된 이후 종성교회는 교회로 세워지지 못하고 결국 1934년에 열린 ‘성결교회 제2회 총회’ 시에 교회 폐쇄를 승인하였다.

회암성결교회(灰岩聖潔教會)

함경북도 경원군(慶源郡)은 아오지 탄광으로 유명하며 한반도의 최동단에 있는 지역이다. 「조선총독부 관보」에는 회암성결교회(함경북도 경흥군 상하면 회암동 157)가 1937년 3월 1일에 설립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후 회암교회에 관한 기록은 1937년 「제1회 연회록」이 유일하다. 연회록에도 교역자, 설립년도, 주소지 등에 관한 기록은 없다.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때 함경북도 경원군에 ‘회암성결교회’가 설립된 것은 분명하나 설립 이후 교회로 세워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회암성결교회는 1942년 1월 23일에 교회 폐쇄가 신고되었다.

운연성결교회(雲淵聖潔教會)

운연성결교회(함경북도 회령군 운두면 운연동 상수호 732)는 1927년 9월 22일에 회령성결교회 김종인 전도사와 황활용 집사, 강인숙 집사가 북받쳐 오르는 전도에 대한 열심을 견디지 못하여 ‘회령군 운두면 운연동’에 가서 관청의 허락을 받아 ‘이승화’라는 사람의 집을 빌려 3일간 ‘구령회’를 열고 전도한 결과 다섯 가정이 인가귀도(引家歸道)되었고, 믿기로 결심한 사람이 47명이나 되어 9월 24일에 기쁨으로 회령교회의 지회(기도소)로 설립되었다. 특별히 ‘구령회’기간 동안 흉악한 사귀병자를 주님께서 완전히 고쳐주신 이적으로 말미암아 미신자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권능을 칭송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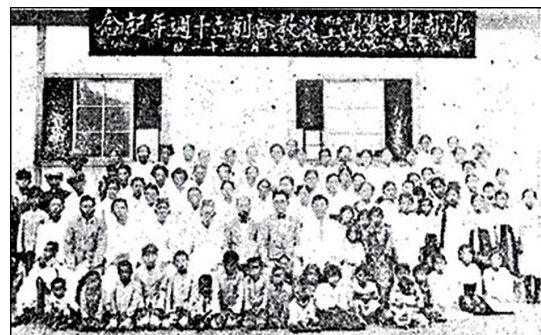
전도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된 황영권 씨는 기쁨으로 믿기로 결심하고 구속의 은혜를 체험한 후 그 은혜에 감사하여 토지 9,000여 평과 가옥 전부를 교회에

바치고 그 가옥을 예배당과 주택으로 사용케 하여 교회의 기초가 견고하게 되었다.

1930년 3월 '제2회 성결교회 연회'에서 김기하(金基夏) 전도사를 파송하였는데 한 해 동안 김 전도사의 열심 있는 전도 활동으로 1931년에는 80여 명이 모이게 되었다. 운연교회에는 황연권 노인을 비롯해 80대 노인이 6인이나 되었고 특히 신유의 은혜가 많이 나타나 간질과 귀신병도 완치되었고 그 동네에서 교회를 많이 핍박하던 무당도 감화되어 온 가족이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 김 전도사는 적막한 산촌인 '운연'에서 열심히 각 가정을 방문하며 전도하였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자기 의복까지 벗어주면서 전도하였다. 특히 두 곳의 도선장(渡船場)에 왕래하는 수천의 사람들에게 매일 복음을 전하였다. 김 전도사는 교회에 필요한 종(鍾)이 없어 매우 유감으로 여기던 중, 과거 자신이 사죄의 은혜를 받고 잘못을 뉘우치고 물질로 손해를 입힌 사람들을 찾아가 손해금을 돌려주었는데, 돈의 주인을 찾지 못해 돌려주지 못하고 보관하고 있던 '회개금'으로 종을 구입하였다.

또한 예배당이 200여 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어서 매우 퇴락하고 협착해 신축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서 신자들은 이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171원의 건축헌금을 약속하였다. 하지만 이 금액으로는 도저히 예배당을 신축할 수 없어 본부에 간원(懇願)한 결과 350원을 지원받아 1932년 7월 15일에 옛 집을 헐고 정초식을 거행한 후 건축공사에 착수하여 총경비 521원으로 광대한 대지에 와가(瓦家) 22평의 예배당과 와가 3칸의 주택을 10월 말에 준공하고 1933년 2월 15일에 이정원 목사를 청하여 봉헌식을 거행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

1935년 9월 5일~8일에 이정원 목사의 인도로 부흥회를 하였는데 그 결과 신자들 모두가 큰 은혜를 받았고 새 결심자 18명, 중생자 10명, 성결자 11명이나 되었으며 특별헌금을 하여 전도부인의 주택을 수리하였다.



1936년 운연성결교회원 일동(창립 10주년 기념)

1936년 7월 21일 전서국 전도사의 사회로 '창립 1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는데 김영범 목사의 설교와 이정순 전도사, 김형식 전도사의 기념사와 박주만 집사의 연혁 보고 후 교회의 공로자인 황영권 노인과 김정숙 전도부인에게 기념품을 전하였다.

1938년 1월 9일(주일)에는 '제1회 성결교회 연회(1937년)'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전서국 목사의 주례로 학습 및 세례예식과 성찬예식을 거룩하게

행하였다. 1939년 11월 7일부터 장이초 목사의 인도로 부흥회를 열었는데 신

자들이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

1940년 2월 22일 밤부터 한 주간 조승각 목사의 인도로 부흥사경회를 열었는데 집회마다 은혜가 소낙비와 같이 내려 신자들이 흡족한 은혜 받았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두만강 건너 만주 땅에 사는 동포들이 강을 건너다니며 은혜를 받은 일이다.

운연성결교회는 1943년 12월 29일 성결교회가 일제에 의해 강제로 해산당할 때까지 '함경북도 회령군 운두면' 지역에 복음을 전하였다.

조산동성결교회(造山洞聖潔教會)

'조산동'은 함경북도 국경 지역에 있는 농촌 마을로 서수라에서는 12km 되는 곳이다. 조산동성결교회(함경북도 경흥군 노서면 조산동)는 서수라성결교회의 유봉운(兪奉云) 전도사와 교우들의 전도 활동과 수고로 1939년 3월에 '기도소'로 설립되었다. 매 주일 30여 명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조산동성결교회는 예배당 건축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였다.



1940년 조산동 신축예배당

1939년 9월 16일~20일에 열린 '제2회 성결교회 연회'에서 신설교회 설립을 인정받았다. 국경 북단에 조산동교회가 설립되자 경성에 있는 아현성결교회가 100원을 후원해 주어 개인 집을 매수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겨울 철에는 난방이 어려웠고 건물도 예배당같이 보이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다.

예배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산동교회와 서수라교회 신자들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사 조산동교회 어린 신자들이 많은 헌금을 드리게 하시고 서수라교회 직원들을 사용하여 조산동교회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에 물심을 바치게 하셨다. 특별히 김하직(金河稷) 씨의 수고(受苦)는 주님의 영광을 한층 빛내게 하였다.

조산동교회 신자들은, 한 사람의 신자도 없었던 곳에서 1년 4개월 만에 매 예배에 남녀 30명이 모이게 됨과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였다. 그러나 조산동성결교회는 결국 교회로 세워지지 못하고 1942년 2월 9일에 교회 폐쇄를 신고하였다.

나진성결교회(羅津聖潔教會)

나진성결교회(함경북도 나진부 문의동 187-13)는 1933년에 양윤겸(梁潤謙) 전도사를 파송하여 나진항이 있는 ‘나진부 동원정’에서 교회설립을 준비하고, 같은 해 9월에 창립예배를 드렸다. 나진교회는 위치가 ‘나진항’에 가까이 있었으므로 ‘나진항교회’ 또는 행정구역을 따라 ‘나진읍교회’라고도 불리었다. 1937년에 열린 ‘제1회 성결교회 연회’에서 “나진교회는 신도 일동이 기도 와 연중 전도에 열심함으로 신도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교회 건축을 위해 3,000원의 보조를 청원하였다.

1937년, 이원근(李元根) 목사가 부임하고 3월 23일부터 6일간 김영범 목사를 청하여 부흥사경회를 열고 매일 3차씩 집회하였는데 중생자와 성결자가 다수였고 3일간 계속된 풍설(風雪)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새 결심자가 21명이나 되었다.

1938년 1월 12일~17일에 장이초 목사를 청하여 부흥사경회를 개최하였는데 시간마다 성신의 놀라운 역사로 인해 각양의 은혜가 임하여 신자들의 심령이 변화를 받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으며 새 결심자가 18명이나 되었다.

1939년, 온갖 핍박 중에서 승리한 이보옥 집사의 믿음 생활은 신자들에게 큰 은혜와 감동을 주었다. 1940년 6월 17일~30일에 북부지방회에서 청진구역과 나진구역으로 나누어 각 교회를 역방하며 ‘하기순회전도회’를 개최하였는데 매일 청신기도회(새벽기도회)와 노방전도회, 호별방문전도, 구령회 등을 통해 전도한 결과 각 교회 신자들이 큰 은혜와 새 힘을 얻어 기뻐하였고 190여 명의 결심자를 얻어 주님께 영광 돌렸다.

나진성결교회는 1943년 12월 29일 성결교회가 일제에 의해 강제로 해산당할 때까지 ‘나진’지역에 복음을 전하였다.

구산농장성결교회

구산농장성결교회는 서수라성결교회가 1934년 1월에 12km 밖에 있는 구산농장에 가서 전도한 결과 50여 명의 구도자를 얻어 서수라교회 지교회로 설립하였는데 주일마다 장년 수십 명과 유년도 수십 명씩 모여 예배를 드렸다. 하지만 구산농장성결교회는 교회로 세워지지 못하였다. ☹

용정(龍井, 룡징) 바라보기

유관지 (북녘교회연구원장)

□ 양해를 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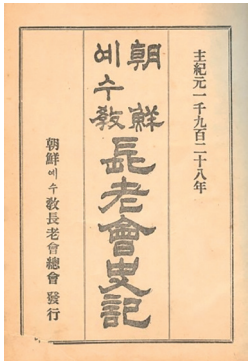
‘용정’의 공식적인 표기는 위의 괄호 안에 있는 ‘룡징’입니다. 외래어를 표기할 때 중국의 지명과 인명은 신해혁명(1911년) 이후의 경우는 표준중국어 발음을 쓰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심양(沈陽)은 ‘선양’, 연길(延吉)은 ‘옌지’가 공식적인 표기입니다. 그러나 ‘용정’은 우리 귀에 익숙고 또 우리 민족의 애환이 깊게 스며있는 이름임을 생각하며 이 글에서는 공식적인 표기 대신 이 이름을 그대로 썼습니다. 이 점 양해를 구합니다.

용정 주변에는 개산툰(開山屯), 노두구(老頭溝), 삼합(三合), 지신(智新) 등 우리 귀에 익숙은 곳들이 여럿 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카이산툰, 라오투우고우, 썬허, 즈신으로 표기해야 할 것이나 같은 이유로 옛 표기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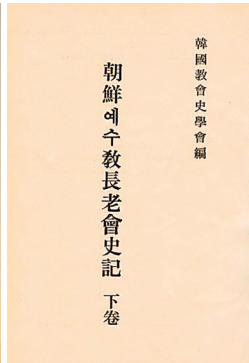
북한은 한글의 한자음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주석의 이름이 남한에서는 표준중국어 발음인 ‘시진핑’으로 굳어져 있지만 북한에서는 ‘슌근핑’(翽近平)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혹 북한동포들이 이 글을 읽는 일이 있을 때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는 것도 우리에게 익숙한 표기를 쓰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필자)

회령과 용정, 가깝고 관계도 깊다

여러 해 전의 일인데 탈북 교역자와 신학생들로부터 북한교회사에 대한 특강을 요청받고 기쁜 마음으로 이틀간 강의를 한 일이 있었다. 필자는 탈북민



『조선예수교장로회 사기』 상권(1928, 차재명 편)은 초기 선교와 교회 설립, 장로교 조직 형성 과정을 다루고, 하권(1968, 백낙준 편)은 일제강점기와 교회의 시련, 분열과 재건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사진=리폼드뉴스, 국민일보)



신자를 만나면 먼저 고향을 묻고 ‘그곳에 이런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건물이 지금도 남아 있느냐?’고 묻는다. 그때 강의를 듣는 탈북 교역자와 신학생들 가운데 회령 출신이 몇 있기에 마찬가지로 질문을 했더니 다른 탈북민들에게서 일상적으로 듣는 대답이 돌아왔다.

“회령에 교회가 있었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그들에게 『조선예수교장로회 사기』, 장로교 1938년 주소록(27차 총회록 부록), 1940년 연감, 그 밖의 여러 기록을 보여 주며 회령에 승암동(勝岩洞)교회, 회령읍

교회, 유선동(遊仙洞)교회, 탑동(塔洞)교회 등의 장로교회가 있었고 회령성결교회와 운연성결교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놀라며 “아니 우리 고향에 이렇게 교회가 여럿 있었어요?” 했다. 한 학생은 주소의 지명을 짚으며 “이곳은 교회가 있을만한 곳이에요” 했다.

필자가 덧붙인 다음 이야기는 그들은 더욱 흥분시켰다.

“회령은 중국의 용정과 연결되는 건널목이어서 더 중요하지요. 회령에서 두만강을 건너면 바로 용정 아니에요? 용정의 교회들은 회령과 관계가 더 깊어요. 해방 전에 장로교회에는 모두 32개의 노회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6개 노회는 중국 동북지역에 있었어요. 봉천노회·남만노회·북만노회·동만노회·단동노회·영구노회인데 그 중 용정을 중심으로 한 동만노회의 규모가 가장 컸어요. 1938년 당시 동만노회에는 74개의 교회가 있었답니다. 그다음이 봉천노회인데 봉천노회의 교회 숫자는 동만노회의 반 정도인 38개였답니다. 회령은 그런 동만노회의 발판이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회령에 있었던 장로교 선교지부의 캐나다 선교사들이 동만노회를 많이 뒷받침했지요. 함경도 분들이 건너가서 세운 용정의 중앙교회가 동만노회의 중심에 있었답니다.”

로 한 동만노회의 규모가 가장 컸어요. 1938년 당시 동만노회에는 74개의 교회가 있었답니다. 그다음이 봉천노회인데 봉천노회의 교회 숫자는 동만노회의 반 정도인 38개였답니다. 회령은 그런 동만노회의 발판이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회령에 있었던 장로교 선교지부의 캐나다 선교사들이 동만노회를 많이 뒷받침했지요. 함경도 분들이 건너가서 세운 용정의 중앙교회가 동만노회의 중심에 있었답니다.”

회령 출신 교역자와 신학생들이 서로를 돌아보며 “우리 고향이 한국교회의 역사에서 참 중요한 곳이네요. 통일이 되면 우리가 앞장서서 회령을 다시 그렇게 만들어야 하겠네요” 하고 다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흐뭇함을 느꼈다.

『북한지역연구』이번 호를 회령 편으로 엮으면서 용정을 덧붙여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니 그때의 일이 다시 생각나면서 저절로 ‘참 적절하고 의미 있는 일 이네!’ 하였다.

용정의 현재 모습

중국의 다른 곳들도 그렇지만 용정은 근래 놀라게 변하고 있다. 필자가 용정을 처음 방문한 것은 1989년 겨울이었다. 한중수교 이전이라 복잡한 절차를 밟아 관계당국으로부터 방중허가를 취득한 다음에 먼저 홍콩으로 가서 별지에 찍힌 비자를 받았다. 상하이공항에 내려 입국수속을 마친 뒤 선양에 도착하여 일박하고 다음날 프로펠러 비행기로 연지로 향했다.

연지에 도착한 다음 날 용정을 방문했는데 그때의 용정에는 안수길의 『북간도』에서 읽은 일제 강점기의 모습이 많이 남아 있었다.

그 뒤 여러 차례 용정을 찾았는데 찾을 때마다 높은 건물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거리가 넓어지는 것을 보면서 감회가 새로워지곤 했다.

중국의 길림성 동부에는 연변조선족자치주가 있다. 소수민족자치구, 자치주, 자치현, 이런 것들은 중국의 소수민족 우대정책에 따라 설치된 것인데 소수민족 우대정책의 실체는 그 의도가 복잡하고 변화가 많다는 말을 듣고 있다.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처음에는 연길과 도문, 2개의 시와 6개의 현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때 용정은 현 가운데 하나였다. 그 뒤 현들이 시로 승격되어 6시 2현이 되었는데 용정도 시가 되었다.

용정의 인구는 25만 명으로 인구는 돈화, 연길에 이어 세 번째이지만 조선족의 비율은 72.4%(19만)으로 자치주에서 가장 높다. 주도(州都:주민정부 소재지)인 연길의 조선족 비율은 48.8%(20만)이다.

용정의 면적은 2,592km²이며 주내의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현급시(縣級市)이고 시의 청사는 하남가(河南街)에 있다.

백두산 동쪽 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용정은 동북쪽에 연길시와 도문시, 서남쪽에 화룡시, 서북쪽에 안도현을 두고 있다. 시의 가운데로 우리 귀에 익숙한 이름인 해란강이 흐르고 있다. 해란강은 두만강의 지류인데 동남쪽으로 두만강 본류를 너머로 가까이 보이는 곳이 바로 북한의 회



연변조선족자치주 행정구역(사진=위키백과)



함경북도 회령시와 연변조선족자치주 용정시는 두만강을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다. (사진=구글어스 필자 편집)



명동학교 옛터 기념관은 중국 지린성 룡징(용정) 명동촌에 있는 역사 유적지이다. 명동학교는 일제강점기에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민족교육을 위해 1908년 김약연 등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학교이다. (사진=동아일보)

북간도 용정남감리교회 사진, 1922년 부활절에 설립되어, 1년 만에 200명 교인으로 성장했다. (사진=옥성득 교수의 한국 기독교 역사)



OUR CONGREGATION AT RONG JUNG, NORTH KANDO
Started Easter Sunday 1922, and now numbers more than 200. A church building is badly needed here as the congregation meets in a rented building. Rong Jung is the capital city of North Kando.

령이다. 회령에서 두만강을 건너 오랑캐령을 넘어 자신과 명동촌을 지나면 바로 용정이다. 회령과 용정을 잇는 육로는 길회선(吉會線) 철로와 함께 중국과 북한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용정을 찾는 이들은 일송정, 용두레(용정지명기원지우물), 윤동주 기념물들을 전시하고 있는 대성중학교 옛 교사 등을 많이 찾는다. 용정은 윤동주와 관계가 깊은 곳으로 그는 용정 인근의 명동촌에서 출생해서 성장했다. 연전(연세대)을 거쳐 일본에서 유학생활을 하다가 체포되어 감옥에서 숨을 거두었는데 유골이 용정으로 돌아와 장례를 치렀다. 명동촌에 있는 복원된 그의 생가와 다니던 학교와 교회, 그리고 용정에 있는 그의 묘소를 찾는 발길은 지금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중국은 여러 해 전부터 윤동주가 ‘중국의 조선족 시인’임을 강조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앞에 나온 지명들을 품고 있는, 잘 알려진 가곡이 있다. ”일송정 푸른 솔은 늙어 늙어 갔어도, 한 줄기 해란강은 천년 두고 흐른다”로 시작되는 ”선구자”인데, ”선구자”의 다른 이름이 바로 ”용정의 노래”이다. 여기에 나오는, 강가에서 말 달리며 활을 쏘고 조국을 찾겠노라고 맹세하던 선구자가 독립군이라 하여 이 노래는 사람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으나 작사자와 작곡자의 일제말기 행적이 문제가 되고 그밖에도 여러 가지 시비가 있어 씁쓸한 맛을 주고 있는 노래이기도 하다.

용정은 안민가도(安民街道), 용문가도(龍門街道), 이원가도(梨園街道)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의 행정구역은 잘 알려진대로 향진제(鄉鎮制)인데 용정에는 2향 5진이 있다. 2향은 덕신향(德新鄉)과 백금향(白金鄉)이고, 5진은 개산屯진(開山屯鎮), 노두구진(老頭溝鎮), 삼합진(三合鎮) 동성용진(東盛涌鎮), 지신진(智新鎮)이다.

용정의 감리교회와 성결교회

자, 이제 우리의 관심사인 용정의 교회들에 대해 알아보자.

용정에는 용정감리교회와 용정성결교회가 있었다.

용정감리교회는 애창되는 찬송 ”부름 받아 나선 이 몸“(323장) 작사자인 이호운 목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친 교회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 교회에서 열린 이용도 목사의 부흥회에서 감화받고 협성신학교(현, 감리교신학대)에 지망했다고 한다. 필자는 방송 관계

로 당시의 정황을 그의 인척인 이호빈 목사(강남대학 설립자)를 통해 자세하게 들은 일이 있다.

용정 출신으로 『순애보』를 통해 잘 알려진 소설가 박계주도 이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술회한 일이 있다.

이 교회의 주소는 ‘만주국 간도 용정가 제2구’로 나오기도 하고, ‘용정가 북신구 역통로’로 기록된 곳도 있다.

용정성결교회는 용정으로 이주한 논산의 성결교인들에 의해 1923년에 설립되었다. 이 교회의 예배당은 문물보호단위로 지정되어 잘 보존되어 있다. 한동안 룡정조선족민속박물관으로 쓰였으나 지금은 비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붉은 벽돌 2층 건물 중앙에 가로로 ‘예배당’, 그 왼쪽에 세로로 ‘성결’, 오른쪽에 역시 세로로 ‘교회’라고 검게 음각된 돌이 자리잡고 있어 보는 이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용정성결교회 예배당과 관련하여 필자가 겪은 일

이 하나 있다. 3년 전에 논산의 한 성결교회에 가서 강연을 했는데 그때 그 교회는 곧 북중점경비전트립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용정에 가면 용정성결교회 예배당을 찾아보라고 하면서 요즘 중국의 기독교 박해가 심하니 조심하라고, 그저 버스 안에서 예배당 건물을 내다보면서 기도하고 떠나라고 당부하였다.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니 버스에서 내려서 예배당 앞에서 손을 잡고 기도를 하였다고 한다. 논산의 성결교인들이 세웠고 설립 100년이 되는 해여서 저절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분에게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입니다“라고 하였다.

옛 예배당이 이렇게 문물보호단위로 되어 있는 것은 심양의 서탑(西塔)교회 처음 건물이 하나 더 있다.



용정성결교회 예배당 전경. 건물 중앙에 가로로 ‘예배당’, 그 왼쪽에 세로로 ‘성결’, 오른쪽에 역시 세로로 ‘교회’라고 검게 음각된 돌이 자리잡고 있다. (사진=성결네트워크)

용정 중앙교회와 문재린 목사

용정 시내에는 중앙교회, 동산(東山)교회, 토성보(土城堡)교회, 이렇게 세 장로교회가 있었다. 동산교회와 토성보교회는 중앙 교회에서 설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앙교회는 북간도의 신앙운동뿐만 아니라 민족운동과 계몽운동에 있어서 이름 그대로 ‘중앙’에 자리잡고 이끌어 나간 교회였다.

안순영(安順永)·이응현(李應賢)·이화춘(李和春)·정재면(鄭載冕) 등이 용정



북간도 선교를 위해 거룻배를 타고 두만강을 건너고 있는 그리어슨 선교사 부부의 모습 (사진=고신뉴스)

에서 전도하며 1908년을 전후로 야소교서원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 것이 중앙교회의 시작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설립 당시에는 장로교인들과 감리교인들의 연합모임이었으나 장로교와 감리교의 선교 구역분할협정(교계예양)에서 간도가 장로교 선교 구역으로 결정되어 장로교 소속이 되었다. 1909년 함경도 선교에 힘쓰던 캐나다장로회의 그리어슨(R. G. Grierson) 선교사가 파송한 김계안 조사가 부임했을 때 교인은 17명이었는데 나중에는 평소에

4~5백 명, 특별집회가 있으면 5~6백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다. 1940년의 교인 숫자는 905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캐나다장로회의 바커(A. H. Barker), 푸트(W. R. Foote) 선교사 등도 중앙교회를 비롯한 북간도의 교회들을 순회하며 보살피고 지도하였다.

중앙교회는 1910년 예배당을 신축하였고 1912년 함경노회 소속이 되었다. 이듬해 파송 받은 김내범이 1914년에 장로로 장립되어 당회가 구성됨으로 중앙교회는 북간도의 첫 번째 조직교회가 되었다. 1917년 함북노회가 함경노회에서 분립하면서 제1회 함북노회가 중앙교회에서 개최되었다. 중앙교회는 1921년 간도노회에 속했다가, 1925년부터 동만노회 소속이 되었다.

중앙교회는 1918년에는 성서학원을 설립하였다. 중앙교회 여전도회를 중심으로 삼국부인전도회가 조직되었고, 전도대를 조직하여 북간도 일대를 순회하며 복음을 전파하였다. 1918년 박예현 목사가 부임했는데 그는 아버지 박정찬 목사와 같은 노회에서 목회하면서 재미있는 일화를 많이 남긴 분으로 잘 알려져 있다.

중앙교회는 영신소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야학교를 설립하여 교육에 크게 기여하였다. 중앙교회의 청년회는 매주 토요일 토론회와 강연회를 개최했으며, 면려청년회로 발전해서 1928년에 조직된 동만연합면려회를 주도했다. 중앙교회는 이렇게 다양하게, 그리고 폭 넓게 간도의 복음화사역을 이끌었다.

중앙교회에 대해 말할 때 문재린 목사를 빼놓을 수 없다. 문재린 목사는 용정에서 출생했는데 캐나다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중앙교회의 청빙을 받았다. 문재린 목사는 신학자인 문익환 목사와 문동환 목사의 부친인데, 문익환 목사의 딸인 문영금과 문

동환 목사의 딸인 문영미가 조부의 생애를 엮은 『기린갑이와 고만네의 꿈』을 2006년에 펴냈다.

문재린 목사는 그 책에 중앙교회 부임과 초기의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었다.

“내가 부임한 것은 1932년 8월이다. 그러나 나는 3년만 일하겠다는 약속 기한을 훌쩍 넘겨 1946년까지 용정 중앙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된다. 그리고 이 시절이야말로 내 인생의 황금시대였다.

목회를 시작한 나는 청년들과 노년들 사이의 긴장을 문제 삼지 않고 모두를 꼭 같이 섬겼다. 그저 하느님께 의지한다는 심정으로 목회를 했는데 6일 동안 설교를 준비하다가도 일요일 아침에 기도하다가 새롭게 영감이 떠오르면 그것으로 설교를 바꾸곤 했다. 새벽 기도회도 미리 준비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영감이 나오는 대로 말씀을 했다. 그러면 교인들한테 더 생생한 설교가 되곤 했다. (중략)

부임 1년 반이 지난 뒤 중앙교회는 옛 교회당을 헐고 벽돌로 된 150평짜리 예배당을 2층으로 지었다. 벽돌 쌓는 것은 중국인들이 했고 내가 현장을 감독했다. 건물의 도면도 내 손으로 직접 그린 덕분에 경비가 절약되었다.”

중앙교회는 1936년에 예배당 뒤의 대지 250평을 구입하여 80평 크기의 교육관을 지었다. 문재린 목사는 중앙교회의 역사[史略]를 직접 써서 교회의 머릿돌에 넣었는데 이 사략은 지금 용정시의 종교국에 보관되어 있다.

필자는 선교방송 기관에서 일하면서 1980년 초에, 중국 동북지역에서 일하던 교역자들을 여러분 초청하여 방송대담을 진행한 일이 있었다.

문재린 목사를 모신 것은 8월의 더운 날이었는데 그때 스튜디오에는 냉방시설이 없었다. 문 목사님이 부채질을 자주 하고 때로는 부채로 테이블을 탁탁 내려치기도 해서 애를 많이 먹었다. 그 대담 기록이 「월간목회」 1982년 6월호에 “중공선교자료집”이라는 이름의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한 부분을 여기에 옮긴다.

“내가 그 교회를 생명과 같이 생각했지요. 만주에 있는 교인들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어요. 해방 뒤에 공산당이 들어올 때도 '나는 이 곳을



용정중앙교회 예배당 전경과 성도들의 모습. (사진=한반도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

1960년대 서울 강북구 수유리 사택에 찍은 문재린 목사와 김신묵 사모의 모습. (사진=도서출판 삼인)



떠나지 않는다. 내 교회를 내가 지킨다’고 각오하고 떠나지를 않았습니
다. 일본 헌병대에 끌려가서 감옥에 들어 있었고 러시아군 사령부에 들
어가서 마지막으로 열다섯 사람을 남겨 시베리아로 데리고 간다고 할
때까지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수한다’라는 생각으로 떠나지 않으려고
하다가 끝내는 집사람이 너무 고생하는 것이 미안해서 하는 수 없이 남
한으로 나왔지요.”

일본 패전 이후 공산주의자들이 교회를 접수하면서 1946년 중앙교회는 폐
쇄되었다.

이권찬 목사에게서 듣는 용정 이야기

앞에서 말한 “중공선교자료집”에는 용정 동산교회 담임자였던 이권찬 목사
와의 대담기록도 수록되어 있다. 이권찬牧사는 용정의 은진중학을 졸업한 분
으로 1935년 동만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훈춘중앙교회에서 5년, 용정의
동산교회(東山敎會)에서 9년을 목회한 분이다.

이권찬 목사가 말한 당시 용정의 모습과 그곳의 여러 형편을 여기에 그대로
옮긴다.

“내가 평양 숭덕학교를 마치고 용정의 은진중학에 들어간 것은 아버
님(이병하 목사님)이 전도목사로 파송 받은 때였지요. 그때 16살인가
17살이었는데 은진중학의 교장은 캐나다 선교사인 부두일 목사님이었
고, 학감은 이태준 목사님이었습니다. 수학은 김필수 선생님, 물리 김이
환 선생님, 지리 박만원, 한문 이종식, 유씨 성을 가진 중국어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일본어 시간이 있었는데 학생인 제가 일본어를 가르쳤죠.

용정에는 학교가 여럿 있었는데 은진중학은 민족주의 중심이었고 영
신중학은 독립군 중심이었습니다. 동흥중학은 공산주의의 영향을 많
이 받았고 대성중학은 유교에서 경영했으니만큼 유교정신을 강조했지
요. 광명학교는 일본과 가까웠습니다. 명신여학교가 있었지요.

시가 모습을 보면 중심지 거리 좌우에는 상점들이 있었고 제일 좋은
곳은 일본 사람들이 총영사관으로 쓰고 있었는데 총영사관에서 30리
이내는 일본 중심의 정치였습니다. 거기서 더 나가면 해란강이 흐르고,
일송정이 있었고, 그 밑에 큰 공원이 있었는데 공원 안에 공안서(경찰
서)가 있고 그 동쪽에 선교사 주택이 5, 6동이 있었고, 아주 큰 병원인

제창병원이 있었고, 해관(세관)이 있었습니다. 해관장이 살던 집의 모습
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곳을 ‘영국덕’이라고 불렀지요. 주민의 8할은
한국 사람이고, 1할은 중국 사람이고, 나머지 1할은 일본 사람이었다
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과일철이 되면 과일이 참 풍성했어요. 학생 시절에 3원을 내면 수박
과 참외를 한 광주리씩 사서 학생 열댓 명이 실컷 먹고도 남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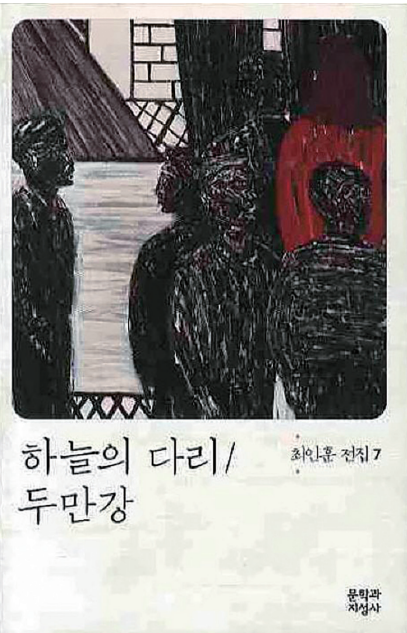
용정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는 중앙교회입니다. 그 다음이 동산
교회인데 제가 이성국 목사님의 후임으로 부임했습니다. 해란강 건너
에 김형룡 목사님이 담임하신 토성포교회가 있었습니다.”

나가며

용정 이야기를 하려면 끝이 없을 것이기에 여기에서 멈춰야 하겠다. 이 글을
쓰면서 ‘어떤 이야기를 빼고 어떤 이야기를 넣을 것일까?’ 많이 고민하였는데.
줄거 『기도가 흐르는 강물 3380리』(진리와 자유, 2010)와 『북중접경 기도하
며 걷다』(포앤박스, 2015)에는 용정 항목도 있고 회령 항목도 있으니 참고가
될 것이다.

한국오픈도어선교회가 발행하고 있는 「북한지역연구」는 이제 13호에 이르
고 있는데 북한이 아닌 중국의 지역이 들어가는 것은 용정이 처음이고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만큼 용정은 우리와 관계가 깊은 곳이다. 회령 건너편에
그런 곳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눈을 들어 용정쪽을 한 번 바라보았으면 좋
겠다. 

회령을 배경으로 한 문학작품



〈문학과 지성사 출간 최인훈 전집7에 수록된 소설 '두만강'〉

최인훈, 두만강 (1970)

소설 두만강은 최인훈 작가가 1970년 발표한 작품이다. 이 작품이 발표된 시기는 1970년이지만, 실제로는 1952년부터 쓰여진 글이라고 한다. 아직 최인훈이 등단하기도 전, 한국전쟁이 한창이었던 그때부터 고향을 배경으로 쓰여진, 진정한 의미의 최인훈의 첫 작품으로 볼 수 있는 소설이다.

이 소설의 배경은 일제시대 말기인 1943~44년의 두만강 인근 H읍이다. 이니셜로 표기하기는 했지만, 여기서 H읍은 누가 보아도 최인훈의 고향인 함경도 회령이다. 이 소설에는 일제 강점기 말기 당시 회령의 상황이 펼쳐져 있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조선인은 거의 일본인화되어, 일본식으로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한다. 소설의 주인공은 근대식 교육을 받은 젊은 여성인 현경설과 소학교를 다니는 아홉살 어린 학생 한동철이다. 일제강점기가 배경이지만 독립운동이나 일제 말기 강

압적인 통치와 수탈로 인한 어려움 등은 이 소설에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소설은 연애 감정과 H읍 사람들의 소소한 사건들에 집중한다. 이러한 이 소설의 전개는 장기간의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무기력해진 동시에 일제에 저항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된 비련에 대해 묘사한다.

“H읍 사람들의 시국에 대한 피동적인 태도는 결코 이방 민족에 대한 의식적 불만의 표현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면 무엇일까? 그것은 무서운 게으름의 표현이었다. 그것은 우리들은 우리 운명의 주인공이 아니라고 오랜 세월 놀리면서 체념한 사람들의 무기력의 표현이다.” 〈문학과 지성사 최인훈 전집7, 300쪽〉

이렇듯 이 소설은 항일 무장투쟁이 격렬하게 이루어지고, 일본의 전쟁에 패색이 짙어지고, 일본의 강압적인 착취가 국토를 어지럽히던 그 시대상을 배제함으로써 역설적으로 그 시대의 이면을 드러내고 독자에게 여러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있다. 일제 강점기라는 시기에 얽매이지 않는다면, 소설에서 묘사하는 당시 회령 주민들이 보인 무기력과 체념은 강력한 사상적, 사회적 통제에 적응하며 살아야만 하는 북한 주민의 모습과도 겹쳐 보이기도 한다.

이 소설이 최인훈이 실제 경험하고 관찰했던 당시 회령의 일상을 표현한 것으로 본다면, 지역 연구 차원에서도 여러 재미있는 요소들을 여럿 관찰할 수 있다. 예나 지금이나 회령의 주요 산업 기관 중 하나인 제지 공장, 국경도시로서 만주 개발 등을 위해 유입된 많은 수의 일본인 거주자, 회령을 중심으로 사역했던 캐나다 선교사(주로 캐나다 장로교회)가 태평양 전쟁 발발로 쫓겨가고 남은 학교나 돌집, 두만강을 이 편과 저 편을 사이에 두고 일제에 저항했던 독립운동에 은근한 긴장감 등, 이 소설에서 묘사하는 당시 회령의 모습은 우리에게 회령의 역사와 지정학적 의미에 대해서 돌아보게 한다.

프롤로그에서 작가는 소설 속 인물들을 ‘아지랑이’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프롤로그 말미에 작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무쇠와 같은 사람들은 다 어디 갔는가? 그들은 아지랑이의 저편, 결코 속지 않는 그들의 무쇠 심장이 인도하는 곳, 깎아지른 바위산 꼭대기에서 진정한 봄을 기다리고 있다.”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일본 패망이 3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조차 마치 현재의 일상이 계속될 것처럼 생활한다. 그렇지만 작가는 프롤로그에서 소설 너머 등장하지 않았던, 아지랑이의 저편에서 진정한 봄을 맞을 무쇠와 같은 사람을 꿈꾼다. 소설이 출간될 당시에는 이미 일제 강점기가 끝난 시점이었던 만큼, 작가의 말은 어떤 시대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었을 것이다. 작가의 꿈이 여전히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이유이다. 🐸

회령 출신의 유명인



목사, 독립운동가 김약연(사진출처: 위키백과)

김약연

규암 김약연(1868~1942)은 함경도 회령 출신의 유학자이자 교육가·독립운동가로, 『맹자』에 밝은 한학자였다. 1899년 간도로 이주해 신분과 빈부 차별이 없는 이상 공동체인 명동촌을 개척하고, 1901년 규암재를 시작으로 명동학교·명동중학교·명동여학교 등을 설립해 북간도 한인 사회의 민족교육을 이끌었다.

기독교를 수용한 그는 신앙과 교육, 공동체를 결합한 민족운동을 전개했으며, 공동노동과 공동분배를 실천하는 명동촌과 여성 교육을 통해 사회 변화를 이끌었다. 1913년 간민회를 조직해 한인 자치를 시도했고, 이후에도 민족교육과 항일운동을 지속하며 무오독립선언 참여, 북간도 3·1운동 주도, 독립군 지원에 앞장섰다.

말년에는 목사로서 교육과 전도를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했고, 1942년 별세했으며, 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영화 제작자, 독립운동가 나운규(사진출처: 위키백과)

나운규

나운규(1902~1937)는 회령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신흥학교와 명동중학에서 수학했으나, 일제의 탄압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만주를 떠돌며 독립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어 1년 6개월 복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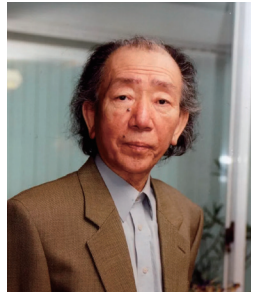
1924년 출감 후 영화계에 들어와 배우로 두각을 나타냈고, 이후 각본·감독·주연을 겸하며 「아리랑」 등 민족 저항영화를 통해 큰 명성을 얻었다. 나운규프로덕션을 설립해 문예영화를 제작했으나 여러 부침을 겪었고, 1930년대 후반 발성영화로 재기했으나 폐결핵으로 요절했다. 약 15년간 29편을 제작·26편에 출연하며 식민지 현실에 대한 저항과 민중적 정서를 담아낸 한국 민족영화의 선구자로 평가된다.

최인훈

최인훈(1936~2018)은 함경북도 회령 출생으로, 6·25전쟁 중 월남해 서울 대 법대에 진학했으나 중퇴하고 군 장교로 복무하며 문학 활동을 시작했다. 1960년 『광장』으로 한국 문학사에 큰 반향을 일으켜 대표 작가가 되었고, 이후 여러 소설을 발표했다.

1970년대 이후에는 희곡 창작에 전념하며 한국 신화를 바탕으로 인간과 사회의 본질을 탐구했으며, 『달아 달아 밝은 달아』로 강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미국 체류 기간에는 『광장』을 개작했고, 1977~2001년 서울예대 교수로 재직했다.

자전소설 『화두』(1994)로 자신의 삶과 문학 세계를 정리했으며, 2018년 별세 후 금관문화훈장이 추서되었다.



문학가, 교수 최인훈(사진출처: 위키백과)

최옥자

최옥자(1919~2019)는 회령에서 태어나 서울로 이주해 성장한 대한민국의 교육자이자 의사, 목사이다. 일본 도호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해방 후 남편 주영하와 함께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 1947년 서울여자학원을 공동 설립했다.

이후 수도여자사범대학과 그 부속 고등학교를 설립·확장하며 학장과 교장을 역임했고, 수도여자사범대학을 4년제 대학으로 승격시키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국여성크리스천클럽을 창립했고, 60세 이후 신학을 공부해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뒤 세종대학교 학내교회 애지헌을 설립해 목회 활동을 했다. 평생 여성 교육, 문화 발전, 신앙 활동에 헌신했다.



목사, 의사, 교육자 최옥자(사진출처: 세종대)

이순재

이순재(1934~2025)는 회령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만주와 서울을 오가며 성장했고, 이후 대부분의 삶을 서울에서 보냈다.

유복했던 유년기를 지나 가세가 기울며 힘든 학창 시절을 보냈고, 한국전쟁 발발 당시 고등학생으로 피난을 경험했다.

서울대학교 철학과에 진학한 뒤 연극과 영화에 매료되어 배우의 길을 선택했다.



이순재(사진출처: 위키백과)

이후 연기 활동과 함께 정치에도 참여해 보수 정당 소속으로 제14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정치적 입장을 넘어 다른 성향 정치인의 후원회장을 맡아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전 국회의원, 북한인권운동가 지성호(사진출처:뉴스1)

지성호

지성호는 1982년 함경북도 회령의 탄광촌에서 태어났으며, 1996년 고난의 행군 시기 석탄을 훔치다 사고로 왼손과 왼쪽 다리를 잃어 중증 장애인이 되었다. 2006년 목발을 짚고 탈북해 대한민국에 정착했으며, 현재 의수와 의족을 사용하고 있다.

2010년 북한인권단체 NAUH를 설립해 탈북민 구출과 인권운동에 나섰고, 2018년 미국 대통령 국정연설에 참석해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렸다. 이후 정치에 진출해 2020년 총선에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당선되었으며, 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지사를 지낸 탈북민 출신 북한 인권운동가이자 정치인이다.



왼쪽부터 김정일, 김일성, 김정숙(사진출처:뉴스1)

김정숙

김정숙은 김일성의 부인이자 김정일의 생모로, 북한에서 ‘항일의 여성영웅’이자 ‘혁명의 어머니’로 우상화된 인물이다. 1917년 함경북도 회령의 빈농 가정에서 태어나 중국으로 이주했으며, 항일 유격대와 공산당 활동을 통해 김일성과 인연을 맺었다.

1941년 김정일을 낳아 김일성의 공식 배우자가 되었고, 이후 자녀를 더 두었으나 1949년 출산 중 과다 출혈로 31세에 사망했다.

사망 경위에는 논란이 있으나 북한은 이를 은폐하고 헌신적 혁명가로 미화했다. 사후 김정숙은 ‘백두산 혈통’의 핵심 인물로 신격화되어, 북한에서 김정숙군 등 지명이 남고 ‘영원한 국모’로 추앙되고 있다. 🐟

회령의 대표 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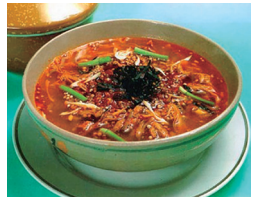
회령단고기국

회령단고기국은 함경북도 회령 지방에서 예로부터 즐겨 먹어 온 대표적인 향토 음식이자 여름철 보양식이다.

다른 지역의 단고기국과 달리 된장이나 간장을 사용하지 않고 소금물에 단고기를 푹 삶은 뒤, 삶은 고기를 잘게 찢어 기름과 고춧가루, 방아풀, 들깨 등을 넣은 양념장으로 무쳐 간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준비한 고기를 가마목에 덮힌 대접에 담고 펄펄 끓는 맑은 국물을 부어 뜨겁게 내어 먹었다.

과거 회령 시내에는 단고기국집이 여러 곳 있었으며, 집에 손님이 오면 이곳으로 데려가 대접할 만큼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여겨진다.



회령단고기국(사진출처: LampCook)

회령식 만두전골

회령식 만두전골은 북회령 지역을 대표하는 이북식 전골 음식으로, 손두부와 속이 꽉 찬 만두, 그리고 씹셈하면서 깊은 맛의 육수가 어우러진 담백한 요리이다.

간수를 적게 넣어 만든 부드러운 손두부를 으깨 만두소에 넣고 돼지고기, 숙주, 김치, 참깨 등을 더해 포슬포슬하면서도 고소한 맛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만두는 보자기를 싸듯 큼직하게 빗어 쫄깃한 만두피 속에 촉촉한 소가 가득 차 있으며, 무와 한우 양지를 넣고 오래 끓인 육수에 담겨 깊고 은은한 맛을 낸다.

전골에는 당면 대신 숙주 등 각종 나물이 풍성하게 들어가 아삭한 식감을 더하고, 버섯을 함께 넣어 끓이기도 한다.

전반적으로 맵지 않고 담백해 후추를 넉넉히 뿌려 먹는 것이 일반적이며, 쇠박지나 물김치, 찐지 같은 소박한 밑반찬과 잘 어울리는 것이 회령식 만두전골의 매력이다.



회령식만두전골(사진출처: 네이버블로그 Tasting Voyage)

떡호박송편



호박송편(사진출처: 농촌여성신문)

회령시 떡호박송편은 함경북도 회령시를 대표하는 지방 명요리로, 떡호박을 이용해 만든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멥쌀가루에 떡호박을 말려 가루로 내거나 찌서 으갠 것을 섞어 반죽해 일반 송편보다 촉촉하고 부드러우며, 호박 특유의 은은한 단맛이 살아 있다. 반죽은 호박 본연의 고운 노란빛을 띠어 시각적으로도 아름답고, 식감은 쫄깃하면서도 부드럽다.

송편의 모양은 지역에 따라 다양한데, 회령의 떡호박송편은 둥글거나 작은 호박을 본뜬 형태로 빚는 경우도 있다. 속에는 깨, 콩, 팥, 밤 등 전통적인 송편 소를 넣으며, 솔잎을 깔고 찌는 방식으로 만들어 솔잎 향이 배어들어 풍미를 더하고 떡이 서로 붙는 것을 막는다.

이러한 독특한 맛과 전통성을 인정받아 회령시 떡호박송편은 2019년 북한에서 '지방명요리'로 등록되었다.

회령 백살구



회령 백살구 제품들(사진출처: SPN 서울평양뉴스)

북한 함경북도 회령시는 예로부터 백살구로 유명하다. 회령 백살구는 추위에 견디는 힘이 강한 살구나무 품종으로, 나무의 원대는 거무스름한 잿빛이 도는 붉은 밤색을 띤다. 묵은 가지는 진한 붉은 밤색에 누런 얼룩점이 있고 윤기가 나며, 햇가지는 누런빛이 도는 보라색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해마다 4월 하순쯤 흰색 꽃이 피고, 7월 상순에서 중순 사이에 열매를 맺는다. 열매는 한 알당 약 60g 정도로 비교적 크며, 껍질은 희누른색이고 햇빛을 많이 받은 면은 연붉은색을 띤다.

과육은 연한 누런색으로 물기가 많고 단맛이 풍부한 반면 신맛은 적다. 씨의 핵은 크고 납적한 둥근 모양으로 약재로 활용되며, 회령시 전체 과일 생산량 가운데 백살구가 90% 이상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회령시에서는 시내 주변의 낮은 산과 들의 골짜기를 따라 수백 정보 규모의 과수원을 조성해 봄이면 하얀 꽃이 만발한 풍경을, 여름이면 풍성한 수확의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고 선전한다. 수확한 백살구는 매년 가공되어 영양가 높은 당과류와 음료, 주류, 의약품의 원료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역사성과 지역적 가치를 인정받아 북한 민족유산보호국은 회령 백살구를 지방 비물질문화유산, 즉 무형문화재로 등록했다. 

회령의 사람 사는 이야기

1.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함경북도 회령시 유선동에 살다가 2012년에 한국에 입국한 ○○○입니다.

2. 사시던 지역 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석탄과 같은 광물자원이 풍부하고 백살구와 사과배가 유명한 국경도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유선동의 탄광 지역에 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계림탄광에서 일하셨습니다. 저희 유선동에는 계림탄광 외에도 유선탄광이 유명한데, 유선탄광은 군에서 관리했고 계림탄광은 지방에서 관리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공장이 있었습니다. 담배공장, 화장품공장, 제지공장 등이 있었죠. 하지만 생산 원료가 부족해서 정상적인 생산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공장에 출근해도 실제 생산보다는 도로 건설 같은 각종 동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고향을 생각하면 곳곳에 피었던 백살구꽃이 생각납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아름다웠습니다. 회령에서는 백살구나 사과배를 많이 재배했는데 과실이 탐스럽고 향긋했습니다. 백살구가 섯노랄게 익을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냥도 먹고 통조림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배고플때에는 새파랄더라도 따서 사카린에 통조림을 해서 먹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다른 고장보다는 살기 좋은 곳이 회령이었던 것 같습니다.



맛이 좋고 혈관 건강에 좋은 백살구

3. 회령은 국경의 관문도시로 알려져 있다보니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한 편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활발했습니다. 고난의 행군 이전부터 중국 화교들이 회령 시장에 와서 장사도 많이 했습니다. 주로 친척 방문 등의 형식으로 와서 음식도 팔고 옷도 팔았습니다. 저희도 중국에 살던 친척들이 회령에 와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경제 사정이 지금보다 훨씬 나았고, 비교적 먹고 살 만했습니다.

4. 지리적 특성 때문에 회령에서 탈북한 주민도 많고 비사회주의 활동도 활발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경험하신 바로는 어떠셨나요?

제가 살던 시기에는 정말 탈북자가 많았습니다. 과장해서 말하면 한 집 걸러 한 집은 탈북했다고 해도 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생활이 어려웠고 중국과 국경이 가까웠기 때문에 탈북을 시도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저도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 해서 여러 차례 탈북을 했었습니다. 소위 비사회주의 활동도 많았습니다. 특히 국경지역이다 보니 밀수가 활발했습니다. 골동품 밀수도 있었고 그 외의 물품 거래도 많았습니다. 저는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일부에서는 마약 거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5. 회령은 김정숙의 고향으로 유명한데 회령에 거주하실 때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회령 오산정에 위치한 김정숙 동상

지금 생각하면 특별한 의미가 없지만 당시에는 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김정숙 동상을 자주 봤습니다. 모자를 쓰고 군복을 입은 채 꽃다발을 들고 있는 김정숙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동상 근처에는 우물도 있어서 지나가다가 물을 마시곤 했습니다.

당시 주민들은 결혼식을 하면 신랑은 양복을 입고 신부는 한복을 입은 채 동상에 참배하러 갔습니다. 학생들도 단체로 자주 방문했습니다. 중요한 장소이다 보니 항상 군인들이 경비를 서고 있었습니다. 김정숙의 고향에 산다는 것이 저에게는 어떤 자부심이자 긍지였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 주민들이 부러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6. 탄광 지역에 사셨다고 하셨는데 탄광 환경은 어땠나요?

매우 위험했습니다. 아침에 갱도에 들어가 하루 종일 일하고 나오면 온몸이 탄가루로 새까맸습니다. 사고가 자주 발생했기 때문에 인부들이 퇴근하면서 "오늘도 살아 나왔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갱도에서 발파 사고가 나서 6명 정도 사상자가 발생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발파 파편에 사고를 당해 심한 화상을 입으셨습니다. 다행히 탄광 노동자는 국가 차원에서 중요 인력으로 분류되어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이 힘들고 중요해서인지 평소 배급도 잘 주는 편이었습니다.

7. 탄광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배치되었습니까?

아무래도 일이 힘들다 보니 배치받는 사람들 중에는 힘 좀 쓰는 제대군인이거나 교화소에 수감되었다가 풀려난 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몇몇 탄광은 국군 포로 같은 성분이 나쁜 사람들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덕천 탄광이나 세천 탄광 같은 곳이 그러했는데, 세천탄광은 가장 힘들고 위험한 탄광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지역이나 사업장 배치는 개인의 선택이 아닌지라 한 번 배치되면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8. 고난의 행군을 겪으셨는데 사시던 지역도 어려움이 컸나요?

정말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김일성이 사망하기 전부터 이미 배급이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사망 이후에는 배급이 거의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 산에 올라가 풀뿌리와 나무껍질까지 먹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둑질도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굶어 죽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남성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영양실조 환자도 흔했고 마을에는 장례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분위기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침울하고 스산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제가 살던 마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발파용 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채굴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배급도 나오지 않고 채굴 자재도 없다 보니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일부 주민들은 방치된 갱도에 몰래 들어가 석탄을 캐서 식량과 바꾸기도 했습니다. 걸리면 위험할 뿐 아니라 갱도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었지만,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았습니다.

9. 회령은 지리적으로도 북쪽에 있다보니 겨울이 특히 지내시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매우 추웠습니다. 수돗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강 얼음을 깨고 빨래를 해야 했습니다. 제 고향은 탄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행군 이후에는 불을 댈 석탄이 부족해서 어머니께서 30~40리나 지계를 매고 산에 들어가 나무를 해 와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집안의 물이 얼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해 두꺼운 옷을 입고 이불을 덮은 채 겨울을 보냈습니다.

10. 주민들 중에 종교나 미신 행위 관련 이야기나 활동을 보거나 들은 적은 있으신가요?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교회, 성경, 예수님이라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놀라거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느님 맙소사"라는 말을 하는 것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의외로 점을 보는 행위는 비교적 관대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종교 활동은 엄격하게 단속했지만, 점술은 지금보다 훨씬 느슨하게 관리되었습니다. 지금은 미신 활동도 훨씬 엄하게 처벌한다고 합니다.

11. 전거리교회소나 22호 관리소에 대해서 들으신 것이 있습니까?



전거리 교회소 위성사진 (사진=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21 갈무리)

제 동생이 전거리 교회소에 수감되었었습니다. 5년 형을 받았는데 감사하게도 3년 만에 나올 수 있습니다. 노동 강도가 매우 높고 식사는 형편없다고 했습니다. 대부분 영양실조에 시달렸고 장기 수감자의 경우 살아서 출소하기 어려웠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동생 살려야 한다고 면회를 가서 먹을 것을 넣어주어야 한다고 했고, 저도 동생을 살리기 위해 가족에게 송금했었습니다. 그 덕분에 그래도 동생은 죽지 않고 살아 나오긴 했지만, 석방되었을 당시

동생의 몸 상태는 영양실조로 허약 걸려서 말이 아니었습니다.

22호 관리소는 어디에 있다는 정도는 알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는 완전한 폐쇄구역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관리소 내부 상황을 거의 알 수 없습니다. 누가 수용되어 있는지,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철저히 비밀로 관리되었습니다. 다만 관리소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12. 실제로 주변에 추방이나 강제 이주, 공개 처형 등의 처벌을 받은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 친구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큰 트럭이 와서 그 집 사람들과 집안 살림을 강제로 모두 실어 나르는 것이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옛날에 할아버지가 지주였어서 토대가 좋지 않았는데 그것이 추방의 이유가 아닌가 하는 말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추방을 했을지, 아니면 모종의 다른 사건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

습니다. 이런 종류의 일은 구체적으로 알수도 없고, 알려고 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공개 처형도 있었습니다. 전기선(구리)을 훔치거나 옥수수를 훔친 사람을 본보기로 강변에다가 사람을 모아놓고 공개 총살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사형에 해당할 정도의 범치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주민들에게 공포심과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13. 최근 회령 소식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현재 회령 주민들의 생활은 어떻다고 들으셨습니까?

가끔 듣기는 합니다. 하지만 점점 연락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보위부 단속이 심해졌고 전화도 도청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년 전 가족에게 돈을 보냈는데 경제 사정이 나빠지다 보니 브로커들이 수수료를 절반 가까이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생활 환경은 과거보다는 나아졌지만 근본적인 개선은 없다고 합니다. 국경이 철저히 봉쇄되면서 주민들의 이동과 경제 활동이 크게 제한되었습니다. 배급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저희 가족들의 모습을 미디어로 전달 받았는데,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14. 고향을 위해 평소에 어떤 기도를 하시나요? 또 어떤 기도를 부탁하고 싶으십니까?

먼저는 그곳 사람들이 살 궁리가 마련되도록 기도하곤 합니다. 통일도 소망하지만 먼저 사람이 살 만해야 할텐데 너무 통제가 많고 살 궁리를 막아놓아서 힘들다고 합니다. 배급은 여전히 형편없는데 소토지 밭도 뺏는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개방이 되어서 장사라도 원활하게 하면 좋으련만 싶습니다. 또 통일 이전이라도 가족들이 자유롭게 연락하고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회령시 주민들 모습 (사진=시사주간)

언론에 비친 회령

최근 1년간 언론을 통해 보도된 회령 소식

‘82그루빠’ 단속 강화... 학생들은 되레 단속원 ‘악 올리기’에 신나



연말을 맞아 북한 전역에서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행위 단속 조직인 ‘82그루빠’의 단속이 대폭 강화된 가운데, 일부 학생·청년층이 이를 우회적으로 조롱하며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함경북도 회령·청진 등지에서 고급중학교 학생들은 이어폰을 끼고 달아나는 척하며 단속원의 시선을 끈 뒤, 실제로는 단속될 물건이 없어 검열만 헛수로 만들고 뒤에서 이를 즐기고 있다. 단속원들은 불

쾌함을 느끼지만 처벌 근거가 없어 대응하지 못하고, 일부는 단속에 회의감까지 느끼는 분위기다.

이는 과거처럼 단속을 두려워하던 모습과 달리, 젊은 세대가 처벌 기준을 인지한 상태에서 권위를 겉으로만 인정하며 우회적 저항을 보이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한편 82그루빠는 불순녹화물 단속을 강화해 주민 세대와 길거리에서 하루 수차례 강도 높은 검열을 벌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젊은 층의 반발 심리가 더욱 커지고 있어 과도한 통제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참조: 데일리NK, 2025.12.15.)

자택 침입 강도 기승부리자 北 돈주들 속에서 금고 수요 급증

북한 함경북도와 양강도 등 일부 지역에서 자택 침입 강도 사건이 급증하면서, 현금을 집에 보관하는 돈주(부유층)들 사이에서 금고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최근에는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부유층 주택을 노리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으나, 검거 소식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기존에 현금을 보관하던 이불장 껍짝은 보안에 취약해 강도 피해 우려가 커지

자, 돈주들은 중국산 금고를 껍짝 안에 넣는 이중 보안 방식을 택하고 있다. 금고는 비밀번호 설정이 가능하고 무게가 무거워 바로 들고 가기 어려워 신고할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이다.

금고 가격은 3000~2만 위안으로 일반 주민에게는 부담되지만 부유층에게는 감당 가능한 수준이며, 이로 인해 밀수업자들의 새로운 수입원으로도 떠오르고 있다.

한편, 자위 경비의 유명무실화와 전력난으로 작동하지 않는 CCTV, 그리고 은행에 대한 낮은 신뢰 역시 현금의 가정 내 보관과 금고 수요 증가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참조: 데일리NK, 2025.12.10.)

꽃제비 늘어나는데 시설은 열악하고 당국은 단속 지시만 되풀이

북한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꽃제비(거리 유랑 아동) 문제가 다시 악화되고 있다. 2025년 여름 이후 시장과 역전 주변에서 꽃제비 수가 눈에 띄게 늘었으며, 중학생이 가장 많고 남자아이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주민들은 이를 “이제는 익숙한 풍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증가 원인은 심각한 식량난과 가정 붕괴로, 부모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어 아이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당국은 문제를 사회적 위기로 인식하지 않고, 단속 지시만 반복하는 보여주기식 대응에 그치고 있다.

회령에 있는 꽃제비 수용·보호시설은 한 곳뿐이며, 환경은 교화소와 다를 것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 식사와 위생이 매우 나쁘고 강제 노동도 있어, 아이들의 재이탈률이 거의 100%에 가깝다. 운영 책임은 인민위원회에 있으나, 실제로는 주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돼 불만이 크다. 간부들조차 문제에 무감각해진 상황에서, 식량난·가족 해체·부실한 시설·형식적 단속이 맞물린 구조적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 안전망 붕괴의 신호라는 지적이 나온다.

(참조: 데일리NK, 2025.11.21.)



송금 브로커들 단속 피하러 ‘방문 판매원’으로 위장해 활동



국경 지역에서 송금 브로커들이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방문 판매원으로 위장해 활동하고 있다. 회령시를 비롯한 함경북도와 양강도 일대에서 보위부가 중국 휴대전화 사용자를 집중 단속하자, 브로커들은 사탕·속옷 등 생필품을 팔거나 물물 교환하는 상인처럼 행동하며 탈북민 가족들에게 접근하고 있다.

중국 휴대전화 이용은 적발 시 중형이나 사형까지 이를 수 있을 만큼 위험하지만, 방문 판매원은 감시·신고 대상에서 비교적 제외되는 점을 이용해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다. 단속이 강화된 외곽 지역일수록 이러한 위장 수법이 필수적이며,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생계를 위해 새로운 방식의 송금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참조: 데일리NK, 2025.11.28.)

북한 돈주들 ‘샤넬’ 화장품·향수 쓴다… 인기·수요 점점 높아져



북한 함경북도 회령·청진 등 일부 지역의 부유층(돈주) 사이에서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의 화장품과 향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과거 선호되던 한국산 화장품 대신, 립스틱·쿠션·향수가 특히 인기다. 샤넬 제품은 자연스러운 화장 효과와 지속력 있는 향으로 평가받으며, 부의 과시 수단으로도 소비되고 있다. 한글 표기 제품은 단속이 강하지만 외국어 표기 제품은 비교적 통관이 쉬워

외국 브랜드 반입과 유통이 늘었다.

국경 도시 회령에서는 대중 무역과 화교를 통한 반입이 활발하며, 초기에는 선물용 소량 반입이었으나 수요 증가로 상업적 유통이 확대됐다. 양강도 혜산에서도 국가 밀수 루트를 통해 유입이 늘고 있다. 가격은 쿠션 약 1,000위안, 향수 750~1,250위안으로 매우 고가이며 일반 주민은 접근이 어렵다.

한편 중국산 모조품도 정품과 함께 유통되고 있으며, 가격 차이(2~3배)로 인해 모조품에 대한 거부감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참조: 데일리NK, 2025.11.21.)

과거 중국 휴대전화 사용 이력만으로도 가택수색… “밤잠 설친다”

북한 국경 지역 보위부가 과거 중국 휴대전화 사용 이력이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불시 가택수색을 확대하고 있다. 함경북도 회령·온성·무산을 비롯해 평안북도와 양강도까지 확산됐으며, 한밤중 예고 없는 수색이 잦아 주민들의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현행 적발 시에만 수색이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과거 사용 이력만으로도 가택수색 대상이 된다. 실제로 중국 휴대전화 사용으로 과거 처벌을 받은 뒤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주민이 포함된 세대도 수색을 당했다.

보위부는 외부 정보 유입 차단과 통제력 강화를 명분으로 ‘소탕전’을 벌이고 있으나, 이로 인해 주민 사회 전반에 불안과 위축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수색 과정에서 중국 휴대전화 소지 주민이 체포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주민들은 보위원의 야간 방문 자체를 정치범 연행의 신호로 받아들이며, 휴대전화를 숨기거나 폐기하는 등 대비에 나서고 있다.

(참조: 데일리NK, 2025.11.07.)

환율 급등락에 웃는 환전상들… 장마당 상인들은 적자에 한숨

북한 회령시에서 환율 급등락을 이용해 환전상(돈데꼬)들이 큰 시세 차익을 올린 반면, 장마당 소매상인들과 일반 주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위안 환율이 한 달 사이 6,000원대에서 5,000원 이하로 급락했다가 다시 오르는 등 변동



성이 커지자, 일부 환전상들은 위안 매도·재매입을 반복하며 수만 위안의 수익을 거뒀다. 환전상들이 평소 1위안당 수십 원 수준이던 차익을 최근에는 수백 원 단위로 벌 수 있게 된 것이다. 반면 장마당 소매상인들은 물건을 외화로 들여와 내화로 판매하는 구조 속에서 환율 불안정으로 누적 적자를 보고 있다. 환율에 맞춰 가격을 올리면 곧바로 매출이 줄어들어 대응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외화를 보유한 돈주와 환전상들은 자산을 불려가는 반면, 소매상인과 일반 주민들은 생계가 더욱 악화되며 북한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조:데일리NK, 2025.09.29.)

안전원들 ‘겨울나기 준비’ 돈 요구…액수도 줄고 태도도 변해



2025년도 겨울을 앞두고 북한 국경 지역에서 일부 안전원들이 ‘겨울나기 준비’를 명목으로 주민들에게 금전을 요구하고 있으나, 예년보다 요구 금액이 줄고 태도도 한층 조심스러워진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개인 밀수 목인 대가 등으로 고액의 뇌물을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관행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많아야 500위안 수준으로 낮아졌고, 협박

대신 사정을 설명하며 정중하게 부탁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주민들의 경제 사정 악화와 함께 당국의 부정부패 단속 강화로 인한 처벌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민들 사이에서는 국가가 안전원들의 생활 보장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뇌물만 단속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며, 이러한 조심스러운 태도가 지속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참조:데일리NK, 2025.09.19.) 🐙

북한지역연구 호별 자료 목록

2023년 여름, 창간호, 평안북도 신의주

- 권두언 - 북한지역연구지 발간의 의의와 연구 방향성, 김성태 이사장
- 북중 관문 도시로서 신의주의 특징과 도시 구조, 편집부
- 신의주의 교회를 찾아서, 편집부
- 단동-신의주 초국경도시협력에 대한 단상, 예동근 (부경대)
- 북중 접경지역의 두 도시 개발 이야기, 김성배 (숭실대)
- 신교를 위한 신의주 연구, 하종연 (숭실대)
- 신의주의 경제 그리고 미래, 전병길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
- 북한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신의주, 강동원 (동아대)

2023년 가을, 통권 2호, 강원도 원산

- 권두언 -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며, 그분의 열매는 영속적이다. 김성태 이사장
- 해양관광도시 원산의 특성과 공간구조, 편집부
- 원산의 교회를 찾아서, 편집부
- 관광도시 원산의 과거와 현재, 진희권 (부산대)
- ‘강원도청산과 원산의 기업, 전병길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
- 신 북을선교의 길, 북한 원산지역에서 찾다, 김병욱 (북한개발연구소)
- 원산, 그리고 원산대부흥, 김철성 (목원대)
- 나의 아버지 조희렴 목사, 원산의 순교자, 조용규 (조희렴 목사 차남, 전 국회의원)

2023년 겨울, 통권 3호, 라선특별시

- 권두언 -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하나님의 구속 역사, 김성태 이사장
- 북-중-러 국경도시 라선의 공간구조, 편집부
- 라선(경흥, 경원, 온성)의 교회를 찾아서, 편집부
- 라진 하산 프로젝트 와 북러협력, 박종수 (전 러시아 공사)
- 조선장로교의 불라디보스톡 선교, 정호성 (전 블라디보스톡 선교사)
- 사회주의국가 경제특구에서의 비즈니스선교, 이찬욱(BA 총무)
- 라선의 산업과 시장, 김병욱 (북한개발연구소)
- 해방후 북한의 동이 기독교와 라선의 교회들, 안희열(침신대)

2024년 봄, 통권 4호, 개성특별시

- 권두언 - 개성지역 교회의 신앙적 유산, 김성태 이사장
- 신해방지구 접경 도시 개성의 발전과 공간구조, 편집부
- 개성의 교회를 찾아서, 편집부
- 만남과 교류의 장, 접촉 시대로서 개성공단의 공간성, 백일순 (서울대)
- 개성공단에서 일했던 남북한 근로자들은 어떻게 친해졌나?, 김유연(한반도평화연구원)
- 개성시 공간구조와 공간 격차, 이시효 (숭실대)
- 소말의 연둑에서, 개성공업지구와 개성협력병원, 김정웅(전 개성병원 원장)
- 남강리교의 개성 선교와 윤치호의 모범촌 구성, 김명숙(역사학 박사)
- 개성의 문화유산 연구, 박성진(문화재청)
- 박완서 문학에 나타난 개성의 로컬리티, 편집부

2024년 여름, 통권 5호, 양강도 혜산

- 권두언 - 여호와 이레와 낚시의 하나님, 김성태 이사장
- 북-중 국경도시 혜산의 공간구조와 초국경 협력, 편집부
- 혜산의 성결교회, 이한복 (서울신대)
- 혜산시 기능적 중심지와 부동산 가치, 김병욱 (북한개발연구소)
- 양강도의 관광자원 현황과 개발 가능성, 강동원 (동아대)
- 혜산의 초국경 협력: 북-중 합작 백두산 생태관광특구 조성, 김성배 (숭실대)
- 코로나 이후 혜산 농민시장의 변화, 김미진 (엔케이투자기발)

2024년 가을, 통권 6호, 남포특별시

- 권두언 - 하나님의 선교전략과 그분의 인도하심, 김성태 이사장
- 남포특별시의 역사와 공간구조, 편집부
- 남포의 교회를 찾아서, 편집부
- 남포의 도시 공간과 일상, 이시효 (숭실대)
- 남포의 산업시설 현황, 김영희 (남북하나재단)
- 서해 관문도시 남포시의 개발현황과 전망, 남근우 (인헌연구원)
- 남포는 근현대사의 남포불, 전병길 (예스이노베이션)
- 남포와 은재 신석구 목사, 유관지 (북녘교회연구원)

2024년 겨울, 통권 7호, 함경남도 함흥

- 권두언 - 교회설립, 다음 세대 교육 및 의료선교의 모범 함흥지역 선교, 김성태 이사장
- 북한의 대표화학공업도시 함흥의 역사와 공간구조, 편집부
- 함흥과 그 주변의 교회를 찾아서, 편집부
- 1960-1980년대 북한의 함흥시 공간 개발전략, 박희진 (동국대)
- 사회주의적 화학공업도시 함흥, 홍남의 기업, 형성, 발전, 위영금 (정치학 박사)
- 함흥시 건축물의 공간구조 형성과 산업시설, 김병욱 (북한개발연구소)
- 함흥-홍남은 어떻게 마약 생산지가 되었는가? (함흥 출신 탈북민)

- 함경남도 함흥지역의 성결교회 이야기, 이한복 (서울신대)
- 북한 화학산업 대표기업, ‘홍남비료연합기업소’ 김미연 (산업은행)
- 그리스도의교회 중심지 함경남도 북청과 동석기, 천인수 (강서대)

2025년 봄, 통권 8호, 황해남도 해주

- 권두언 - 나무가 베어져도 그루터기를 보존하시는 하나님, 김성태 이사장
- 황해남도 중심도시 해주의 역사와 공간구조, 편집부
- 해주의 교회를 찾아서, 편집부
- 해주 도시공간과 일상, 이시효 (영지대)
- 북한 황해남도 중심도시, 해주시의 공간정보, 김병욱 (북한개발연구소)
- 해주의 이 교회들, 있던 곳은 어디일까?, 유관지 (북녘교회연구원)
- 황해남도에 설립된 성결교회들의 이야기, 이한복 (정선교회)
- 서우도 홀과 해주 구세요양원, 김철성 (목원대)

2025년 여름, 통권 9호, 함경북도 청진

- 권두언 - 성리 신학과 청진의 교회, 김성태 이사장
- 북한의 중공업 도시 청진의 역사와 공간구조, 편집부
- 청진 도시공간과 일상, 이시효(영지대)
- 철과 사람이 만나는 공간: 청진시 공간구조, 김병욱(북한개발연구소)
- 청진시장의 어제와 오늘, 백명숙(숭실대)
- 달린 문 너머의 청진 - 다시 국제도시를 꿈꾸다, 전병길(예스이노베이션)
- 청진과 그 주변(함경북도 남부)의 교회를 찾아서, 편집부
- 동이 기독교의 함경도 선교, 안희열(침신대)

2025년 여름, 통권 9호, 함경북도 청진

- 권두언 - 성리 신학과 청진의 교회, 김성태 이사장
- 북한의 중공업 도시 청진의 역사와 공간구조, 편집부
- 청진 도시공간과 일상, 이시효(영지대)
- 철과 사람이 만나는 공간: 청진시 공간구조, 김병욱(북한개발연구소)
- 청진시장의 어제와 오늘, 백명숙(숭실대)
- 달린 문 너머의 청진 - 다시 국제도시를 꿈꾸다, 전병길(예스이노베이션)
- 청진과 그 주변(함경북도 남부)의 교회를 찾아서, 편집부
- 동이 기독교의 함경도 선교, 안희열(침신대)

2025년 가을, 통권 10호, 황해북도 사리원시(沙里院市)

- 한국교회의 요람으로 황해도 지역교회와 자랑스러운 신앙 유산, 김성태 이사장
- 사리원의 역사와 공간구조, 편집부
- 사리원 도시공간과 일상, 이시효 (영지대)
- 평양과 군사분계선을 잇는 황북의 도심, 사리원시 공간구조, 김병욱 (북한개발연구소)
- 사리원 기행: 역사의 흔적을 따라 걷는 황해도 중심부, 전병길 (예스이노베이션)
- 사리원과 그 주변의 교회를 찾아서, 편집부
- 한위렴(William B. Hunt) 선교사의 재광선교와 한국 장로교회, 박응규 (아신대학교)
- 황해북도에 설립된 성결교회들의 이야기,이한복 (정선교회)
- 황해도 신천학살 사건의 진실, 한화룡 (백석대학교)

2025년 겨울, 통권 11호, 평양(平壤)직할시

- 북한의 수도 평양의 역사, 편집부
- 대동강을 문화공간으로, 노현중 (서울대)
- 평양 공간격차와 도시민의 삶, 이시효 (영지대학교)
- 문학 작품을 통해 본 평양의 역사와 풍광, 권순교 (세명대학교)
- 평양의 교회를 찾아서, 편집부
- 마포삼열(Samuel A. Moffett)과 평양 대부흥운동, 박응규 (아신대학교)
- 해방 후 한국정치와 기독교민족주의자 조만식, 박명수 (서울신대)

2026년 봄, 통권 12호, 평양(平壤)직할시 2

-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북한 평양소재, 편집부
- 교회가 주는 역사적 교훈, 한지민 (숭실평화통일연구원 북한도시연구단 공동연구원)
- 북한의 수도 평양의 공간구조
- 김정은 집권 2기 평양 살림집 건설의 특징
- 평양의 교회를 찾아서 (평양대부흥 이후 - 현재)
- 평양에 설립되었던 감리교회의 신학교육 기관들, 고성은 (목원대학교)
- 평양남도에 세워진 성결교회, 이한복 목사(정선교회)
- 평양신학교의 설립 목적과 발전, 전준봉 (칼빈대학교)
- 여성 목회자의 산실, 평양장로교회여성선교회, 김일환 (서울장신대학교)

“위의 모든 자료는 오픈도어 홈페이지 <https://www.opendoors.or.kr/> - 자료실 - 발행자료 에서 무료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계 기록과 박해 지수 2026



한국오포도선교회(문의 02-596-3171 / 후원: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